

'11년~'12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과 그 시행 결과를 수록한 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3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제 1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3

1. 언어정책의 개념 .....3

2. 언어정책의 유형 .....4

3. 국어정책의 방향 .....6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10

1. 국어기본법 .....10

2. 국어기본법 시행령 .....13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17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19

1. 문화체육관광부 .....19

2. 국립국어원 .....22

3. 세종학당재단 .....27

4. 국어심의회 .....32

5. 국어책임관 .....39

6. 국어문화원 .....42

**제 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49

1. 공공언어 사용 실태 .....49

2. 국내의 국어 교육 .....66

3. 국내 한국어 교육 .....80

4. 국어 관련 민간단체 .....86

제2절 국외 현황 .....97

1. 한국어의 위상 .....97

가. 한국어 사용자 수 .....97

나. 외국의 한국어 과목 채택 및 개설 현황 .....	99
2. 한국어 국외 보급 .....	102
가. 한국어 보급 기관 .....	102
나. 한국어 교재 .....	103
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	103

### 제 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	111
1.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한국어 국외 확산 .....	111
2.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	114
3.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	116
제2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1~2012) .....	119
1. 개요 .....	119
2. 주요 실적 .....	125
가. 언어 정책 기반 조성과 국어 능력 향상 .....	125
나.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	137
다.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	141
제3절 언어 정책 기반 조성 and 국어 능력 향상 .....	147
1. 추진 배경 .....	147
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148
나.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149
다.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	149
라.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149
마.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	150
바. 교과서, 법령문의 감수 제도 정착 .....	150
사.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151
아.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151
2. 추진 실적 .....	152
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152
나.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155
다.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	157
라.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158
마.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	165

바. 교과서, 법령문의 감수 제도 정착 .....	168
사.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169
아.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172
제4절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	177
1. 추진 배경 .....	177
가.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178
나.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 .....	179
다.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	180
2. 추진 실적 .....	181
가.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181
나.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 .....	198
다.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	201
제5절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	204
1. 추진 배경 .....	204
가.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	204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205
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 .....	206
라.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209
마.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210
2. 추진 실적 .....	210
가.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	211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215
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 .....	218
라.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225
마.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231

## 제4장

###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추진 개요 .....	241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	243
1. 언어 정책 기반 조성 and 국어 능력 향상 .....	243
가.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 .....	243
나. 소통의 국어 문화 확산 .....	247
다. 품위 있는 언어생활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253

2.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	260
가.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262
나.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 문화의 국외 확산 .....	265
3.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	267
가. 국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	267
나. 한글의 국내외 위상 제고 .....	270

**부 록**

국어기본법(2013. 3. 23. 개정 공포) .....	273
국어기본법 시행령(2013. 3. 23. 개정 공포) .....	275
국어기본법 시행규칙(2013. 6. 30. 개정 공포) .....	301
국어심의회 운영세칙(2009. 10. 11. 개정 공포) .....	314



제1장	〈표 1-1〉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7
	〈표 1-2〉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07년~11년)의 주요 방향	7
	〈표 1-3〉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년~16년)의 주요 방향	8
	〈표 1-4〉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	8
	〈표 1-5〉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2
	〈표 1-6〉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6
	〈표 1-7〉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8
	〈표 1-8〉 국어정책과 세출 예산	21
	〈표 1-9〉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21
	〈표 1-10〉 국립국어원의 세출 예산	23
	〈표 1-11〉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24
	〈표 1-12〉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34
	〈표 1-13〉 국어심의회 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34
	〈표 1-14〉 국어심의회 의 주요 심의 사항	35
	〈표 1-15〉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1. 9.~13. 8.)	37
	〈표 1-16〉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39
	〈표 1-17〉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40
	〈표 1-18〉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11년~12년)	42
	〈표 1-19〉 국어문화원 설립 조건	43
	〈표 1-20〉 전국 18개 국어문화원 현황(13. 7.)	43
	〈표 1-21〉 국어문화원 연혁	44
〈표 1-22〉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45	
제2장	〈표 2-1〉 방송사의 주말 오락프로그램 분석 결과(11년)	50
	〈표 2-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11년)	51
	〈표 2-3〉 공공언어의 종류	51
	〈표 2-4〉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56
	〈표 2-5〉 공공기관 보도자료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58
	〈표 2-6〉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대상(총 312개 중 일부)	58
	〈표 2-7〉 공공언어 바로잡기 관련 책자 및 주요 배포처	60
	〈표 2-8〉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08년~12년)	61
	〈표 2-9〉 누리꾼들의 순화 대상어 제안 및 투표 현황(04년~11년)	64
	〈표 2-10〉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68

	〈표 2-11〉 국어·언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및 학과별 전임교원 수(12년)	70
	〈표 2-12〉 '13학년도 17개 시도 국어과 공립중등교사 임용 시험 응시 현황	74
	〈표 2-13〉 문해 교육 기관 수와 기관별 프로그램 수(12년)	75
	〈표 2-14〉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11년~12년)	76
	〈표 2-15〉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역별 기관 수(12년)	77
	〈표 2-16〉 전 세계 한글학교 지역별 현황(12년)	80
	〈표 2-17〉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12년)	81
	〈표 2-1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82
	〈표 2-1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	83
	〈표 2-20〉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2년 12월)	85
	〈표 2-21〉 국어 관련 단체 통계(12년 12월)	86
	〈표 2-22〉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12년 12월)	87
	〈표 2-23〉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회원 학회 명단(설립일순 배열)	95
	〈표 2-24〉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상위 20개 언어	98
	〈표 2-25〉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 상위 10위 언어	98
	〈표 2-26〉 외국 초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현황(12년)	99
	〈표 2-27〉 외국의 한국학(대학 및 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현황	100
	〈표 2-28〉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	104
	〈표 2-29〉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106
<b>제3장</b>	〈표 3-1〉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구성 계획	116
	〈표 3-2〉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03년~12년)	125
	〈표 3-3〉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실적(11년~12년)	130
	〈표 3-4〉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추진 실적(11년~12년)	132
	〈표 3-5〉 점자·수화 체계 개선 지원 실적(11년~12년)	133
	〈표 3-6〉 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와 점수평균(08년~12년)	135
	〈표 3-7〉 국어문화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11년~12년)	136
	〈표 3-8〉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추진 실적(11년~12년)	142
	〈표 3-9〉 민족 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11년~12년)	142
	〈표 3-10〉 지역어 조사 실적(11년~12년)	143
	〈표 3-11〉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구성 체계	152
	〈표 3-12〉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153
	〈표 3-13〉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선정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목록(11년~12년)	159
	〈표 3-14〉 국립국어원의 감수 지원 주요 실적(11년~12년)	167
	〈표 3-15〉 교과서 감수 현황(11년~12년)	168
	〈표 3-16〉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12년 12월)	183
	〈표 3-17〉 국가별 일반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12년 12월)	184
	〈표 3-18〉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기본교재 개발 현황(08년~13년)	187
	〈표 3-19〉 세종학당 교육과정별 교재 개발 현황	189

	〈표 3-20〉 국립국어원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실적(11년~12년)	190
	〈표 3-21〉 국내 대학 연계 세종학당 현황(11년~12년)	194
	〈표 3-22〉 누리-세종학당 이용자 증가율(11년~12년)	197
	〈표 3-23〉 한국어 공동 연수회 개최 실적(10년~12년)	202
	〈표 3-24〉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 실적(10년~12년)	202
	〈표 3-2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참여 기관별 역할	209
	〈표 3-26〉 민족 생활어와 직업 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11년~12년)	212
	〈표 3-27〉 한국어의 지역어 분포 조사 실적(11년~12년)	213
	〈표 3-28〉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12년)	215
<b>제4장</b>		
	〈표 4-1〉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책의 향후 추진 방향	242
	〈표 4-2〉 새터민용 강좌·교재 단계별 개발 계획(13년~16년)	244
	〈표 4-3〉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과정 증가 현황(10~12년)	257
	〈표 4-4〉 한국어 교수 학습 보조 교재 개발 현황 및 계획(11년~16년)	263
	〈표 4-5〉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 재교육 계획(13년~16년)	263
	〈표 4-6〉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현황 및 계획(11년~16년)	264
	〈표 4-7〉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자격자 충원 비율의 확대 현황 및 계획(11년~15년)	265
	〈표 4-8〉 세종학당 설립 중기 계획(누계)(13년~17년)	266
	〈표 4-9〉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단계별 추진 내용	268

제1장	[그림 1-1] 새로운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9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조직도	20
	[그림 1-3] 국립국어원 조직도	23
	[그림 1-4]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27
제2장	[그림 2-1] 전국 대학·대학원의 국어 관련 학과·전공 수('11년)	69
	[그림 2-2]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수 현황('06년~'12년)	78
	[그림 2-3]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84
	[그림 2-4] 전 세계 한국어 교재 발간 현황('09년)	103
	[그림 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혁	104
제3장	[그림 3-1] 국립한글박물관 조감도	115
	[그림 3-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119
	[그림 3-3]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생활 속의 어문 규범 온라인 강좌 9차시	127
	[그림 3-4]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학습자용 누리집	127
	[그림 3-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145
	[그림 3-6]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	145
	[그림 3-7]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166
	[그림 3-8] 베트남 호찌민 세종학당 누리집	182
	[그림 3-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세종학당 누리집	182
	[그림 3-10] 국가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12년 12월)	183
	[그림 3-11] 세종학당 표준 교재 '세종한국어' 1~4권(국립국어원)	189
	[그림 3-12]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참가자 변동	192
	[그림 3-13] 누리-세종학당 첫 화면	195
	[그림 3-14]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콘텐츠	198
	[그림 3-15] 누리-세종학당 디지털 교육자료관(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	198
	[그림 3-16]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웹사이트 구축 체계	199
	[그림 3-17]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배경 및 목표	207
	[그림 3-18]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임무와 미래상	207
	[그림 3-19]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체계도	208
	[그림 3-20]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12년 사업 추진 실적	219



# 제1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 정책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 제1장 언어정책 개요

###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 1. 언어정책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언어정책을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 전시키려고 쓰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예로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풀이는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통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뜻하기 때문에 언어정책은 곧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정책의 범주는 어문규범이나 문자 정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언어정책의 실현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언어 관련 활동은 그것이 표준어 확립이나 맞춤법 제정,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활동, 국어 순화 등, 전체 국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어정책에 포함하지 않는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활동은 ‘언어운동’이라 하여 언어정책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의 구분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언어정책을 실행하면서 대중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언어운동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며, 민간단체의 언어운동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에 의존하기도 한다.

## 2. 언어정책의 유형

언어정책은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언어정책의 주체인 국가의 개입 방식 또는 개입 정도에 따라 ‘국가 개입주의 언어정책’과 ‘방임주의 언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국가가 직접 언어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언어정책을 국가 개입주의 언어정책이라고 하며, 언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언어정책을 펼치는 것을 ‘방임주의 언어정책’이라고 한다. ‘국가 개입주의 언어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사법과 행정은 다른 어떤 언어도 아닌 프랑스어로만 처리하게 한 『빌레르-코트레 칙령』(1539년)이나 프랑스 내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 외국어로 광고하려면 프랑스어 번역문을 병기해야만 한다고 규정한 1994년의 『투봉법』은 국가가 외국어에 위협받는 자국어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이다. 방임주의 언어정책은 주로 영어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언어정책상 국가가 영어 사용에 대한 규제나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편찬, 교육, 보급 등을 후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실제로 한 국가가 전적인 개입주의 언어정책이나 전적인 방임주의 언어정책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어느 한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언어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정책의 유형은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의 측면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언어계획은 언어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한 사회의 언어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말한다. 이 말은 주로 제3세계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언어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언어정책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언어계획에 따른 유형은 크게 ‘언어 위상 계획’, ‘언어 자료 계획’, ‘언어 습득 계획’으로 구분된다. ‘언어 위상 계획’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언어의 사용 범위와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계된 것으로 여러 언어가 있을 때 어떤 언어를 국어로 삼고 어떤 것을 공용어로 삼을 것인지, 혹은 어떤 언어를 표준어로



두고 어떤 것을 방언으로 둘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자를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언어 위상 계획은 특히 한 국가가 독립할 때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국가가 자국어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머지않아 그 언어는 기존의 위상이나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자료 계획’은 특정 언어의 체계와 형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으로 한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철자법 제정, 사전 편찬, 문헌 정리, 신어 개발, 전문 용어 정비, 어휘의 현대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언어 자료 계획은 한 공동체의 언어가 대화나 공적 생활, 교육 등에서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어 습득 계획’은 특정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수와 사용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과 관계된 것이다. 학교에서의 모어(母語) 또는 제2언어 교육,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각종 언어 학습, 문해력(文解力) 증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언어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문화원을 운영하여 자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용어화나 한국어 국외 보급 문제는 언어 위상 정책과 관련된 것이며,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및 개정 문제는 언어 자료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의 기초 문해력 향상이나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공교육 강화 문제는 언어 습득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정책은 한 국가 내 언어의 기능과 존재 양상에 따라 ‘단일 언어 사용 정책’, ‘이중 언어 사용 정책’, ‘다중 언어 사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언어 사용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가 역사적, 지리적 요인에 의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프랑스를 포함하여 단일 언어정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1국가 1언어의 효율성을 위해 강력한 단일 언어 사용 정책을 추진한다.

벨기에, 캐나다 등은 ‘이중 언어 사용 정책’을 펴는 국가이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중 언어

사용 정책에서는 특정 언어들의 사용 범위와 기능에 관한 '언어 위상 정책'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중 언어 사용 정책'을 취하는 국가로는 중국, 스위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등이 있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국가 통용 언어인 보통화(普通話, 북경어 중심)와 국가 통용 문자인 규범 한자를 통해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기하는 한편, 국민 통합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좡족(壯族), 만주족, 후이족(回族), 위구르족, 몽골족, 티베트족, 조선족 등 55개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스위스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민족들이 있어 각 민족의 언어에 대해 공용어의 지위도 동등하게 인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스위스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만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에서도 다중 언어 사용 정책을 흔히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의 국경선 대부분은 구 식민 지배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그어진 것으로 그들의 언어적, 민족적 경계와 무관하다. 식민지 시대에 서로 다른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은 지배 국가의 언어에 의존했던 탓에 한 개 또는 두세 개의 토종 국민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후에 몇몇 언어가 비교적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선호되기는 했지만 그 지위는 아직도 가변적이다. 그러므로 다중 언어 사용 정책에서는 특정 언어들에 특별한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는 '언어 위상 정책'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된다.

### 3. 국어정책의 방향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 등 언중의 언어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상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문제, 사전 편찬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표 1-1〉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 한글의 기계화 및 과학화 사업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제 규범
- 생활 언어 및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
- 한글의 역사적 변천과 방언의 조사 및 연구
- 남북한 언어 통일
-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
- 국어의 해외 보급과 해외 거주자의 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과 국어 관련 각종 사전의 발간
-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중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01년과 2002년에 들어 국어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국어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된다. 국립국어원이 국어정책의 국가 중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나아가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 뒷받침을 받으며 국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작성한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07년~11년)과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년~16년)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1-2〉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07년~’11년)의 주요 방향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국어 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해외 진흥 확대
- 국제화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 규범 정립
- 사회 통합적 언어 복지 시책 확대 시행
- 국어 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
- 지식정보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어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표 1-3〉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년~'16년)의 주요 방향

-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 정책
- 고품격의 언어문화 창조 기반 확보
- 공생공영 사회 실현에 기여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
- 우리말 보전과 전승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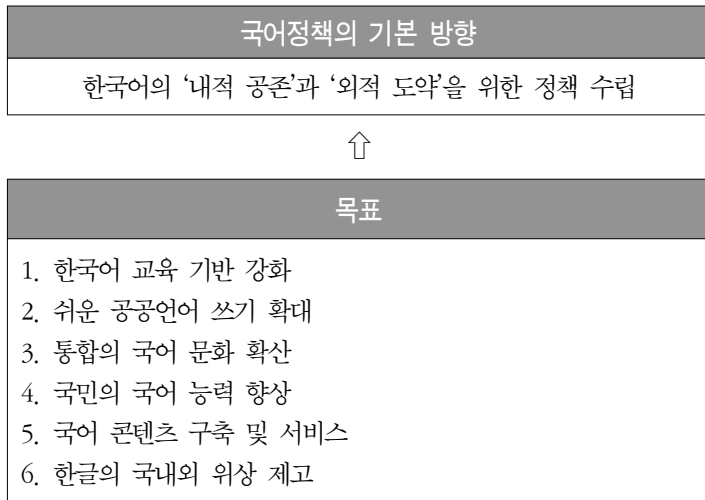
그런데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던 국어정책 가운데 순수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2011. 6. 16. '국어정책과'로 변경)로 이관되었다. 2009년 5월 이후의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1-4〉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 규범의 정비</li> <li>○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li> <li>○ 국어책임관 운영평가</li> <li>○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li> <li>○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li> <li>○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li> <li>○ 지역어 발굴 및 보전</li> <li>○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li> <li>○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li> <li>○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li> <li>○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li> <li>○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li> </ul>
국립국어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li> <li>○ 언어와 문자, 특수 언어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li> <li>○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li> <li>○ 공공 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li> <li>○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li> <li>○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li> <li>○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li> <li>○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li> <li>○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li> <li>○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자격 부여</li> <li>○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li> </ul>

이렇게 정책 수행 기능과 연구 기능이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으로 분리되었지만 이들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나라 안팎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국내적으로는 영어의 확산에 의해 전문 영역을 넘어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의 사용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외래어·외국어의 오남용이 심각하며 인터넷 통신언어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국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세대교체는 지역어와 민족 문화 생활어를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반대로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대미문의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새터민, 국제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로 언어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남북한의 정세 변화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언어정책은 이러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엄정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해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 새로운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 1.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24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한국어와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 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였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20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변칭 변경)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한글 관련 주요 법령이었지만 거의 사문화되었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어기본법」이 명실상부한 국가 단위의 국어정책 수립 및

시3행에 관한 최상위 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나. 「국어기본법」 연혁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 발표된 국어 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 방침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 국어 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검정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을 확대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 다. 「국어기본법」의 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반해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글 역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임을 밝혀 그동안 관습적으로 정의되었던 ‘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어 발전을 통해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라.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와 ‘한글’의 명시적 규정	제3조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어의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실태조사	제9조	국어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국어책임관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심의 사항이 추가됨.
공문서 작성	제14조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국어의 보급	제19조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을 지원, 관리하는 중추 기구인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함. 세종학당재단 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국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균등을 위해 힘써야 함을 명시함.
국어 능력의 검정	제23조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문화원 지정	제24조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
일부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일부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제14조의2~제14조의4 규정 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4호
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조(전문 19개조, 부칙 4개조)를 제정·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른 일부개정(2010. 12. 14.)에서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였다. 후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만 한정했던 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학 등으로부터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신청 받아 그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4053호에 따른 일부개정(2012. 8. 22.)에서는 한국어 보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세종학당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때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그 외의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같은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이었다.

#### 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의 정신과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제3조)하고 있다. 또한 국어연구자를 중심으로 국어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이는 국가의 국어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국어운동과 국가의 국어정책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부응하면서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외국어학습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역시 한국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문화교류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담당자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의거해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국어 능력(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는 단순히 국민들의 국어 실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국어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어문규범

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제4조)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국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언어규범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제11조)하고,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제12조)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은 국어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의한 국어 능력 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언제나 자신의 국어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전문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 실태 조사	제2조	-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어의 실태 조사 실시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음.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4조	- 어문규범의 제정, 개정 시에 어문규범에 대한 인식, 만족도 조사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10조	- 국어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의 세 분과위원회 설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	제12조	-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함. - 각 부처에 5~20명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어 전문 용어 표준화안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심의회를 거쳐 회신하고 각 부처는 확정안을 고시하고 사용해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한국어교원 능력 검정 시험	제13조, 제14조	-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

분류	조항	주요 내용
		<p>학점의 이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함.</p> <p>- 한국어교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세종학당정책 협의회의 구성·운영, 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제14조의2 ~ 제14조의4	<p>-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p> <p>-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조항 신설</p> <p>-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운영 방법 규정</p> <p>- 세종학당재단 수익사업 계획의 승인과 변경</p>
한글날 기념행사	제15조	-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세종문화상 수여
국어 능력 검정	제18조	<p>-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함.</p> <p>-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에 대해 검정함.</p>
국어문화원 지정과 지원	제19조	<p>-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을 지정함.</p> <p>- 국어문화원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p>

###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시행 2011. 6. 30.)

#### 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은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 제22529호, 2010. 12. 14. 공포·시행)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전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7〉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 기준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였다(규정 제2조).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규정 제3조). 한국어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셋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규정 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넷째,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5조).

다섯째,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6조).

##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 1. 문화체육관광부

#### 가. 국어정책과 설립 목적 및 연혁

국어 정책 및 국어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세종조 무렵의 ‘집현전’과 ‘정음청(언문청)’,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 학부 내에 설치된 ‘국문연구소’가 있다. 물론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차이가 커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지만 어문 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정책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문교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1990년부터는 문화부(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문교부(1990. 12. 27. 교육부로 명칭 변경)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의거하여,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국어정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은 문화부 본부의 어문과가 수행하고, 정책 수립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기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수행해 왔다. 그 후 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 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정책국 어문과로 소속이 바뀌었고, 1997년 3월 20일에는 다시 국어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말과 글의 정보화·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남북 어문 규범 관련 업무 및 어문 자료 교류,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국립국어연구원과의 공조, 그리고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정과 국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관할하에 있는 문화예술국 산하의 문화정책관 관할로 되어 있다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문화예술국이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국 소속으로 되었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며,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 나. 조직 및 예산

### 1) 문화정책국 조직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국어정책과’이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관할하의 문화정책국 소속이다.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조직도



## 2) 예산

〈표 1-8〉 국어정책과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한글의 가치 확산	4,275	5,434	7,790	2,356	43.4
한글박물관 건립	5,000	9,100	16,978	7,878	86.6
국어 진흥 기반 조성	1,465	784	705	△79	△10.1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23	114	121	7	6.1
한글박물관 운영 기반 구축	0	0	2,000	2,000	순증
계	10,863	15,432	27,594	12,162	78.8

### 다. 주요 업무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국어정책과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9〉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일련 번호	주요 업무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및 제도,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 기관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 2. 국립국어원

###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연구소의 위상 제고는 1990년도 문화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의 정원 35명으로 직제가 확정되면서 1991년 1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합리적인 국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정책 및 연구 통합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책 집행 업무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으로써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규정을 관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국어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나. 조직 및 예산

#### 1) 조직

국립국어원의 조직은 1실(어문연구실), 1단(공공언어지원단), 1부(교육진흥부), 3

과(기획관리과,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2팀(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7월 1일 현재 정원은 45명(연구직 24명)이며 현원은 43명(연구직 23명)이다.



[그림 1-3] 국립국어원 조직도

## 2) 예산

〈표 1-10〉 국립국어원의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세 부 사 업	10,018	10,629	11,745	1,116	10.5
○ 국어 진흥 연구 및 개발	793	1,493	1,593	100	6.6
○ 국어 교육 진흥 및 여건 조성	1,616	1,517	1,643	126	8.3
○ 국립국어원 시설 개선 및 관리	965	1,014	1,167	153	15.0
○ 한국어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1,393	1,422	2,273	851	59.8
○ 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	571	751	621	△130	△17.3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4,000	3,800	3,816	16	-
○ 국립국어원 정보화	680	632	632	-	-
□ 인 건 비	2,493	2,437	2,584	147	6.0
□ 기 본 경 비	404	371	347	△24	△6.4
합 계	12,915	13,437	14,677	1,240	9.2

##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조~제41조, 「문화체육관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24조~제27조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1〉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어문연구팀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 언어 등에 대한 연구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언어정보팀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지원단	공공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용어 정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국어능력발전과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진흥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부서	주요 업무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어 보급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원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 지원과 한국어 자료 집대성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어·언어와 관련된 정책 통계를 생성·수집하여 변화되는 언어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어문 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문 규범 영향 평가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발간하며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를 제작하여 누리집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어 분야의 연구 성과와 현황 및 관련 활동을 정리·소개하는 『국어 연감』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 포함된 국어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어문규정, 외래어 표기 용례, 사전 등 각종 어휘 자료 및 국어 관련 자료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세종계획 등 국어 정보 처리 성과물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어 검색이 가능한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언어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한글박물관을 통한 한글 자료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여 한글 고전 자료의 원문 이미지 및 해설 자료를 제공하고 주제별 한글 고전 자료 특별 기획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국어 문화유산의 현대화, 디지털화를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판(영어, 중

국어, 베트남어 등)을 출간하고 한글 고전 자료 정리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방언자료 등 한국어 음성자료의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있다.

## 2)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공공언어지원 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언어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서식과 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초중고 교과서 언어의 표기·표현을 감수하며 표준화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방송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지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을 위한 교육용 전자책(e-book)을 발간하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터' (<http://malteo.korean.go.kr>)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국어 전반에 관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수강 인원 30명 이상이면 전국 어느 기관·단체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날짜, 시간, 과목 등을 정하여 신청하면 교재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언론·출판인 대상 교정·교열 과정, 국어책임관 공공언어정책 과정 등 대상별·내용별 특별 과정도 운영한다.

## 4)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등을 위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다. 온라인 교육 강좌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학습지, 시청각 보조 자료, 놀이 교재,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초·중·고교 표준 한국어 등을 개발하며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등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재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과 교육 연수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종학당 등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현장의 한국어교원을 위한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국어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한국어교원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 5) 그 밖의 국민 언어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표준수화 등 특수 언어 도구를 확립하고 이를 표준수화 학습 방송이나 점자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보급한다.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탈북민’, ‘탈북 동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북한 이탈 주민’임.)의 한국어 발음 교재 및 학습 시디를 개발하고 차별적 언어문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한다.

그 밖에 국어 어문규정을 비롯하여 언어생활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실(온라인 가나다)’과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가나다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트위터를 통한 국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국민의 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맞춰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3. 세종학당재단

### 가. 개요 및 현황

세종학당재단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자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2012년 10월 24일에 설립된 법인이다.



[그림 1-4]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의 배움터로서 세종학당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51개국 117개소(2012년 12월 기준으로는 43개국 90개소)에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의 개발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해외 한국어교원 초청 연수, 한국문화 교육 및 각종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해 세종학당이 세계 각지에서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이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에 접속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교육 자료와 지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한국어 교육의 국가 대표 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한국어 학습의 장뿐만 아니라 문화상호주의에 기반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종학당을 통해 한류의 지속·확산과 한국어 문화권역·한국어 공동체의 확대를 기하며, 세계 문화 다양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연혁

2008년 국무회의 때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2009년 7개 부처 합동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2010년에는 세종학당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안 부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5월 23일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8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2. 8. 22.)되어 시행령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가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식 및 창립 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 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하였다.<sup>1)</sup>

1) 2012년 10월 17일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해산되고, 한국



## 다. 주요 사업

### 1)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한류 확산, 국제결혼의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고용 허가제 시행 등으로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외 한국어 교육을 총괄·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을 설치하게 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전 세계의 세종학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학당’이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강좌를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세종학당은 재외 한국문화원 및 현지 대학 등에 개설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운영비·교재·문화 교육 프로그램·교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총 51개국 117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재외 한국문화원에 개설된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이 27개소, 현지 대학 등에 개설된 ‘일반 세종학당’이 90개소이다.

세종학당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 따라 한국어 교육 단계, 내용, 시간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세종학당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세종학당에 표준 교재인 ‘세종 한국어’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재 보급 및 세종학당의 교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종 한국어’의 출판·판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현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교재에 대한 익힘책(워크북) 개발, 보조 교육 자료의 현지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2) 세종학당 평가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종학당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반 영역·성과 영역에 걸쳐 학당 자체 점검용 ‘평가 지표’와 ‘평

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세종학당재단이 승계하였다. <법률적 근거: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일부개정)의 부칙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1년 한국어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법인인데, 그동안 한국어 학습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시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2005년 제1회~2007년 제3회) 위탁시행,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 항목'을 개발·보급하여 각 학당이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학당 평가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학습자의 성취도를 표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명사 특강·공개토론회(포럼)의 개최, 세종학당 홍보 안내지·소식지의 제작·배포 등 세종학당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화상호주의에 기반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우수 학습자 초청 문화 연수를 통한 깊이 있는 한국 문화 체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화 전문가 파견을 통한 단계별/지역별 한국 문화 교육과정 지원 및 문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으로 문화 교육의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10월 한글주간에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갖춘 지한파(知韓派)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학당의 문화상호주의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3)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국내외를 아울러 전문 한국어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있으며('12년 20명→'13년 24명)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종학당 운영자, 세종학당 교원 및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세종학당 간에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등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해외 한국어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 '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누리-세종학당'(http://www.sejonghakdang.org)은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누리집이다. 누리-세종학당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어를 배워요’, 세종학당 교원에게 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세종학당재단과 전 세계 세종학당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세종학당’ 등 크게 3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를 배워요’에서는 표준 온라인 교육과정인 ‘세종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방송(KBS), 한국교육방송(EBS),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 TV)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한국어 학습 관련 콘텐츠 및 가요, 동요, 국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가르쳐요’ 부분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어 교재, 연구 자료, 수업 사례 등을 제공하며, 한국어 교원·강사의 재교육을 위한 자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 교원·강사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교육 자료관을 통해 그림, 사진, 음성, 애니메이션, 만화(카툰),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 및 세종학당 운영자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 세종학당에 대한 기업 후원(메세나) 활성화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의 한국 문화 애호 분위기(이른바 ‘한류’) 덕분에 기업 이미지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류의 성과를 세종학당에 대한 기업 후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한국 문화의 확산 기반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업무 협약<sup>2)</sup>을 통해 세종학당 사업의 가용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기부금 단체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후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학당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 구글코리아(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특강), 천재교육(표준교재 지원), 한국문화정보센터(콘텐츠 제공), 아리랑 국제방송(콘텐츠 제공), 산돌커뮤니케이션(교구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한류 콘텐츠 제작 관리 조언),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 근로자 대상 세종학당 운영), 에스비에스(SBS) (‘뿌리깊은 나무’ 디브이디(DVD) 제공) 등.

## 4. 국어심의회

### 가. 개관

국어심의회는 장관 자문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이다. 그 심의 사항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어심의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 나. 연혁

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따라 처음 조직되었는데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실질적인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에 국어정책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어심의회 운영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조사, 연구 기능까지 아울렀던 국어심의회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할 때,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반도록 하여 국어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 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 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회의의 의결,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이전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월 1일 당연직 13명, 위촉직 34명으로 국어심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구성 범위도 국어, 언어, 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장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밀착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3년 이후 국어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한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2〉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국어심의회규정 제정」 -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14727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법률 제4883호
1995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분과 구성 변경	법률 제7368호
2009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전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국어심의회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와 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만 전담하게 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과의 구성이 변경된 2005년에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3〉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자문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1991년 ~ 2005년	문화체육부 장관 자문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005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심의기구 (법적 성격: 자문기관인 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다. 기능 및 역할

국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어심의회의 기능은 분과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의 변화 과정은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64년부터 유지되던 ‘학술용어심의위원회’가 2002년에 ‘국어정보화분과’로 대체되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5개의 분과위원회의 3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분과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지금의 분과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분과별 심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4〉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필요할 경우 전문소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 밑에 두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라. 심의회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적

### 1) 심의회의 운영 방법

국어심의회의 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같은 「시행령」 제5조와, 같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

국어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와 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또는 그 하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국어심의회의 운영 실적

국어심의회의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다. 국어심의회의는 1958년에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 1968년에 인명·지명·숫자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 어문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안)을 심의했다. 1976년부터는 순화대상용어를 심의하여 국어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심의·확정했다.

국어심의회의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1988년 1월에 고시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심의를 들 수 있다. 1988년의 어문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절위원회의 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1988년 어문규정 개정 이후에도 <표준어 모음 제2집 심의>(1990. 7.), <표준화법 심의,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 10.),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 심의>(1994. 9.), <한글 맞춤법 일부 조항 재심의>(1994. 12.),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여부 심의>(1991. 5.), <외래어 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심의>(1992. 4.),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 심의>(1995.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심의>(1996.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자문 및 심의>(1997. 6.), <한국 점자 규정안 심의>(1997. 11.) 등의 실적이 있다.

1990년대에는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으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 용어 순화안 심의>(1990. 7.), <일본어투 표현 순화 자료 심의>(1991. 6./ 1991. 7.), <건설 용어, 미술 용어 심의>(1992. 2.~5.), <글 자체 용어 심의>(1992. 10.), <식생활 용어 심의>(1992. 11.), <행정 용어 심의, 신문 인쇄 용어 심의>(1992. 12.), <생활 외래어·전산기 기본용어·행정용어·선거·정치용어심의>(1993. 12.), <임업·봉제용어 심의>(1994. 9.~12.),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5. 7.~8.), <행정 용어 심의 및 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 제작 용어 사용 구분 표시 심의>(1995. 12.), <임업 용어 심의>(1996. 11.~12.),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7. 6.),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 심의>(1997. 12.) 등을 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심의회역의 역할에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심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어심의회는 '11년 12월 국어발전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실적을 심의하였고 그 외 표준어 규정 영향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11. 9.~'13. 8.)은 다음과 같다.

<표 1-15>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1. 9.~'13. 8.)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전체 회의	('11. 12. 19.) ○ 분과회의 결과 보고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표준어 규정 영향평가, 전문용어 표준화 계획 등	○ 분과회의 결과대로 통과
	('13. 4. 12.)	○ 5개 보고 안건: 이견 없음.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국어정책추진방향, 한글박물관 추진현황 및 계획, 문장부호 개정안 고시추진계획, 표준 발음법 영향평가 결과, 개방형 지식대사전 추진실적 및 계획 등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부호 개정안은 전체위원에게 검토의견을 받는 절차를 갖기로 함.(의견 수렴 결과, 위원 4명이 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국어원에서 보완하는 일정 추진키로 함.)</li> <li>- '문장 부호' 개정안 완성('13년 10월)</li> <li>-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 '문장 부호' 개정안 재상정('13년 11월)</li> <li>- 개정 '문장 부호' 고시('13년 12월~)</li> </ul>
언어정책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2. 19.)</li> <li>○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안)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통과</li> </ul>
어문규범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2. 19.)</li> <li>○ 표준어 규정 영향평가 결과 및 이후 표준어 관리 방안 보고, 표준 발음법 영향평가 계획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11. 30.)</li> <li>○ 경기북 및 공무원증의 로마자 성명 표기 개선 추진 상황 보고,</li> <li>○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4]) 개정안('나 뉴 뇨' 대응표 누락분 추가안) 심의</li> <li>○ '문장부호' 규정 개정안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자 성명 표기 개선의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침 지지</li> <li>○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개정안 심의: 원안대로 통과</li> <li>○ 문장부호' 개정안 심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의견에 대해 규범분과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4. 12.)</li> <li>○ '문장부호' 규정 개정안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통과</li> </ul>
국어순화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2. 19.)</li> <li>○ '[개정] 표준 언어예절' 마련 보고, '12년 전문용어 표준화 추진 계획 심의, 우리말 다듬기 순화어 심의 추진 계획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3. 19.), (4. 2.), (4. 16.), (8. 13.), (12. 6.)</li> <li>○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 문화부 발굴 전문용어 순화어 고시 대상 검토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전문용어 표준화 검토 내용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의뢰 행정용어 순화어(500여 개) 심의, 문화부 발굴 전문용어 순화어(312개) 고시 심의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뢰한 전문용어 표준화 목록은 전문소위에서 먼저 검토하기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2. 14.), (2. 28.)</li> <li>○ 방송통신전문용어(방통위 의뢰)를 순화분과 전문소위원회에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전문용어(95개) 검토 결과 심의 대상 25개, 심의 제외 62개, 판단 유보 6개</li> <li>- 1, 2차 검토 결과를 국어심의회 순화분과위원회에 상정하되 판단 유보한 6개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에서 표준안을 공모하기로 함.</li> </ul>

## 5. 국어책임관

###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국어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 제3조에서 규정한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6〉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이 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대해 국어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 3월 23일에도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국어책임관은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43명,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19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7명, 기초 지방자치단체 229명, 합계 508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 국어책임관은 공공 부문에서 국어의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국어 환경 조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또는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연혁

국어기본법 제정(2005. 1. 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05. 7. 27.)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뢰하였다. 이후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7〉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 5.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 7.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6. 8.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6. 9.	제1차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회의 개최
2007. 4.	54개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 7.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7. 9.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 3.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 5.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안동)
2010. 11.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서울)
2010.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 4.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1. 3.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1.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서울)
2011. 7.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1. 11.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
2011.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 2.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2.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경주)
2012. 7.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 11.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2.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 3.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3. 6.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부여)
2013. 7.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 다. 역대 주요 사업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 안내서를 만들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였다(2006년과 2008년에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11년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둘째, 2006년 5월, 2007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11월 등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조사한 주요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을 평가했는데, 2009년에는 경상남도, 충청북도, 2010년에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시,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부산광역시, 2013년에는 국방부, 경기도를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 가운데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의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 완전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대전, 충북, 전남, 제주, 대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충남, 서울, 전북, 경남, 대전, 전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표 1-18〉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11년~'12년)

<p>(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전(국어생활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li><li>· 충북(제2회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li><li>· 전남(알기 쉬운 행정용어집 발간 및 결혼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li><li>· 제주(제주 문화의 얼굴 문화재 안내 문구 바꾸기)</li><li>· 대구(대구시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사용 개선)</li></ul> <p>(201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남(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 교육 사업)</li><li>· 서울(서울시 안내판 공공언어 시범 개선)</li><li>· 전북(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 교육)</li><li>· 경남(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소개하는 경상남도 문화제)</li><li>· 대전(국어생활 통합서비스 운영 관리)</li><li>· 전남(전라남도청 공무원 국어 사용 능력 향상 교육, 순천시 언어 경관 실태 조사 및 개선 등)</li></ul>
--

## 6. 국어문화원

### 가. 개요 및 현황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한 것이 출발이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 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가 널리 퍼지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라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이듬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 1-19〉 국어문화원 설립 조건

<p>「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p> <p>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p> <p>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p> <p>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p>
---

〈표 1-20〉 전국 18개 국어문화원 현황 ('13. 7.)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남영신	'05. 10.	www.barunmal.org
2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이문규	'05. 10.	knukorean.knu.ac.kr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임규홍	'05. 10.	ckc.gnu.ac.kr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영선	'05. 10.	korean.donga.ac.kr
5	상명대학교(천안) 국어문화원	김미형	'05. 10.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이미향	'05. 10.	ccrk.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전혜영	'05. 10.	munjang.net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상준	'05. 10.	kor.chonnam.ac.kr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희숙	'05. 10.	www.koreanlab.or.kr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이호승	'05. 10.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성기영	'05. 10.	korean.kbs.co.kr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기탁	'07. 1.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소강춘	'07. 1.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영봉	'07. 1.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소래섭	'08. 12.	uoukorean.ulsan.ac.kr/home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정희	'08. 12.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안산) 국어문화원	김용덕	'10. 5.	hkli.hanyang.ac.kr
18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박덕유	'11. 2.	www.inhakorean.or.kr

## 나. 연혁

국어문화원의 전신인 국어상담소는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뒤,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되었다.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로 출발한 국어상담소(현 국어문화원)는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의 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4개소가 운영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전체 국어상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현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8년에는 울산과 대전 지역에 이어 2010년에 경기 지역, 2011년에는 인천 지역에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의 주요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1〉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4월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6년 6월	「국어상담」 창간호 발행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 12월	울산,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년 6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1년 2월	인천 지역 1곳 추가 지정, 총 18곳 지정 운영



### 다. 주요 사업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학생, 일반 시민이나 공공 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문규범·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공금증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용어 등에 대한 검토, 법령문·안전 설명문·제품 설명서·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의 문구 등 실용문에 대한 검토,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독서 지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1-22〉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공통 사업	세부 사업
국어생활 상담 및 감수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지원
국어 관련 행사	한글날 행사 개최, 토론왕 선발대회, 글짓기 대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사투리 말하기 대회 등
언어 환경 개선	관광지 안내문, 문화재 해설문, 간판·도로표지판 조사, 지역 방송·언론 등 공공기관 언어사용 모니터링, 지역 언어 실태 조사
찾아가는 문화학교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의 지원





##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제2절 국외 현황



##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 제1절 국내 현황

#### 1. 공공언어 사용 실태

##### 가. 개요

공공언어는 좁게는 ‘공공기관의 언어’, 넓게는 ‘공공성을 지닌 언어’를 말하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띠고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문서·공공기관의 보도자료(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 포함)·민원 서식·안내문·게시문·법령·계약서·약관 등에 쓰이는 언어,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나 교과용 도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저마비’와 같은 어려운 행정 용어를 개선할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5년간 570억 원을, ‘Mobile-K office(농촌 어메니티 체험 과정)’와 같은 어려운 정책 용어를 개선할 경우 354억을 아낄 수 있다.

국어운동단체인 ‘한글문화연대’의 2012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표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2,869건을 검토한 결과, 국어기본법<sup>3)</sup>을 위반한 사례(어문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영어 알파벳·한자를 괄호 없이

3)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사용하는 사례 등)는 총 12,895건이며, 1건의 보도 자료에서 평균 4.5번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식경제부는 273건의 보도 자료에서 3,725번을 위반하여, 보도자료 1건당 평균 13.6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사례가 가장 적게 발견된 여성가족부는 131건의 보도 자료에서 132건을 위반하여, 보도자료 1건당 평균 1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위반 사례를 보인 부처조차도 보도 자료마다 평균 1건 이상의 위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되새기면서 국어 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각 방송사의 주말 오락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2분 30초에 1회 꼴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년 9월, 국립국어원)

〈표 2-1〉 방송사의 주말 오락프로그램 분석 결과(’11년)

유형	사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지에 공식 지진아로 찍힌 현무 &lt;남자의 자격, 자막&gt;</li> <li>○ 남자들이 대부분 몸이 그따위라구요? &lt;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신○○&gt;</li> </ul>
비속어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부터 환장 팀워크 &lt;런닝맨, 자막&gt;</li> <li>○ 2011 S/S in 밀라노 Milan 베스트 포즈 대갈리니 &lt;무한도전, 자막&gt;</li> </ul>
반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나왔나? 재. &lt;무한도전, 박○○&gt;</li> <li>○ 야 이번에는 진짜로 해. &lt;무한도전, 하하&gt;</li> </ul>
불필요한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 땡큐한 가격이네. &lt;1박2일, 이○○&gt;</li> <li>○ 웰 컴 투 청춘합창단 &lt;남자의 자격, 자막&gt;</li> </ul>
부적합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계 보곤 얇은 다리로 후다닥! &lt;무한도전, 자막&gt;</li> <li>○ 어... 근데 왜 나왔데요? &lt;무한도전, 자막&gt;</li> </ul>

이러한 공공언어의 실태는 2011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통해 더욱 자세히 드러났다. 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씩의 보도자료를 선정하여 총 168개의 보도자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 결과를 고지한 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의 시간을 두고, 같은 기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를 1개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그 결과 중앙 행정기관은 1등급 이상인 곳이 7곳, 2등급 26곳, 3등급이 7곳으로 1등급은 17.5%에 지나지 않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등급이 18.7%로 중앙 행정기관보다 조금 높았다.

〈표 2-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11년)

구분	등급	점수
중앙 행정기관	1등급(7곳)	총점 960점 이상
	2등급(26곳)	총점 940점 이상 ~ 960점 미만
	3등급(7곳)	총점 940점 미만
광역 지방자치단체	1등급(3곳)	총점 940점 이상
	2등급(8곳)	총점 930점 이상 ~ 940점 미만
	3등급(5곳)	총점 930점 미만

#### 나. 공공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현황

공공언어를 바르게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소통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곧, 쉽고 분명한 언어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언어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공공언어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3〉 공공언어의 종류

생산 주체	대상	종류	
		글말 형태의 공공언어	입말 형태의 공공언어
국가, 공공기관	국민	정부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자료, 법령, 판결문, 기사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서의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	내부 문건, 보고서 등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 출처: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 2011), 8쪽.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공공언어는 국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민간기업, 공인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어와 구어로 구분된다. 문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언어 단위 측면과 정확성과 소통성이라는 질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언어 단위별 사용 실태와 개선안

#### (1) 단어를 바르지 않게 쓴 예

단어를 바르지 않게 쓴 경우로는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확한 용어는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 혼동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적은 용어, 어문규범에 맞는 용어를 의미한다.

- ① 정비 내역 → 정비 내용
- ② 신분증 패용 → 신분증 달기
- ③ 목표 년도 → 목표 연도

위 예들은 실제 공문서에 쓰인 사례들이다. ①에서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뜻하는 말이므로 문맥에 맞는 용어인 '내용'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②는 어려운 한자말 대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은 경우이고 ③은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을 바르게 고친 경우이다.

다음으로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국어 순화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쉽고 바르고 고운 말'로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어 순화는 국어의 소통 기능을 향상하여 국어 문화와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순화어는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용성이 있다.

- ① 원어민 보조교사 DB 구축: DB → 데이터베이스 → 기초자료(DB)
- ②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 → 기반
- ③ (통합 재단을) 모델로 설립 → 본보기로 하여 설립



①과 같이 영문 표기 DB를 그대로 쓸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국민이 순화어인 '기초자료'를 쓰거나 순화어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②의 경우도 더 쉬운 순화어로 바꾼 것이다. ③은 순화어로 바꾸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문맥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야 함을 보여 준다. '모델'을 순화어 '본보기'로 바꾸면서 서술어를 넣어 뜻을 분명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어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온 국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국어 표기를 위해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2) 문장을 바르지 않게 쓴 예

공공문서에서 문장을 바르게 쓰지 않은 경우는 크게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외국어 번역 투 표현을 그대로 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예들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 아닌 것을 바르게 다듬은 경우이다.

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되었다. (×)

대안 1: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하였다. (○)

대안 2: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이 선출되었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위 예처럼 능동과 피동 등은 헷갈리기 쉬운 예에 속한다.

다음 보기는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정보가 복잡하고 많을 때에는 대안 문장과 같이 각각의 정보에 따라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예)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통해 각종 응급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월 □일까지 ○○시 보건복지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안: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월 △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 사진전은 각종 응급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월 □일까지 〇〇시 보건복지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수식 어구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수식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예) 시장은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대안 1: 시장은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대안 2: 시장은 관계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누군가와) 논의하였다. (○)

예) 5킬로그램 상당의 금보관함 (×)

대안 1: 금 5킬로그램 상당을 담은 보관함 (○)

대안 2: 금을 담은 5킬로그램 상당의 보관함 (○)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표현은 경제 활동 등의 중요한 사회적 계약 문제와 연계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문장의 문법적 사용과 관계된 예들이다.

예)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대안: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예) 평화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 (×)

대안 1: 평화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

## 대안 2: 평화수호와 인권보장 (○)

첫 번째 보기는 조사, 어미, ‘-하다’ 등을 과도하게 생략해서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다. 두 번째 보기는 ‘-고/-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대등한 자격의 성분끼리 접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 사례들이다.

우리말다운 문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며, 외국어 번역 투 표현은 어순이나 문체 등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국어 번역 투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 (×)

대안: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 (○)

- ②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안: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위의 ①은 영어 번역 투 문장을 다듬은 예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나 추상적 대상이 능동적 행위의 주어로 나오는 어색한 피동 표현(~에 의해 ~되다)보다 다듬은 표현이 더 쉽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

②의 경우는 일본어 번역 투 문장을 다듬은 예이다. 일본어 번역 투인 ‘~에 있어(서)’는 ‘~에서’로 바꾸어 사용하면 표현이 더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 (3) 단락 구성을 잘못된 예

공공언어를 단어나 문장 단위에서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단락이나 담화 단위에서 제대로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락을 구성할 때에는 여러 문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주제를 전달하도록 구성해야 하는데, 공문서에서도 단락 구성상의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예) ○○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만 달러에 더해 ○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 보기는 인도적 지원의 추가 제공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즉,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절하다.

단락 쓰기는 여러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쓰는 것이므로 접속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단락이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지 못한다. 접속어를 잘못 써서 단락의 논리적 구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예) ○○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

여기서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말로서, 이 경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으므로 ‘그러나’를 쓸 수 없고 ‘그래서’와 같은 인과 관계의 접속어를 써야 한다.

## 2) 정확성과 소통성 측면의 공공언어 문제

국립국어원은 2010년에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정책연구용역, 민현식 외)를 수행한 바 있다.

〈표 2-4〉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출처: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2010)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공공언어 진단은 기존의 어문 규범이나 문법·어법 차원의 진단에서 더 나아가 공공언어의 질적 소통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확성’의 기준은 공공언어가 표기, 표현 등에서 언어 자체의 내적 질서를 잘 따랐는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라면, ‘소통성’의 기준은 공공언어가 언어 사용자 간의 성공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소통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공언어의 효용 가치가 단순히 무엇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왜 전달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성찰하는 데에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외부에서 공공언어 진단 결과를 통보받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공공언어를 진단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하든지, 공공언어의 진단과 개선은 국민에게 정책이나 사업을 쉽게 이해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 구성원 간에도 소통이 잘 되게 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과 2012년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총 56개소(2012년에는 57개)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 기관의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201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가 공공언어 사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중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공공언어 사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10월 11일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사용 우수 기관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공공언어 사용 우수 기관의 국어책임관이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게 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우수 기관을 격려함으로써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쓰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널리 확산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2-5〉 공공기관 보도자료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개선 대상 표현	개선한 표현	비고
Think Tank	두뇌 집단 (싱크탱크, Think Tank)	어려운 용어 사용 및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
Win-Win 효과	상생 효과/ 상승(相勝) 효과	어려운 용어 사용 및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
모멘텀	전환 국면	어려운 용어 사용
기 구축된 인프라	이미 구축된 기반 시설	”
사인(私人) 간	개인 간	”
광복군 초모(招募) 활동	광복군 모집 활동	”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자연스러운 표현
자살 시도자를 발굴하고	자살 시도자를 미리 찾고	”
회원기간	회원 가입 기간	”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Think Tank, Win-Win과 같은 외국어는 번역하거나 순화하여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써야 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해도 외국 글자는 괄호 안에 표기해야 함.)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3) 행정분야 전문용어 사용 실태와 개선

행정분야 전문용어는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어려운 전문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시행하였다(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시행 2013. 3.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9호)).

〈표 2-6〉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대상(총 312개 중 일부)

번호	대상 용어	원어 표기	순화어	적용 예문
1	~ 게이트	~ gate	~ 의혹사건	검찰이 ○○게이트(→○○의혹사건)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번호	대상 용어	원어 표기	순화어	적용 예문
2	가건물	假建物	임시 건물	가건물(→임시 건물)을 짓다.
3	가건축	假建築	임시 건축	건본 주택은 가건축(→임시 건축) 허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철거된다.
4	가검물	可檢物	검사물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가검물(→검사물)을 채취하였다.
5	가결의	假決議	임시 결의	법률안 가결의(→임시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
6	가계약	假契約	임시 계약	시공사를 선정하고 가계약(→임시 계약)을 맺었다.
7	가계정	假計定	임시 계정	자금을 가계정(→임시 계정) 형식으로 인출했던 횡령 사건이 적발되었다.
8	가도	假道	임시 도로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공사현장의 가도(→임시 도로)가 차단되었다.
9	가사용	假使用	임시 사용	구청은 신축 백화점의 가사용(→임시 사용)을 허가하였다.
10	가설무대	假設舞臺	임시 무대	야외 가설무대(→임시 무대)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가 한창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의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 다. 공공언어 사용 개선 추진 방안

##### 1) 자료 발간을 통한 개선(공공언어 바로 쓰기 외)

국립국어원은 공공지원단을 통해 2009년에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를 발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만 부씩 모두 2만 부를 발간하여 행정 현장의 공문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2011년에는 자료 책자 제목을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로 고쳐 2011년 1만 부, 2012년 8천 부를 찍어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원내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원 등에 보내 공문서의

어문 규범 준수 및 쉬운 공공언어 사용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바로 쓰기』(2010)는 중앙 및 지자체의 보도 자료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 부서, 대변인실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 보내 보도 자료에서 쉬운 용어,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쓰는 데 활용하게 하였고,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2011)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배포하여, 역시 보도 자료에서 쉬운 용어와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쓰고 어문 규범을 준수하는 데 활용하게 하였다.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언어 바로 쓰기』(2011)는 주로 경력이 적은 초심 기자들이 활용토록 기획 제작하였고,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출판 언론인 특별과정’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2011)는 방송국 연예 오락 담당 프로듀서, 출연진 등에게 배포하여 방송에서 비속어, 차별적 언어, 외국어 남용 등을 개선하여 바르고 품격 있고 쉬운 용어를 쓰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표 2-7〉 공공언어 바로잡기 관련 책자 및 주요 배포처

책자 이름	주요 배포처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2011, 2012)	중앙 및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 부서, 대변인실 및 기타 공공기관 등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자료 바로 쓰기 (201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직원 전체와 소속기관에 몇십 권씩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포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언어 바로 쓰기 (2011)	중앙 및 지방의 언론사(수습 기자나 경력이 비교적 적은 기자를 중심으로 배포하도록 안내함.)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2011)	방송국 연예·오락담당 프로듀서, 작가, 출연진 등

## 2) 교육을 통한 개선

교육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노력은 주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과정을 강의 개설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국립국어원 원내에서 진행되는 ‘국어문화학교’(정규과정, 특별과정), 둘째, 국립국어원이 신청 기관의 구성원과 교육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기획과정’, 셋째, 신청 기관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대개 2시간



1강좌를 강의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2011년에는 ‘국어문화학교’(국어전문교육과정)는 총 29회 2,701명(그중 정규과정(공무원반, 교사반)은 18회 2,303명, 특별과정(국어책임관, 언론출판인 특별과정 등)은 11회 398명)이, ‘기획 과정’은 총 81회 5,919명(국회사무처 직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등)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334회 28,689명이 수강하였다.

2012년에는 ‘국어문화학교’(국어전문교육과정)는 총 36회 3,841명이, ‘기획 과정’은 총 75회 5,055명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486회 34,347명이 수강하였다.

〈표 2-8〉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08년~'12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24	27	35	29	36	151
	인원(명)	2,443	2,733	3,174	2,701	3,841	14,892
기획 과정	횟수(회)	-	-	15	81	75	171
	인원(명)	-	-	489	5,919	5,055	11,463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148	297	316	334	486	1,581
	인원(명)	10,275	19,062	27,804	28,689	34,347	120,177
총계 인원(명)		12,718	21,692	31,467	37,309	43,243	146,429

학교를 졸업한 일반 성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 과정으로는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가 대표적이다. 현재 주로 공무원, 교사, 출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내 국어문화학교의 수강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3,174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841명에 이르러 2년 동안 18% 증가하였다. 기관 특성에 맞추어 교육을 하는 ‘기획과정’은 2010년에 시작되었는데 2010년에는 15회 489명이 수강했으나 2012년에는 75회 5,055명이 수강하여 2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 지역민을 위해 강사가 찾아가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010년에 316회 27,804명이 수강하였고, 2012년에 486회 34,347명이 수강하여 2년 동안 23.5%가 증가하였다.

원내 국어문화학교를 통하여 2년간 65회 교육에 6,542명이 수강하였고, 기획 과

정을 통하여 2년간 156회 교육에 10,974명이 수강하였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하여 2년간 820회 교육에 63,036명이 수강하였다. 국어문화학교 강의 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0%로 나옴으로써 국어문화학교가 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문화학교 특별과정과 기획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크게 증대시켰다고 판단된다. 또 원내 국어문화학교에서 교사, 출판인,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직무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국어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우리 국어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였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국어문화학교의 강의는 인기 있는 강의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문화학교 교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직무 연수 교재, 관공서와 공공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그리고 국어문화학교 정규 과정 및 특별 과정(수요자 맞춤형 국어 교육 과정)의 대상과 특성에 따른 교재를 다수 개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의도 확대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스로 국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국어 강좌 콘텐츠(‘생활 속 어문 규범’(15차시), ‘띄어쓰기’(12차시), ‘훈민정음의 이해’(14차시) 등)와 국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어 강좌 콘텐츠 ‘표준 언어 예절’(15차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5차시),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7차시)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어 사용자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을 온라인 교육을 개설(매월 13강좌의 정규 과정 개설)하여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는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교육도 강화하였다. 전국의 국어 교육 희망 수요에 부응하여 각 지역 국어문화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인재개발원, 지방교육연수원 등의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립국어원과 지방 협력 기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3)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문화연대 등의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공공언어를 개선했다.

#### (1) 쉬운 말 운동 국민 홍보

쉬운 말 운동 누리집(www.swiunmal.org)을 개설하여 네이버 및 페이스북 등과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2012년 5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90개의 어려운 말이 쉬운 말 운동 누리집에 신고되었다.

한글날에 즈음하여 우리말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12년 9월 한 달 동안 한국방송(KBS) 라디오 2에프엠(2FM) 공익광고를 집행하여 쉬운 공공언어 사용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 (2) 쉬운 공공언어 사용 권고 활성화

한글문화연대(상임대표 이견범)는 대학생 ‘우리말 가꿈이’ 모임과 함께 2012년 서울시가 사용했던 ‘쿨비즈’, ‘스크린도어’ 등의 외국어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원차림’과 ‘(승강장) 안전문’으로 바꿈으로써 공공언어에서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막았다. 또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항소 절차” 안내서 세 종류(형사, 민사, 행정)의 문장을 다듬어 제공함으로써 법원 민원인들이 항소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해당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을 주었다.(각각 1만 부 발행)

#### (3) 정부기관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 인식 확산

한글문화연대는 2012년 정부 14개 부처(국토해양부 제외)가 2012년 3월부터 5월 까지 발행한 보도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 및 외국어 남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백서(800쪽 분량)로 발간하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백서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14개 부처에서 직원 교육 강화, 국어책임관 활동 강화 등의 개선 방안 답변을 얻었다.

한글문화연대는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업무 수첩에 영어와 한자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 후 경상북도,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등 스무 곳에서 반영하겠다는 답변

공문을 받았고, 경상남도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해 2013년 업무 수첩을 제작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4) 청소년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국어 의식 개선

40개 대학 130명의 대학생을 '우리말 가꿈이'로, 3기에 걸쳐 고등학생 102명을 '쉬운 말 사랑패'로 조직하여 교육과 활동 참여를 진행하였다. '우리말 가꿈이'는 서울시 지하철에서 방송되는 '스크린 도어'라는 용어를 시민 대다수의 이해를 위해 '안전문'으로 고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또 '쉬운 말 사랑패'는 서울시에 '쿨 비즈'라는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제안을 수용하여 '시원차림'으로 고쳤다.

4) 온 국민이 참여하는 개선안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전략은 많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말 다듬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국어 순화 과정에 직접 참여한 국민들의 수를 조사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면 그 취지와 의미를 알 수 있다.

〈표 2-9〉 누리꾼들의 순화 대상어 제안 및 투표 현황('04년~'11년)

날짜	누리꾼 제안		누리꾼 투표		제안된 순화 대상어	
	건수	평균	참여자	평균		
2004년	7월 3주	104	224	574	517	웰빙(well-being)
	7월 4주	343		459		스크린 도어(screen door)
2005년	4월 1주	432	462	578	760	헝그리 정신(hungry 精神)
	4월 2주	354		731		투잡(two job)
	4월 3주	507		563		브랜드 파워(brand power)
	4월 4주	553		1,166		엑스파일(X file)
2006년	4월 1주	548	497	1,168	1,246	타임 서비스(time service)
	4월 2주	450		1,133		오픈 하우스(open house)
	4월 3주	524		1,270		백댄서(back dancer)
	4월 4주	467		1,411		치어리더(cheerleader)
2007년	4월 1주	438	456	1,695	1,796	레퍼런스(reference)

날짜	누리꾼 제안		누리꾼 투표		제안된 순화 대상어	
	건수	평균	참여자	평균		
2008년	4월 2주	417	409	1,792	1,813	하드보일드(hard-boiled)
	4월 3주	548		1,728		러브 라인(love line)
	4월 4주	420		1,967		로드킬(roadkill)
	4월 1주	417		1,696		에코맘(EcoMom)
2009년	4월 2주	418	439	1,735	1,721	제로베이스(zero base)
	4월 3주	427		1,895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4월 4주	372		1,925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4월 1주	446		1,686		넷북(net-book)
2010년	4월 2주	358	583	1,777	1,781	프티 성형(프티 petit 成形)
	4월 3주	451		1,680		헤비업로드(heavy uploader)
	4월 4주	502		1,740		킬힐(kill heel)
	4월 2주	577		1,968		스마트폰(smart phone)
2011년	4월 4주	588	383	1,593	1,574	숍인숍(shop in shop)
	4월 2주	370		1,610		치킨게임(chicken game)
	4월 4주	395		1,537		러브샷(love shot)
합계		11,426	439	37,077	1,426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터(<http://malteo.korean.go.kr>)에서는 2011년 11월까지의 누리꾼들이 순화어를 제안하고 국립국어원이 그 가운데 네댓 개를 추려서 올리면 다시 누리꾼들이 투표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말을 순화어로 뽑았다.<sup>4)</sup>

2004년 이후 순화대상어당 누리꾼이 제안한 순화어는 평균 400여 건이며, 순화어 선정을 위해서 투표에 참여한 누리꾼의 수는 평균 1,426명이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수는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4) 2004년 7월부터 누리꾼 참여 방식의 말다듬기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2004년은 7월치 통계로 추출하였다. 2005년부터는 매년 4월치 통계 추출하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는 누리꾼들이 투표하지 않고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순화어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2012년 4월치 누리꾼 제안과 누리꾼 투표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위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까지 시행된 국민 결정 방식의 경우 국민 스스로 순화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다수결 투표 방식의 한계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두루 인정받지 못하는 단어가 순화어로 선정되는 문제점도 있었다(예: 헤드셋→통신머리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1월 문인, 언론인, 국어학자, 번역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말다듬기위원회가 출범하여 그해 12월부터는 국민들이 제안한 순화어를 말다듬기 위원들이 심의해서 순화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순화 대상어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순화어를 선정하여야 하며, 끝으로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런데 성공적인 국어 순화 또는 바람직한 언어문화 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운동' 등의 국민 참여 운동으로 공공 언어의 순화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화 대상어의 원천, 즉 순화 대상어를 언론을 통해 처음 세상에 퍼지게 했거나 평상시 자주 쓰는 등 해당 용어와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 5)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감수 및 개선 권고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publang/>)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언어 감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신청 기관의 자료를 소통성(쉬운 용어나 표현 사용), 정확성(문법·어문 규범 준수 등) 등의 면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였는데, 2011년 180여 건, 2012년 430여 건의 용어 및 문장 감수를 수행하였다.

## 2. 국내외 국어 교육

### 가. 국내 국어 교육

국어 교육은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이다. 곧 국어 교육은 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국어 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양과정에서의 국어 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국문학 전공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국어 교육은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이다.

한편 2012년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 설정하고, 선택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잡고 있다. 공통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 '국어'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다섯 가지 내용 체계(영역)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택교육과정(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I' 과 '국어 II'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다섯 가지 내용 체계(영역)로 구분하고 있다.

### 1)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국어 교육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의 비중은 국어 교과목의 수업 시수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 12. 13.)]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관련 수업 시수를 다른 외국어 강의 시수와 비교한 것이다.

〈표 2-10〉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과목	학년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총계 (단위: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어	448		408		408			442			255		1,961
영어		·	136		204			340			255		935
기타 외국어 및 한문		·					102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교과군에 204 시간이 배정됨. 4개 교과중 2개 교과 이상 개설해야 하므로 제2외국 어와 한문이 2분의 1이 개 설된다고 가정할 경우 102 시간으로 산출됨.)			136	(‘기술·가정/제2외국어/한 문/교양 교과군에 272시 간이 배정됨. 배정된 시간상 4개 교과 중 3개 교과 이상 개설해 야 할 여건인데, 제2외국 어와 한문이 2분의 1이 개 설된다고 가정할 경우 136 시간으로 산출됨.)	238
총계	448		544		612			884			646		3,134
언어 교과 중 국어 비율	100%		75%		67%			50%			39%		63%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680		1,972		2,176			3,366			3,468		
전체 과목 중 국어 비율	27%		21%		19%			13%			7%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시행 2012. 12. 13.) 기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초등 1·2학년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 순차 적용.
- 중학교 선택 과목: 한문, 생활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이상 선택해야 함.
  - 고등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의 6개 교과로 구성됨. 그 외 교과목의 선택 과목은 기술·가정, 한문 I·II, 중국어 I·II, 일본어 I·II, 베트남어 I·II, 아랍어 I·II, 독일어 I·II, 프랑스어 I·II, 스페인어 I·II, 러시아어 I·II,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경제 등임.
  - 고등학교에서 필수이수단위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고등학교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85시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17시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함. 단,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교양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즉,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경제 등의 경우 3단위(51시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음.

위의 표를 보면 국어과는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로 보면 언어 교과 중 국어 교과 비율은 63%로 가장 높다. 특히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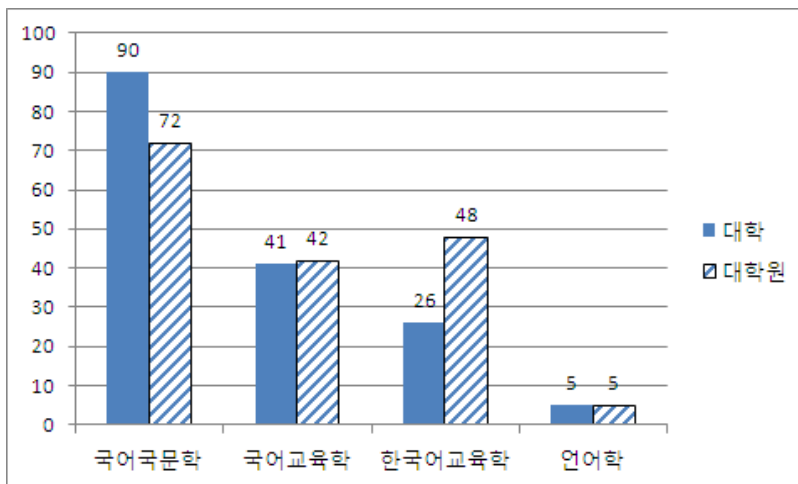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국어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1·2학년 때는 100%이고 3·4학년 때는 75%, 5·6학년 때는 67%에 이른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국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뜻한다. 반면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언어 교과 중 국어 비율은 낮아져 세계화 시대의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면서 국어 교육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함을 보여 준다.

전체 과목 중 국어의 비율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27%이고 단계적으로 낮아져 고등학교에서는 7%에 그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다양한 교과 교육 가운데서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국어 교육만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뜻한다.

## 2) 전국 대학·대학원의 국어 관련 학과·전공 수

전문 국어 교육은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복수 전공 제도의 확대로 전문 국어 교육을 받는 전공자 수가 더욱 늘었다. 관련 학과나 전공으로는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이 있다.



[그림 2-1] 전국 대학·대학원의 국어 관련 학과·전공 수('11년)

\* 출처: 『국어 연감 2012』(국립국어원, 2013. 2.)

대학에 개설된 국어 관련 학과는 국어국문학과가 90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국어교육(학)과 41개, 한국어(교육)과 26개, 언어학과 5개 등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문예창작학과', '언어정보학과' 또는 '언어인지과학과' 와 같이 실용 측면을 강조하거나 특별한 목적의식을 담은 학과 등의 출현으로 국어 관련 학과가 한층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학부)의 학과 명칭뿐 아니라 대학원의 학과·전공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학원의 전공을 살펴보면, 국어국문학이 가장 많은 72개이고 그 다음이 한국어교육학으로 48개이고, 국어교육학이 42개, 언어학이 5개이다. 학과나 전공을 개설한 학교 수로 볼 때 '한국어교육학'은 학부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대학원에서는 두 번째이다. '대학원의 한국어교육학 전공 개설 수'는 '학부의 한국어교육학과 개설 수'의 두 배가량이 된다. 이에 비해 대학원의 국어교육학 전공 개설 수는 42개로 학부보다 1개 많은 데 그치고, 대학원의 언어학 전공 개설 수는 5개로 학부와 같다.

한편,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언어학과, 한국어(교육)과, 문예창작과 등으로 관련 학과의 외연을 최대한 넓혀 2012년도의 학과 개설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관련 학과들을 개설한 대학은 총 189개이고, 대학원은 총 239개이다.(<표 2-11> 합계 난 참조)

<표 2-11> 국어·언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및 학과별 전임교원 수('12년)

구분	학과명	개설 대학 수	교원 수	전임교원 수 평균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1	7	7
	초등국어교육과(심화과정)	5	37	7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1	8	8
사이버대학	다문화한국어학과	1	1	1
	문예창작학과	1	2	2
	한국어문화학과	2	4	2
	한국어학부	1	2	2
	한국언어문화학과	1	2	2
산업대학	한국어학과	1	3	3
원격대학	논술지도학과	1	1	1
대학원	국어교육과	36	204	6
	국어국문학과	67	514	8
	국어국문학부	1	10	10
	국어국문학전공	8	55	7
	국제어문학부	2	10	5

구분	학과명	개설 대학 수	교원 수	전임교원 수 평균	
학부	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7	2
		국제한국어교육과	1	3	3
		국제한국어교육학과	1	3	3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	1	2	2
		문예창작과	2	9	5
		문예창작전공	2	7	4
		문예창작학과	17	68	4
		문예창작학전공	1	6	6
		미디어콘텐츠학과	2	9	5
		스토리텔링학과	1	4	4
		언어인지과학과	1	5	5
		언어정보학과	1	4	4
		언어학과	3	19	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1	6	6
		한국어,다문화교육학부	1	2	2
		한국어교원과	1	4	4
		한국어교원학과	1	3	3
		한국어교육과	1	6	6
		한국어문학과	5	23	5
		한국어문학부	5	41	8
		한국어문학전공	1	9	9
		한국어전공	1	3	3
		한국어학과	4	14	4
		한국어학전공	1	3	3
		한국언어문학과	1	6	6
		한국언어문화학과	1	2	2
합계		189개	1,128명	4.5명	

구분	학과명(전공명)	개설 대학원 수
대학원	국어교육과	2
	국어교육학과	13
	국어교육전공	71
	국어국문학과	78
	국어학/국문학전공	1
	국어학 · 국문학전공	1
	국제문화학과한국문화학전공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1
	동화미디어창작학과(학과간)	1
	동화미디어창작학과	1
	문예창작학과	23
	문예창작학과(예체능)	1
	문예창작학과(인문사회)	1

구분	학과명(전공명)	개설 대학원 수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2
	미디어문예창작	1
	스토리텔링학과	1
	어문학전공	1
	언어인지과학과	1
	언어정보학협동과정	1
	언어학과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1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	2
	창작문학과	1
	<b>초등국어교육전공</b>	<b>13</b>
	한국문화학과	1
	한국문화학과(학과간협동과정)	1
	한국문화학전공	1
	한국어교원학과	2
	한국어문학과	5
	한국어지도학과	1
	한국어학과	4
한국언어문화학과	1	
<b>합계</b>	<b>239개</b>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cesi.kedi.re.kr/>), 2012년 12월 현재 통계<sup>5)</sup>

학부에서 가장 많이 개설된 국어 관련 학과 이름은 ‘국어국문학과’로 총 77개 대학의 학부 과정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부 또는 국어국문학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어교육과 42개, 한국어(교육)과 35개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의 경우 국어국문학과 및 전공은 80개, 국어교육학과 및 전공은 99개, 한국어(교육)과 및 전공은 19개로 조사되었다.

위의 학과 개설 현황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설 대학 수 측면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여전히 전통적인 학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전임 교원의 수에서도 여타 학과들을 앞서고 있다. 둘째, 유사한 학과 명칭이 많으며, 동일한 명칭의 학과라 하더라도 소속된 단과 대학 명칭이 다른 사례가 많다. 셋째, 국어 교육 관련 대학원 과정이 수적으로 매우 많다. 일반대학원의 국어교육학과 설치 대학이 15개(국어교육과 2, 국어교육학과 13), 교육대학원의 국어교육 전공이

5) 대학원의 전임교원 수와 그 평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학부의 전임교원이 대학원의 전임교원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원 단독으로 전임교원 통계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71개, 초등국어교육 전공이 13개이다.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합해서 대학원의 국어교육 관련 학과나 전공은 합계 99개로서 일반대학원의 국어국문학 전공 80개보다 19개가 더 많다. 이는 학부에 국어국문학과가 개설된 대학 합계(77개: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1, (일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7, 국어국문학부 1, 국어국문학 전공 8)보다 22개 더 많은 수준인데, 이는 ‘학부에 국어교육학과가 없는 대학’, 나아가 ‘사범대학이 없지만 교육대학원에서는 국어교육학과를 마련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사 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부나 대학원의 학과 이름에 영향을 끼쳐 ‘한국어교원(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한국어지도학과’라는 학과 이름까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나 전공으로는 학부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다문화한국어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다문화교육학부,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전공, 한국어학과, 한국어학부, 한국어학전공, 한국언어문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고, 대학원에도 ‘국제문화학과한국문화학전공,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한국문화학과, 한국문화학전공, 한국어문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다.

### 3) 국어 교사 임용 시험 응시 현황과 국어 교사 현황

국어 교육의 실질적 주체는 국어 교사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어 교사를 뽑는 과정인 임용 시험 응시 현황과 국어 교사 현황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국어 교사 임용 시험 응시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에 따라 중등 교사 임용 1, 2차 시험에 대한 출제, 인쇄 및 채점을 수행한다.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험의 시행을 공고하고 원서를 교부·접수하며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3차 시험 등을 관리하고 합격자 발표를 담당한다. 각 연도의 시험은 시험 시행 연도가 아닌 응시자들이 선발될 연도의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선발될 교사들을 뽑는 ‘2013학년도 임용시험’

은 2012년에 접수 및 응시가 이루어진다.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2년에 밝힌 2013학년도 국어과 공립중등교사 임용 시험의 모집 인원(최종 선발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표 2-12〉 '13학년도 17개 시도 국어과 공립중등교사 임용 시험 응시 현황

(단위: 명)

지역		모집 인원(A)		지원 인원(B)		경쟁률(B/A)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특별시	서울	23	2	833	4	36.2	2.0
광역시 (6)	부산	13	2	440	5	33.8	2.5
	대구	22	2	507	4	23.0	2.0
	인천	17	2	324	-	19.1	-
	광주	14	1	312	1	22.3	1.0
	대전	23	2	525	3	22.8	1.5
	울산	-	-	-	-	-	-
도 (9)	경기	126	8	2,695	25	21.4	3.1
	강원	42	3	767	4	18.3	1.3
	충북	9	1	194	1	21.6	1.0
	충남	26	2	487	3	18.7	1.5
	경북	6	1	137	-	22.8	-
	경남	31	2	630	7	20.3	3.5
	전북	38	2	769	4	20.2	2.0
	전남	33	2	838	2	25.4	1.0
	제주	8	-	154	-	19.3	-
자치시	세종	6	1	137	1	22.8	1.0
계		437	33	9,749	64	23.0	1.8

\* 출처: 교육부 교원정책과(2013)

전체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일반 전형 23 : 1, 장애인 전형 1.8 : 1이다. 중등의 임용시험 경쟁률은 어느 교과 할 것 없이 높지만 국어과의 경우에 특히 임용 경쟁률이 매년 치열한 편이다.

2012년에 일반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지역은 126명을 선발한 경기도이다. 이어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충남, 서울,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충북, 제주, 경북, 세종의 순이고, 울산은 선발 인원이 없었다.

## (2) 국어 교사 현황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총수는 163,215명(교장, 교감 제외)이다. 중학교 교사 총수는 93,708명(교장, 교감 제외)이며 이 중에서 국어 교사는 13,740명(14.7%)이고, 고등학교 교사 총수는 132,530명이며 이 중에서 국어 교사는 16,703명(12.6%)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일반 고등학교 12,792명, 특수목적 고등학교 572명, 특성화 고등학교 1,848명, 자율 고등학교 1,491명이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cesi.kedi.re.kr/>), 2012년 12월 현재 통계]

이렇게 볼 때 초등학교는 통합 교과이므로 163,215명이 국어 교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13,740명, 고등학교 132,530명, 합계 309,485명이 공교육에서의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 담당 교사 수로는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의 순서이고, 전체 교사 중 국어 담당 교사의 비율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서이다.

## 4) 평생교육 기관의 문해 교육 현황

최근 성인 기초 교육과 문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 기초 교육과 문해 교육에 대한 제도적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평생교육 기관에서 문해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과 국내 문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13〉 문해 교육 기관 수와 기관별 프로그램 수('12년)

성인 문해 교육 기관 수	성인 문해 교육 기관별 프로그램 수(총 458개)						
	평생 학습관	시민 사회단체부설	사업장 부설	지식 인력개발 형태	학교 부설 (대학(원): 4 유초중등: 2)	언론기관 부설	원격 형태
189	338 (73.9%)	76 (16.6%)	24 (5.2%)	11 (2.4%)	6 (1.3%)	2 (0.4%)	1 (0.2%)

\* 출처: 『2011·2012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2012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수는 전체 189개였으며, 성인 문해 기관별 프로그램 총수는 458개였다. 그 가운데 평생학습관의 문해 프로그램 수가 338개(73.9%)였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문해 프로그램 수가 76개(16.6%)로

서 두 기관의 문해 프로그램 수를 합하면 414개(90.4%)였다. 이는 성인들이 접근의성이 높은 곳 위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표 2-14〉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11년~'12년)

구분	문해 1단계 (초등1·2학년)	문해 2단계 (초등3·4학년)	문해 3단계 (초등5·6학년)	중학교 수준	기타	합계
2011	607	317	165	79	1	1,169
	(48.1%)	(25.1%)	(13.1%)	(6.3%)	(0.1%)	(100%)
2012	420	210	123	77	2	832
	(50.5%)	(25.2%)	(14.8%)	(9.3%)	(0.2%)	(100%)

한편,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은 교육 수준별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문해 3단계, 중학교 수준 등으로 구분한다. 2011년 사업에 총 1,169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그중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이 607개(48.1%)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2012년 사업에는 총 832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그중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이 420개(50.5%)로 역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문해 1단계 교육이 전체 문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량(2011년 48.1%, 2012년 50.5%)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여전히 높음을 의미한다.

문해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국민 기초 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6장의 문자 해득 교육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초등학교·중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1년, 2012년은 이러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된 지 5~6년 차가 된 해로, 지난 1~4년차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문해 교육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선발하여 지역 거점 기관 육성비가 지원되었다. 이러한 직접 지원과 더불어 성인 학습자의 문해 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문해 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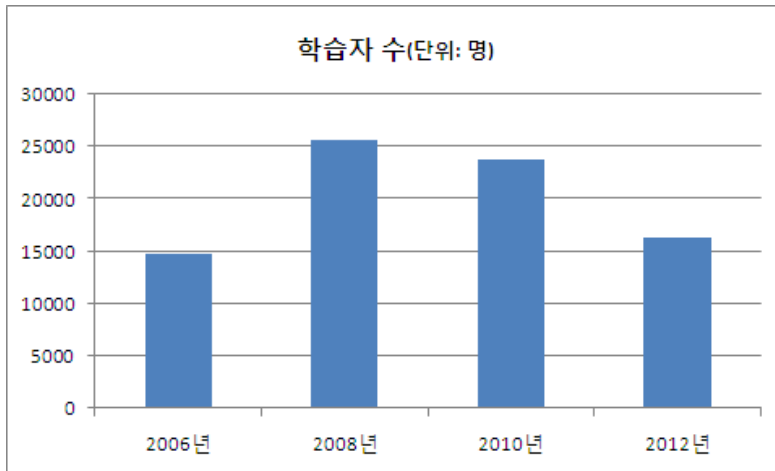
중학 과정 교과서 개발 등의 간접 지원도 추진하였다.

2012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1·2012 평생교육백서』).

〈표 2-15〉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역별 기관 수('12년)

지역	지원 기관 수	
	기관 수 (개)	학습자 수 (명)
서울	36	3,371
부산	20	1,316
대구	8	721
인천	6	286
광주	9	569
대전	8	388
울산	3	216
강원	8	472
경기	24	1,999
충북	7	407
충남	11	1,845
경북	6	328
경남	9	902
전북	18	1,684
전남	13	1,546
제주	3	284
<b>계</b>	<b>189</b>	<b>16,334</b>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지역별 기관 수와 학습자 수는 서울(36개 3,371명)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경기(24개 1,999명), 충남(11개 1,845명), 전북(18개 1,684명), 전남(13개 1,546명), 부산(20개 1,316명)이다(※ 이상은 학습자 수 1,000명 이상 기관 중 학습자 수가 많은 순서로 열거함).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수 현황('06년~'12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6년에는 14,668명으로 학습자 수가 가장 적었지만, 2008년에는 25,579명으로 학습자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0년에는 23,778명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16,334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성인 문해 교육의 결과로 문해 학습 대상 연령대(60대~80대)에서 문해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 문해 학습 대상자가 감소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성인 문해 교육의 개념도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 문해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문해 교육으로까지 발전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해 교육의 신수요자층인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향후 국민의 문해 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해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국외 국어 교육

### 1) 해외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외 국어 교육은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한민족의 해외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외 동포 수가 726만(2011년 기준, 외교부)에 이르며, 주요 활동 세대가 3~4세가 되면서 거주국에 급속히 동화되는 추세이다. 재외

동포의 민족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재외 동포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한국어와 더불어 현 거주 국가의 언어도 잘 해야 하는 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재외 동포에 대한 더욱 세심한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 재외 동포 사회의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 구축·보급을 하였고, 맞춤형 재외 동포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2012년에는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가 이루어졌다. 재중 동포의 전통 집거지 3곳(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과 신흥 집거지(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어 변종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중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이 한국어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므로, 재중 동포 사회의 한국어 변종을 조사하고 국가별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한국어 사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2) 해외 한글학교

재외 국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글학교’가 있다. 한글학교는 재외 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 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한글학교의 교육생은 주로 동포 2~3세나 지·상사 직원의 자녀로 구성되며 일부 외국인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2012년 현재 118개국 1,925개소의 한글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 15,481명의 교원에 학생 수는 106,989명에 이른다.

2009년의 110개국 2,111개소의 한글학교 수, 14,870명의 교원, 128,046명의 학생 수 등에 비교해 볼 때, 2012년에는 한글학교의 분포 국가 수와 교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한글학교 수와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3년 동안 분포 국가 수 7.3% 증가, 교원 수 4.1% 증가, 한글학교 수 8.8% 감소, 학생 수 16.4% 감소).

〈표 2-16〉 전 세계 한글학교 지역별 현황('12년)

지역별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아시아(25개국)	349	2,791	25,846
북미(2개국)	1,094	10,286	58,757
중남미(20개국)	88	704	5,326
유럽(26개국), 독립국가연합(10개국)	348	1,363	15,473
아프리카(25개국), 중동(10개국)	46	337	1,587
<b>계(총 118개국)</b>	<b>1,925</b>	<b>15,481</b>	<b>106,989</b>

\* 출처: 『2012 재외 동포 교육기관 현황』(재외동포재단, '12. 10.) 1쪽.

지역별로는 북미가 1,094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아시아,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순이다. 운영 주체는 종교 단체가 67%로 가장 많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23%에 이른다. 그 밖에 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은 10%이다. 시설로 자체 건물을 확보한 곳은 58%이며, 임대가 34%이고, 확인되지 않은 곳이 8%이다. 1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전체 한글학교의 24%에 이르며, 5~9명 사이가 33%이고, 5명 이하가 가장 많은 43%이다. 수강생 규모는 50명 이하가 64%로 가장 높고, 50~90명 사이가 20%, 100명 이상의 규모는 16%이다.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이 있으며,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2~6시간 내외이다. 한글학교 지원 업무는 199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했으나 1998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산 지원은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며, 교재 보급 및 교원 연수는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하고 있다.

### 3. 국내 한국어 교육

#### 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는 1)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2)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3)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4) 국내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5) 자원봉사 단체, 6) 정부 산하의 한국어 교육 기관, 7) 기업체 내의 한국어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학이다. 현재 대학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7〉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12년)

교육 기관	대학원	교육 대학원	학부	대학교 한국어교육 기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단기)	합계
기관 수(개)	28	20	26	69	153	296

\* 출처: 『국어연감 2012』(국립국어원, 2013. 2.)

학부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학과를 개설하거나 국어국문학과가 학과명을 ‘한국어학과’ 등으로 바꾸고 『국어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26개 학부는 지역별로는 강원(2), 경기(1), 경북(3), 광주(4), 대구(2), 대전(1), 부산(2), 서울(4), 전남(2), 전북(2), 충남(2), 충북(1)의 분포를 보인다. 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개설된 경우와 대학원의 국어국문학과나 교육대학원의 전공 가운데 하나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두는 경우가 있다.

대학의 정규 과정인 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수법 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인 데 비해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경우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것 외에도 실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한다.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학부 및 대학원 등 학위과정 74개 기관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 69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단기) 153개 기관 등 296개 기관에 이른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다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현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 제8항에 근거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진흥과)이며, 2006년~2008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험을 주관했으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필기시험은 4개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총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교사로서의 태도 및 소양,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표 2-1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학(60문항, 90점)</li> <li>-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20문항, 30점)</li> <l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93문항, 150점)</li> <li>- 한국문화(20문항, 30점)</li> </ul> </li> <li>○ 1차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li> <li>-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li> <li>- 인격 및 소양</li> <li>- 한국어 능력 평가</li> </ul> </li> </ul>

2006년 첫 시험이 실시된 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6년 첫 시험의 응시자가 1,022명이었던 데 비해 2010년에는 2,564명, 2011년에는 2,825명(전년 대비 10.2% 증가), 2012년에는 2,945명(전년 대비 4.2% 증가)으로 매년 늘어났다. 한국어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이전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누적되는 것이 응시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표 2-1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

(2013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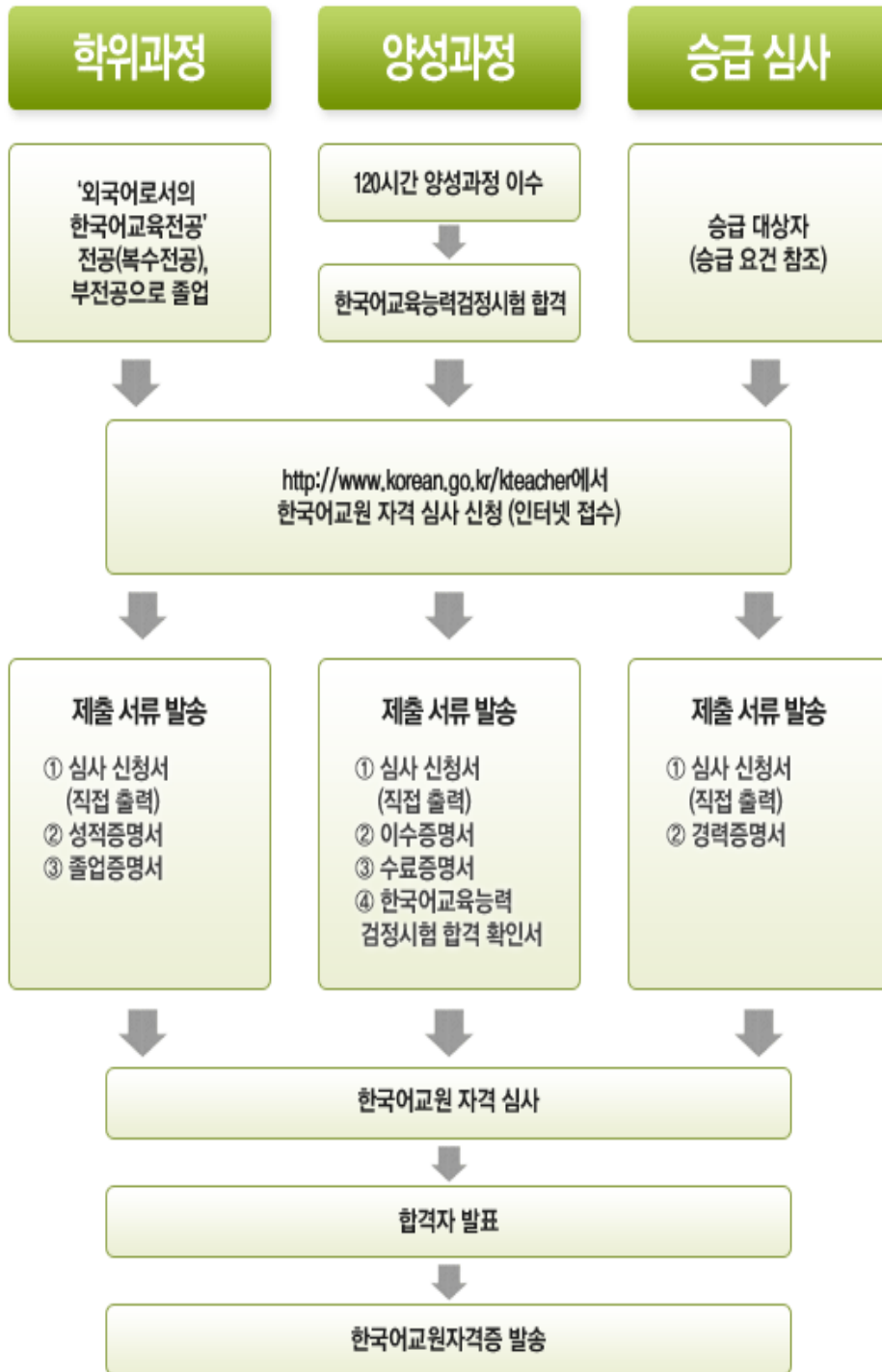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6(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2011(6회)	2,825	673	23.8%	684	594	86.8%	21.0%
2012(7회)	2,945	1,020	34.6%	1,067	844	79.1%	28.7%
계	15,042	4,769	32.3%	4,794	4,032	87.5%	26.8%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2%이며,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88%로 총 합격률((면접 시험 합격자÷필기시험 응시자)×100)은 26.8%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자 가운데에는 학부의 국어국문학과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국어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전공자가 적지 않으므로 비전공자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셈이다.

##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과했거나, 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3]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표 2-20〉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2년 12월)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누계	비고
자격 취득자 (단위: 명)	869	639	842	1,037	2,157	1,809	2,337	9,690	1급: 136명 2급: 4,731명 3급: 4,822명
대학 및 대학원 전공학과 (단위: 개소)	40	-	69	-	81	95	123	123	학부: 23개 대학원: 80개 사이버대학(원): 8개 학점은행제: 12개
단기양성기관 (단위: 개소)	34	-	54	-	113	130	153	153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2006년 869명에서 시작하여, 2009년 1,037명, 2010년 2,157명, 2011년 1,809명, 2012년 2,337명으로 누계가 9,690명에 이른다.

2009년에는 1,000명, 2010년에는 2,000명을 넘었고, 2011년에 1,800명대로 떨어졌다가 2012년 다시 2,300여 명에 이르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가 생겼는데, 이는 최근 불어온 한국어교육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2013년 8월 말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누계는 10,793명이다<sup>6)</sup>.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1만 명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한국어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시행에 힘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제결혼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어교원들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6)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및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말에 비해 소폭의 변동이 있다. 자격 취득자 누계는 9,690명에서 10,793명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전공학과 누계는 123개소에서 133개소로 증가하였다(학부: 23개→26개, 대학원: 80개→85개, 사이버대학(원): 8개로 동일, 학점은행제: 12개→14개). 한편, 한국어교원양성과정(단기양성과정) 누계는 153개소에서 141개소로 감소하였다.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4. 국어 관련 민간단체

국어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활동 내용을 갖는 민간 차원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국어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국어 정책을 민간을 통해 수행한다든지, 또는 국어 정책에 관한 민간단체의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회, 연구소, 단체 등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어 관련 단체는 학술대회 개최나 학회지 발간 등 연구 목적의 학회가 71개, 국어 상담·국어문화운동·한글문화운동·한글 글꼴 개발·한글 이름 등 국어 관련 활동 중심의 단체가 23개, 사전 편찬이나 특정 주제를 심화 연구하는 연구소가 14개, 재단법인인 세종학당재단(구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를 비롯하여, 사단법인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국언어학회 등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국어 관련 단체 7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2-21〉 국어 관련 단체 통계('12년 12월)

형 태	단체 수
학 회	71개
단 체	23개
연구소	14개
법인(재단, 사단)	7개
합 계	115개

### 가. 국어 관련 단체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22〉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12년 12월)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1	국어단체연합	2006년 국어상담소를 인가받기 위하여 국어단체 몇몇 대표자가 모여 만든 임시 단체	‘국어단체 국어문화원’이 있음.	단체
2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 진흥과 국어 환경 개선, 국어 문화 발전,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노력	한국어 보급을 위한 대회 한국어 상담, 문장 교정 한국어 순화 사업 한글 정보화, 산업화 관련 사업 지역어 발굴과 사업 등	단체
3	국어순화추진회	한글 전용으로 글자 생활의 민주화와 민족 문화 향상	국어순화자료집 우리말 순화의 어제와 오늘 한글과 겨레 문화('06)	단체
4	세종대왕생가터 복원준비위원회	최근 조직된 단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을 목적으로 함.	한글단체 대표들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건의문 전달	단체
5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 목적	‘우리말 바로 쓰기’ 강연회 개최	단체
6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말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매년 우리말 해침권을 선정하여 발표	단체
7	전국국어교사모임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한 전국 현직 국어교사들의 연구 실천 연합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 발간 〈어린이와 함께 여는 국어교육〉 연 4회 발간	법인
8	전국국어운동 대학생동문회	전국 대학생 중심 국어운동 목적	강연회 개최 및 회지 발간 국어 정화 및 우리말 애호 운동	단체
9	짚신문학회	우리 문학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됨	문학 활동을 주로 하는 모임	단체
10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우리 문화 보존 목적	강연회 개최 및 출간	단체
11	한겨레말글연구소	우리 민족 말글 연구 목적	학술 발표회 개최(연 1,2회)	단체
12	한국방송(KBS) 한국어연구소	방송 언어에서 축적한 음성 언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른 표준 한국어 사용을 위한 연구와 표준어 보급	한국어 연구 논문집 발간	단체
13	한국어문기자협회	신문과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연구를 통해 언어문화와 신문·방송 발전에 기여	〈말과글〉 발행 신문·방송·어문교열기자·아나운서 대상 세미나	단체
14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 문화 운동 목적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단체
15	한글문화연구회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나라말을 살려내고 이를 다듬고 가꾸어 한글 문화 중흥에 기여	국어사전 작업을 주로 하는 단체	단체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16	한글문화연대	우리 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단체	학술 운동 한글문화, 시민운동 전개 관련 단체와의 대외 협력 추진	단체
17	한글문화원	한글 기계화 운동	한글 자판 연구와 세벌식 자판 보급	단체
18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 글꼴이나 한글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신생 단체	한글 문화 상품 개발 한글 문화 상품 공모전 개최 한글 사랑 서각전 개최	단체
19	한류전략연구소	한류 전략 모색	한글 관련 디자인 사업	단체
20	한말글문화협회	한글 전용 및 기계화를 위한 한글 학회 내의 운동 모임	'한글새소식' 창간, 한글큰잔치 준비 성명서 제출	단체
2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겨레의 말과 글의 통일과 모국어 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겨레말큰사전》 편찬 소식지 〈겨레말 소식〉 발간 웹진 '누리판' 발간	법인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이를 보존·선양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체	세종실록 국역, 고전 국역 세종대왕 관련 서적 발간 한글 기계화 세종대왕기념관 관리·운영	법인
23	외솔회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단체	〈나라사랑〉 발행 매년 외솔상 시상	재단
24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국제화된 세계 시민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경희인의 국제화와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 외국어, 한국학에 대한 질 높은 연구와 교육 수행	〈국제교육소식〉 발간 한국어 교육	연구소
25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한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자기 주체성을 확고히 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	〈민족 문화연구〉, 〈민연소식〉 발간, 한국학 연구 성과 출판 정기 학술대회	연구소
26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한국어 및 각종 외국어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 및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추진	〈언어정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2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 연구소	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문교육〉 발간	연구소
28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국어 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위한 기초적, 실질적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국어 교과서 및 한국어 교재 개발, 국어 능력 측정 방안 연구, 전국 중·고등학생 국어경시대회 개최, 국어질문방 운영	연구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29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의해 각 지역에 설립된 국어 단체 (전국 18개소)	국어상담, 한국어 교육, 국어 교 육, 국어 관련 행사,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지역어 조사 사업 등	연구소
30	민족 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실제 국어 생활에 필요한 명사적이고 유용 한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사전 제작	국어사전편찬	연구소
31	어문학연구소 (국민대)	어문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 각종 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함.	〈어문학논총〉 발간	연구소
32	언어문화연구원	언어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함.	언어문화 연구지 발간	연구소
33	언어연구소 (한국외대)	개별 자연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 및 의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다양한 언어 간의 대조 연구를 수행	〈언어와 언어학〉 발간	연구소
34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국어학과 전산 기술의 접목, 사전 편찬학, 밀뭉치 언어학 등 새로운 첨단 학문 분야의 개척과 국어정보화 사업에 주력 *1986년 ‘한국어사전편찬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사전편찬 데이터베이스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세 한국어 대사전” 편찬	연구소
35	한국어문학연구소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교 육과 연구의 바른 방향을 모색함.	〈어문논총〉 발행 전국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36	구결학회	차자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서를 중점 적으로 연구	〈구결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매월 월례강독회 개최	학회
37	국어교과교육학회	국어 교육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구체적 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여, 올바른 국어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어교육의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학술대회 개최 〈국어교과교육연구〉 발간	학회
38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 육의 발전을 도모함.	〈국어교육학연구〉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39	국어교육학회 (경북대)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 관한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의 이론과 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함께 추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0	국어교육학회 (수원대)	국어 교육을 성찰하고 더욱더 비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 를 두고 학술 대회와 논문집을 통해 연구 결과물 생산	〈국어교육학연구〉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1	국어국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정 신을 고양하여 세계문화에 기여	〈국어국문학〉 발간(연 3회)	학회
42	국어정보학회/ 한국어정보학회	국어 정보 처리의 이론 체계 정립과 기술 향상을 통한 정보 산업 성장 지원,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표준화	〈한국어정보학〉 발간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43	국어학회	순수한 국어학의 연구와 보급 및 연구자 간 친목 도모	〈國語學〉발간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44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코리아학 연구 발전 및 연구자의 교류와 친목 도모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5	국제어문학회	국어학, 국문학, 국어 교육학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국제어문 발간 정기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IAKLE)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내 한국어교육 최대 학회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학술대 회, 연수회 개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학회
47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INK)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국내외 학자와 교육자 가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립과 한국어 의 세계적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발간	학회
48	국제한국어학회	북미한국어학회 조직을 위한 특별준비 위원회 학회 결성 발표, 아시아연구회와 연합 학술 교류 증진	정기 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49	담화인지언어학회	담화문법, 인지언어학, 화용론을 연구하 여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구 윤리규정의 제정 확보	학회
50	대한언어학회	어학, 국문학, 국어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 활용을 통하여 언어학 발전에 공헌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산하 연구학회 운영	학회
51	돈암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하고, 그 학풍을 계승, 발전시킴.	학술대회 개최 〈돈암어문학〉 발간	학회
52	배달말교육학회	외국어 교육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 에서 출발하여 국어 교육 개선에 이바지	〈배달말교육〉 발간	학회
53	배달말학회	배달말·글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 을 통하여 배달 가계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이 목적	〈배달말〉 발간 국내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54	어문연구학회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한문학을 연구함 으로써 향토 문화의 고유성을 중점 계발하 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	〈어문연구〉 발간 학술 대회 개최	학회
55	영주어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 하며, 연구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론 을 정립함으로써 국어국문학 연구의 새로 운 방향을 제시	〈영주어문〉 간행 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학회
56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나라 안에서의 국어교육과 나라 밖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 문제를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57	우리말글교육학회	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국어교 육에 대한 학술정보 교환	〈우리말글교육학회〉 발간 세미나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58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과 우리글(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문화 창달에 이바지	〈우리말글〉 발간 전국학술발표대회 개최 매월 월례발표회 개최 우리말글 학술상 수여	학회
59	우리말학회	국어학 및 관련 학문을 연구하며 좁게는 언어학 넓게는 타 학문과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함.	〈우리말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0	우리어문학회	우리의 언어와 문학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우리어문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1	이중언어학회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응용 사업 추진을 위해 1980년대 설립된 최초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학술대회 개최 외국어교육학의 연구와 교류	학회
62	이화어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를 통해 회원 간의 학문적 협양과 학계의 연구 풍토 조성에 이바지함.	〈이화어문논집〉 발간 정기 논문 발표회	학회
63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올바른 국어생활 실천	〈새국어교육〉 발간 교과서, 학습 지도 방법 연구 및 국어교육자료 제공	학회
64	한국문법교육학회	국어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문법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이를 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	〈문법교육〉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65	한국문학언어학회	국어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언어와 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	〈어문론총〉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6	한국방언학회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	〈방언학〉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
67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상황을 연구하는 목적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68	한국알타이학회	한국과 주변 알타이 제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 민속 등 문화 전반에 대하여 연구	〈알타이학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69	한국어교육학회/ *구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국어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어교육 향상에 이바지	학술대회 개최(연 2회) 〈국어교육〉 학회지 발간	학회
70	한국어문교육학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고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한국 어문 교육 발전에 기여함.	〈어문학연구〉 발간 학술답사 전국학술대회	학회
71	한국어문학교육학회	국어국문학과 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에 힘써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한어문교육〉 발간 학술 발표회 개최	학회
72	한국어문학연구회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어문학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3	한국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및 세계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국 학술대회 개최 〈어문학〉 학회지 발간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74	한국어문화/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 학술연구와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한지능력검정시험 개최 장학사업 및 한자교육 사업	학회
75	한국어어미학회	국어 의문 연구에 뜻을 둔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	〈한국어어미학〉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76	한국어학회	한국어학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 학의 발전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함.	〈한국어학〉 발간 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77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어, 한국 문학을 연구하여 한국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학문 증진을 도모함.	〈한국언어문학〉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꾀함.	〈언어와 문화〉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9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일반 이론 연구와 개별 언어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언어학〉 발간(연 2회) 학회 소식(계간)	학회
80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이 목적	〈언어〉 발간(계간) 소식지 발행	학회
81	한국음성학회	음성학, 음운론, 음성 공학, 음성 의학, 언어 치료, 인지 과학 등 음성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응용에 관련된 사업의 수행	〈말소리와 음성과학〉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2	한국지명학회	지명을 조사, 정리, 연구하여 지명과 관련된 학술 발전에 기여함.	〈지명학〉 발행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의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진과 대학원생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국 초등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함.	〈한국초등국어교육〉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84	한국화법학회	화법학,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화법론 발전과 화법 교육의 향상에 기여	〈화법연구〉 발간	학회
85	한글학회	한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학술단체 (*1908년 국어연구학회가 모체임)	한글만 쓰기 운동 국어의 순화운동 한글의 기계화운동 조선어사전 편찬 추진 교육 및 학술지 발간	학회 /법인
86	한말연구학회	한글 전용 운동을 지지하고 추진함과 아울러 한말(한국어)과 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한말연구〉 발간 국어학 도서의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7	한민족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민족어문학〉 발간	학회
88	훈민정음학회	훈민정음을 비롯한 세계 문자를 연구하며 무문자 언어 사용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함.	〈SCRIPTA〉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무문자 언어 사용 자에게 훈민정음 보급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89	국어사학회	국어사에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국어사 자료의 강독과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 연구 제 분야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어사연구〉 연 2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2회 개최	학회
90	국제언어인문학회	언어를 통한 인문학연구를 표방하는 학회로 다양한 전공 분야에 공통의 수단인 ‘언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인문언어〉 연 2회 발간 (국제)언어인문학회 학술대회 개최	학회
91	동남어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와 이를 통한 학풍 수립을 목적으로 한 학회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등의 사업을 수행함.	〈동남어문논집〉 연 2회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
92	민족어문학회	한민족의 주체성을 살려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 문학과 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어문논집〉 연 2회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
93	반교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반교어문연구〉 연 2회 발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학회
94	(사)한국언어학회	한국 언어학계의 언어학 연구를 독려하고 우리나라 언어학 연구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언어학〉 연 3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법인
95	언어과학회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발달하고 변화하는 언어학 이론을 연구하고, 일반 언어 이론과 개별 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언어과학연구〉 연 4회 발간 전국학술발표대회 연 2회 개최	학회
96	인공지능연구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용량의 한국어 분석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 정보 처리 관련 연구 개발 활동	연구소
97	중앙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통해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어국문학 학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함.	〈어문논집〉 연 3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98	청람어문교육학회	국어교육학, 국어학, 현대 문학, 고전 문학, 한문 교육학의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과 확대를 목적으로 함.	〈청람어문교육학〉 연 2회 발간 관련 학술대회 개최	학회
99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의 수집과 자료 소개, 체계적 분류, 강독과 용어 풀이 등을 목적으로 함.	〈고문서연구〉 연 2회 발간 월례발표회 개최	학회
100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한글의 학문적 연구와 글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고품위의 글꼴 개발의 촉진과 건전한 유통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글꼴개발보급센터’로 지정 한글글꼴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연구소
101	한국사전학회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사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전학과 사전편찬학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사전학〉 연 2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102	한국어교육원 (서강대)	국내외 외국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연구 교육하는 기관	〈서강 한국어 영어 문법 단어 참고서〉 출판, 미국무부 파견 청소년 한국어 교육과정 수탁 운영	단체
1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의 학술 연구와 한자 교육을 통한 국어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어문연구〉 연 4회 발간 전국 학술대회 개최	학회
10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문학연구〉 연 2회 발간 정기 학술 대회 개최	학회
105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학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전문 기관	정규과정 졸업생 논문집 연 4회 발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KFL) 강의안 연 4회 발간	단체
106	한국언어문화학회	우리말글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려는 모임으로 한국어문학과 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언어와 문화〉 연 3회 발간 국제학술대회 및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107	한국작문학회	작문과 연관되는 현상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작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한국작문학 발전을 목적으로 함.	〈작문연구〉 연 3회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108	한국중원언어학회	언어학, 언어 교육, 번역 및 언어 관련 분야의 통섭에 관한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함.	〈언어학연구〉 연 3회 발간 전국 학술대회 개최	학회
10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독일의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용하여 한국어문학에 응용함으로써 한국의 텍스트 분석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텍스트언어학〉 연 2회 발간 집중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
110	한국현대언어학회	국어학,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일어학 등의 개별 언어학과 일반 언어학 연구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함.	〈언어 연구〉 연 4회 발간 학술대회 및 콜로키움 개최	학회
111	현대문법학회	현대 문법 및 언어학 이론의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언어학 및 문법 이론 연구를 목적으로 함.	〈현대문법연구〉 연 4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112	형태론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개별 언어의 형태론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형태론〉 연 2회 발간 집담회 개최	단체

#### 나.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결성

현재 국내에는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등 어문 관련 분야에 90여 개의 학회가 있다. 학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가 세분화, 전문화되었다는 뜻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의견이 분산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

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학회마다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사안이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계 공동의 견해를 발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0월에 43개의 학회가 뜻을 모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창립하였다. 국어 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이 될 연합회가, 창립을 기점으로 어문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10월까지 어학 14개, 어문 12개, (한)국어·문학 교육 16개, 문학 1개 등 총 43개 어문 관련 단체가 가입을 신청했다. 다음 표는 회원 학회를 명시한 내역이다.

〈표 2-23〉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회원 학회 명단〈설립일순 배열〉

연번	학회명	설립일	비고
1	한글학회	1908년 8월	어학
2	국어국문학회	1952년 11월	어문
3	한국어교육학회	1955년 2월	교육
4	한국언어학회	1956년 10월	어학
5	한국어문학회	1956년 11월	어문
6	국어학회	1959년 11월	어학
7	겨레어문학회	1960년	어문
8	한국언어문학회	1963년 2월	어문
9	한국국어교육학회	1963년 9월	교육
1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64년 3월	어문
11	국어문학회	1965년 3월	어문
12	국어교육학회	1969년 12월	교육
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69년 7월	교육
14	한국문학언어학회	1970년 1월	어문
15	배달말학회	1973년 3월	어문

연번	학회명	설립일	비고
16	우리어문학회	1975년 3월	어문
17	반교어문학회	1981년 12월	어문
18	이중언어학회	1981년 9월	교육
19	우리말글학회	1982년 3월	어문
2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83년 12월	교육
21	한국알타이학회	1985년 10월	어학
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85년 7월	교육
23	한국어학회	1985년 7월	어학
24	한말연구학회	1986년 4월	어학
25	청람어문교육학회	1987년 3월	교육
26	구결학회	1988년 2월	어학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989년 2월	교육
28	국어교육학회	1990년 11월	교육
29	한국사회언어학회	1990년 12월	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1년 12월	어학
3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2년 11월	문학
32	한국중원언어학회	1994년 10월	어학
33	한국문학교육학회	1996년 8월	교육
34	국어사학회	1997년 5월	어학
35	한국지명학회	1997년 9월	어학
36	한국화법학회	1998년 8월	교육
37	영주어문학회	2001년 3월	어문
38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1년 9월	교육
39	한국사전학회	2002년 2월	어학
4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3년 11월	교육
41	한국문법교육학회	2004년 3월	교육
42	한국방언학회	2004년 9월	어학
43	한국작문학회	2005년 6월	교육

## 제2절 국외 현황

### 1. 한국어의 위상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과 지속적인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사 이래 겪어 보지 못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져야 함은 물론이고 한국어의 위상도 점점 높아져야 하겠다.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려면 현재의 위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전 세계의 한국어 사용 인구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외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과목 채택 현황, 외국 대학의 한국학 개설 현황 등을 알아보겠다.

#### 가. 한국어 사용자 수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남한)과 북한뿐이지만, 재일 동포, 재중 동포, 구소련 지역(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동포, 북미·유럽·남미 등의 동포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동포 사회가 한국어 사용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배워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부 외국인들도 넓은 의미의 한국어 사용 인구에 포함할 수 있다. 세계에는 약 6,9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7,700만~7,8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규모는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계 12~20위권에 해당한다(2013년 에스놀로그(Ethnologue)<sup>7)</su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는 모어(母語) 사용자 수로 세계 18위임.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의 시차 및 산출 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통계 수치상 차이가 있음).

7) 에스놀로그(Ethnologue): 화자들에게 본토어로 성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들 연구하는 기독교의 언어학 봉사 단체인 '에스아이엘(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하계언어학연구소])'에서 펴내는 웹 및 인쇄 출판물의 이름. 에스놀로그는 '민족어'라는 뜻. <위키백과> 참조.

〈표 2-24〉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상위 20개 언어

(단위: 백만 명)

순위	언어	사용자 수	순위	언어	사용자 수
1	중국어	1,197	11	독일어	83.8
2	스페인어	406	12	란다어(핀자브어 등)	82.7
3	영어	335	13	텔루구어	74.0
4	힌디어	260	14	마라티어	71.8
5	아랍어	223	15	타밀어	68.8
6	포르투갈어	202	16	프랑스어	68.5
7	벵골어	193	17	베트남어	67.8
8	러시아어	162	18	한국어	66.4
9	일본어	122	19	우르두어	63.4
10	자바어	84.3	20	이탈리아어	61.1

\* 출처: 에스놀로그 Ethnologue(2013)

한편,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 순위에서 한국어 사용자는 3,940만 명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Internet World Statistics 2010).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한국어로 국제특허 출원을 할 때 더 이상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 공개어는 특허 출원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사회에 알릴 때 쓰는 특허계의 공용어로 현재 10개 언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한반도에 국한하여 거주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사용자는 수를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언어 생태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상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5〉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 상위 10위 언어  
(Top 10 language in the internet 2010)

(단위: 백만 명)

순위	언어	사용자 수	순위	언어	사용자 수
1	영어	536.6	6	독일어	75.2
2	중국어	444.9	7	아랍어	65.4
3	스페인어	153.3	8	프랑스어	59.8
4	일본어	99.1	9	러시아어	59.7
5	포르투갈어	82.5	10	한국어	39.4
			기타	기타 언어	350.6

\* 출처: 인터넷세계통계 2010(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 나. 외국의 한국어 과목 채택 및 개설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학교 수로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이 303개교로 가장 많으며, 2위는 미국 110개교, 3위 태국 81개교, 4위 대만 48개교, 5위 오스트레일리아 47개교, 공동 6위 인도네시아 33개교, 러시아 33개교, 8위 키르기스스탄 28개교, 9위 우즈베키스탄 27개교, 10위 카자흐스탄 20개교, 11위 프랑스 19개교, 12위 파라과이 11개교 등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위 일본(12,075명), 2위 태국(11,356명), 3위 미국(9,478명), 4위 우즈베키스탄(8,305명), 5위 러시아(4,274명), 6위 인도네시아(3,320명), 7위 대만(2,214명), 8위 키르기스스탄(2,210명), 9위 프랑스(1,817명), 10위 파라과이(1,673명)순이다.

〈표 2-26〉 외국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현황('12년)

지역	국가별	학교 수	학생 수
아시아	일본	303	12,075
	태국	81	11,356
	인도네시아	33	3,320
	대만	48	2,214
	중국	4	166
북미	미국	110	9,478
중남미	파라과이	11	1,673
	아르헨티나	2	220
	브라질	3	70
유럽	프랑스	19	1,817
	독일	8	96
	영국	3	80
	노르웨이	1	32
독립국가연합 (CIS)	우즈베키스탄	27	8,305
	러시아	33	4,274
	키르기스스탄	28	2,210
	카자흐스탄	20	690
	우크라이나	4	441
	타지키스탄	1	128
	벨라루스	2	18

지역	국가별	학교 수	학생 수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47	5,084
	뉴질랜드	11	730
계		799	64,477
		22개국	

\* 출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내부 자료

대학에 한국학과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하거나 한국어 강좌(프로그램)를 개설한 국가는 2010년 기준 약 60개국에서 2012년 기준 약 8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학과나 강좌(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수로는 2010년 688개 기관에서 2012년 845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약 23% 증가). 아시아(17개국 461개교(2010년) → 19개국 550개교(2012년))가 가장 많고, 북미가 다음으로 많고(2개국 98개교 → 2개국 110개교), 독립국가연합 및 동유럽(14개국 57개교 → 21개국 77개교), 유럽(서·북·남)(12개국 43개교 → 16개국 57개교), 중남미(4개국 10개교 → 9개국 23개교), 중동 및 아프리카(6개국 11개교 → 12개국 19개교), 오세아니아(2개국 8개교 → 2개국 9개교)가 순서대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학연구소 수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북미가 그 다음이며,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및 동유럽' 이 같은 수효로 그 다음 순서를 잇고, 이어서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순서를 나타낸다. 학회 수로도 역시 아시아, 북미, 유럽의 순서를 보이고 그 외 지역은 5개 미만인 실정이다.

〈표 2-27〉 외국의 한국학(대학 및 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현황

(2010년 1월)

대륙별	국 가	한국학 대학 및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소	학회
아시아	일본	347	6	7
	중국(홍콩 포함)	42	27	1
	몽골	13	4	
	베트남	13	4	1
	대만	9	1	3
	태국	9	3	1
	말레이시아	7		
	캄보디아	6		
	인도	4		1



대륙별	국 가	한국학 대학 및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소	학회	
	인도네시아	2	1		
	싱가포르	2			
	터키	2			
	필리핀	1	1	1	
	방글라데시	1	1		
	미얀마	1			
	브루나이	1			
	스리랑카	1			
	<b>소계(17개국)</b>	<b>461</b>	<b>48</b>	<b>15</b>	
북미	미국	92	14	11	
	캐나다	6	1		
	<b>소계(2개국)</b>	<b>98</b>	<b>15</b>	<b>11</b>	
독립국가 연합(CIS) 및 동유럽	러시아	27	6	2	
	카자흐스탄	6			
	우즈베키스탄	5			
	폴란드	3			
	체코	2	1	1	
	루마니아	2			
	리투아니아	2			
	벨라루스	2			
	아제르바이잔	2			
	헝가리	2			
	마케도니아	1			
	불가리아	1			
	에스토니아	1			
	키르기스스탄	1			
	<b>소계(14개국)</b>	<b>57</b>	<b>7</b>	<b>3</b>	
	유럽 (서·북·남)	독일	13	1	1
		프랑스	10	1	4
이탈리아		5			
영국		4	1	1	
스페인		3	1		
핀란드		2		1	
네덜란드		1	2		
스웨덴		1	1		
노르웨이		1			
덴마크		1			
벨기에		1			
오스트리아		1			
<b>소계(12개국)</b>	<b>43</b>	<b>7</b>	<b>7</b>		
중동 및 아프리카	튀니지	5			
	이스라엘	2			

대륙별	국 가	한국학 대학 및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소	학회
	요르단	1	1	
	모로코	1		
	알제리	1		
	이집트	1		
	<b>소계(6개국)</b>	<b>11</b>	<b>1</b>	<b>0</b>
중남미	아르헨티나	4	2	3
	멕시코	2	1	1
	칠레	2	1	
	브라질	2		
	<b>소계(4개국)</b>	<b>10</b>	<b>4</b>	<b>4</b>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6	2	1
	뉴질랜드	2	1	1
	<b>소계(2개국)</b>	<b>8</b>	<b>3</b>	<b>2</b>
<b>총계</b>		<b>57개국 688개 기관</b>	<b>25개국 85개 기관</b>	<b>18개국 42개 학회</b>

## 2. 한국어 국외 보급

한국어 국외 보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국어 보급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현황 등을 수치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한국어 보급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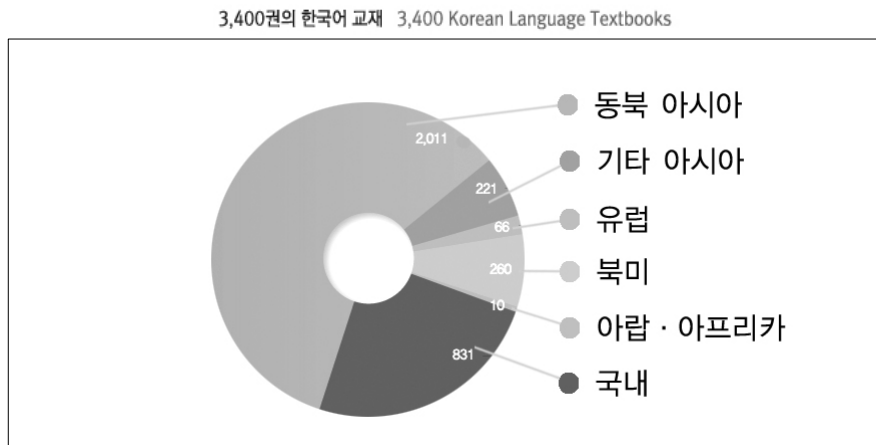
한류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한국어 보급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은 2012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약 3,700개(세종학당 90개, 한글학교 1,925개, 한국학교 30개, 국외 대학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어강좌 개설 845개, 초중등학교 중 한국어 과목 채택 학교 799개)가 운영 중이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01년 7만여 명이었던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수강생은 2012년에는 384,747명으로 5.5배 정도 늘었다(세종학당 수강생 201,231명, 한글학교 학생 106,989명, 한국학교 학생 12,040명,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수강

생 64,477명 등 합계 384,747명).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보급 기관과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국력 증진에 힘입은 결과이지만 반대로 국력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한국어 교재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한국어 사용자가 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9)의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에 따르면 186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2009년에 33개 국어, 3,399권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된 교재가 많다. 교류가 적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의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는 미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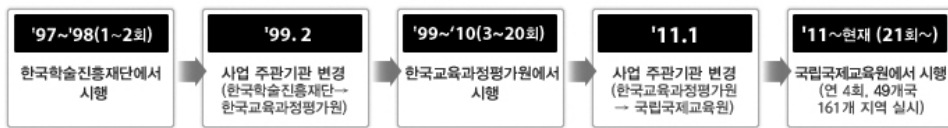
[그림 2-4] 전 세계 한국어 교재 발간 현황('09년)

## 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공인시험 2개와 민간인증시험 10여 개가 있다. 공인시험으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하였고,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그림 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혁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8)</sup>

<표 2-28>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2,692	2,274	711
1998	제2회	3,227	2,663	1,011
1999	제3회	3,926	3,445	2,513
2000	제4회	5,976	4,850	2,920
2001	제5회	7,475	6,049	3,364
2002	제6회	8,788	7,306	4,534
2003	제7회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34,028	30,270	16,456
2007	제11회	13,247	12,030	7,655
	제12회	36,886	31,783	19,112

8) 2006년 12월 재외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구분하였으나 2011년부터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폐지되었다. 편의상 표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인원만을 보였다.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2008	제13회	31,796	26,864	17,449
	제14회	42,497	36,596	18,881
2009	제15회	39,658	34,598	21,216
	제16회	46,262	40,543	21,525
2010	제17회(국내)	3,552	3,211	1,840
	제18회	41,865	3,211	1,840
	제19회	41,865	36,183	18,558
	제20회(국내)	13,964	11,795	5,711
2011	제21회(국내)	8,233	7,118	4,417
	제22회	46,797	40,016	24,065
	제23회(국내)	14,710	13,057	7,598
	제24회	51,810	43,718	24,972
2012	제25회(국내)	15,983	14,072	7,018
	제26회	53,613	45,169	26,587
	제27회(국내)	19,344	17,305	10,432
	제28회	62,226	51,591	27,964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지원자 2,692명에 합격자가 711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연 2회로 시험을 확대하였고, 2010년 이후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지원자 수가 시험 첫 해인 1997년에는 2,692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06,953명, 2012년에는 151,166명에 이르게 되었다. 2012년의 총 지원자 수는 1997년에 비해 약 56배로 증가하였다. 시험의 시행 국가 및 지역을 살펴보면, 1997년 4개국 14개 지역에서 시행되던 것이 2012년에는 52개국 172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15년 동안에 시행 국가 14배 증가, 시행 지역 약 12배 증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증가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의 증가, 해외에서의 한국어 개설 과목 증가,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 고조, 한국으로의 취업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한

국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사람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시험은 2005년 8월 스리랑카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에 따라 항상 현지에서 치러진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국가별 응시자 현황과 합격자 현황을 2011년, 2012년 순서로 살펴보겠다.

〈표 2-29〉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2011년 현황

시행 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 수	응시율	합격자 수	합격률
<b>일반 및 특별 시험 총계(A+B+C)</b>			<b>298,895</b>	<b>90.9%</b>	<b>99,924</b>	<b>33.4%</b>
<b>일반 시험 소계(A+B)</b>			<b>298,420</b>	<b>90.9%</b>	<b>99,609</b>	<b>33.4%</b>
<b>시험지 기반 시험[PBT] 소계(A)</b>			<b>293,402</b>	<b>90.9%</b>	<b>96,731</b>	<b>33.0%</b>
네팔	3회	11.7.22.~23.	49,929	86.9%	15,912	31.9%
동티모르	3회	11.4.17.	841	98.2%	570	67.8%
	4회	11.11.27.	757	96.2%	392	51.8%
몽골	7회	11.9.3.~4.	8,348	84.0%	5,154	61.7%
미얀마	2회	11.6.11.~6.12.	4,522	92.0%	4,109	90.9%
	3회	11.10.29.~10.30.	11,833	94.7%	3,897	32.9%
베트남	9회	11.12.17.~18.	62,847	94.1%	14,937	23.8%
스리랑카	9회	11.10.15.~16.	44,750	88.4%	11,213	25.1%
우즈베키스탄	5회	11.2.19.~20.	11,655	95.7%	4,102	35.2%
	6회	11.9.24.~25.	9,816	97.0%	6,216	63.3%
인도네시아	8회	11.6.25.~26.	18,151	91.3%	6,970	38.4%
	9회	11.11.20.(재시험)				
캄보디아	7회	11.8.20.~21.	22,474	96.2%	9,658	43.0%
	8회	11.12.10.~11.	31,887	93.7%	6,752	21.2%
키르기스스탄	5회	11.5.7.~8.	1,808	94.9%	1,011	55.9%
태국	10회	11.5.22.	6,580	80.9%	3,297	50.1%
	11회	11.11.20.	7,204	78.6%	2,541	35.3%
<b>컴퓨터 기반 시험[CBT] 소계(B)</b>			<b>5,018</b>	<b>86.9%</b>	<b>2,878</b>	<b>57.4%</b>
방글라데시	1회	11.12.5.~23.	166	97.1%	147	88.6%
캄보디아	1회	11.10.4.~12.	367	82.1%	168	45.8%
	2회	11.11.14.~23.	497	89.4%	282	56.7%
	3회	11.12.15.~23.	437	89.9%	261	59.7%
태국	1회	11.9.15.~20.	180	92.3%	54	30.0%

시행 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 수	응시율	합격자 수	합격률
	2회	11.11.14.~25.	401	66.8%	248	61.8%
	3회	11.12.12.~23.	452	75.5%	300	66.4%
파키스탄	1회	11.9.29.~10.20.	963	94.7%	479	49.7%
	2회	11.11.1.~24.	811	89.3%	517	63.7%
	3회	11.12.8.~23.	744	93.2%	422	56.7%
<b>특별 시험 소계(C)</b>			<b>475</b>	<b>95.4%</b>	<b>315</b>	<b>66.3%</b>
베트남	1회	11.12.26~12.29	279	95.9%	180	64.5%
태국	1회	11.12.26~12.29	196	94.7%	135	68.9%

\* 출처: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선발팀(2013)

※ 2012년 현황

시행 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 수	응시율	합격자 수	합격률
<b>일반 및 특별 시험 총계(A+B+C)</b>			<b>166,082</b>	<b>92.8%</b>	<b>64,055</b>	<b>38.6%</b>
<b>일반 시험 소계(A+B)</b>			<b>155,598</b>	<b>92.7%</b>	<b>55,717</b>	<b>35.8%</b>
<b>시험지 기반 시험[PBT] 소계(A)</b>			<b>136,355</b>	<b>92.8%</b>	<b>45,771</b>	<b>33.6%</b>
동티모르	5	12.5.27.	1,069	95.1%	331	31.0%
몽골	8	12.8.25.~26.	4,375	68.4%	3,590	82.1%
미얀마	4	12.7.1.	3,104	96.3%	2,429	78.3%
스리랑카	10	12.10.13.~14.	31,271	91.3%	4,392	14.0%
인도네시아	10	12.6.16.~17.	26,956	96.0%	10,882	40.4%
캄보디아	9	12.9.15.~16.	29,136	97.2%	4,745	16.3%
태국	12	12.4.29.	9,800	88.2%	4,703	48.0%
	13	12.10.28.	10,187	85.9%	5,263	51.7%
필리핀	8	12.3.18.	20,457	97.8%	9,436	46.1%
<b>컴퓨터 기반 시험[CBT] 소계(B)</b>			<b>19,243</b>	<b>91.70%</b>	<b>9,946</b>	<b>51.7%</b>
몽골	1	12. 6월	157	82.6%	69	43.9%
방글라데시	9	12. 3월~12월	5,721	96.3%	3,626	63.4%
베트남	2	12. 5월, 8월	1,143	96.7%	727	63.6%
우즈베키스탄	2	12. 8월~9월, 11월~12월	1,952	95.3%	856	43.9%
인도네시아	1	12. 10월~11월	1,087	90.6%	909	83.6%
캄보디아	4	12. 5월~8월	2,798	90.4%	441	15.8%
키르기스스탄	2	12. 8월~9월	1,296	91.9%	764	59.0%
태국	2	12. 7월, 8월	768	76.1%	502	65.4%
파키스탄	6	12. 2월~7월	4,321	88.0%	2,052	47.5%
<b>특별 시험 소계(C)</b>			<b>10,484</b>	<b>95.6%</b>	<b>8,338</b>	<b>79.5%</b>
몽골	1	12.6.21.~26.	185	83.3%	172	93.0%
	2	12.9.10.~11.	82	85.4%	77	93.9%
	3	12.11.29.~12.1.	179	97.8%	146	81.6%

시행 국가	회차	시행일	응시자 수	응시율	합격자 수	합격률
방글라데시	1	12,6,28,	32	86.5%	23	71.9%
	2	12,9,22,	24	88.9%	22	91.7%
	3	12,11,29,	46	95.8%	37	80.4%
베트남	2	12,3,5,~14,	548	95.0%	363	66.2%
	3	12,6,21,~29,	723	96.5%	612	84.6%
	4	12,9,20,~27,	689	97.0%	572	83.0%
	5	12,12,3,~12,	872	97.8%	742	85.1%
스리랑카	1	12,11,25,	1,419	97.4%	1,146	80.8%
우즈베키스탄	1	12,6,27,~7,3,	278	87.1%	208	74.8%
	2	12,9,24,~27,	203	83.9%	154	75.9%
	3	12,12,5,~7,	265	86.0%	214	80.8%
인도네시아	1	12,3,26,~4,5,	507	97.1%	334	65.9%
	2	12,6,25,~7,2,	306	95.6%	268	87.6%
	3	12,9,13,~20,	311	98.4%	255	82.0%
	4	12,12,3,~7,	318	98.1%	261	82.1%
캄보디아	1	12,6,27,~28,	100	99.0%	82	82.0%
	2	12,9,25,	53	100.0%	42	79.2%
	3	12,12,5,~6,	136	97.8%	113	83.1%
태국	2	12,3,12,~23,	566	94.8%	409	72.3%
	3	12,6,21,~29,	661	96.2%	556	84.1%
	4	12,9,13,~27,	698	96.3%	578	82.8%
	5	12,12,3,~18,	553	96.5%	477	86.3%
	1	12,3,14,~17,	261	97.0%	163	62.5%
파키스탄	2	12,6,14,~16,	177	97.8%	120	67.8%
	3	12,9,13,~14,	130	99.2%	83	63.8%
	4	12,11,28,~30,	162	98.8%	109	67.3%

\* 출처: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선발팀(2013)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국가별로 사업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합격 예정 인원을 공고한 뒤 접수 및 시행이 이루어지는데 응시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자 가운데 고득점자순으로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필요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원자의 증감이나 합격률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에서 특별 시험은 한국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인데, 그런 이유로 합격률이 일반 시험의 2배가량이나 된다.





##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제2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1~2012)

제3절 언어 정책 기반 조성 과 국어 능력 향상

제4절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제5절 국어 문화유산 보전 과 국어 정보화



##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 제1절

### 주요 업무

#### 1.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한국어 국외 확산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투토, 중국의 공자학원,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재팬파운데이션) 문화센터 등 여러 국가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국외에 보급하는 전문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화의 힘(소프트파워)을 통해 국가 경쟁력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한국 기업 해외 진출 증가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수요 지역이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전 세계의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설립해서 운영해 왔으며, 전 세계 세종학당(‘12. 12. 기준 43개국 90개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본부의 성격을 띠는 ‘세종학당재단’<sup>9)</sup>을 설립하게 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국외에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세종학당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관리하는 기관(법정 법인)으로서,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12년 10월 24일). 세종학당의 조직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총장, 기획총괄부, 학당지원부, 교육지원부, 누리세종부’의 4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약 20명이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9) 이런 점에서 ‘세종학당재단’은 중국의 ‘공자학원 총부’(법인 성격, 베이징에 있으며 ‘12. 12. 기준으로 전 세계 100개의 국가 및 지역에 산재한 공자학원 400개소, 공자학당 500개소를 관리함.)와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다.

51개국 117개소('12년 12월 기준으로는 43개국 90개소)에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어 국외 확산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정부는 세종학당의 전략적 확대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해외 현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한국어 교육 대표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9년 한글날을 기점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누리-세종학당은 매년 콘텐츠를 풍부하게 갖추면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세종학당”, “알림마당” 등의 메뉴를 갖추고 있는데, 이들 메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원격교육 시스템으로, ‘한국어교원’에게는 교육 관련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세종학당 운영자(인가자에게 한함)에게는 학사 운영 시스템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었다.

또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8월 현재 총 9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교원들은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수업 사례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은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의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단계별·지역별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식 및 창립 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 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이 201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다. 같은 날 ‘세종학당재단’과 ‘구글코리아’ 간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공동 기획’,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관련 콘텐츠의 공익적 사용 협력’ 등의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다양한 구글 플랫폼을 활용해 해마다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온라인 강의 체계’ 구축에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재단은 유튜브의 세종학당 전용 채널([www.youtube.com/LearnTeachKorean](http://www.youtube.com/LearnTeachKorean))과 구글플러스의 실시간 화상통화 및 방송 기능을 사용해 세계 곳곳의 세종학당(12년 10월 기준 43개국 90개소) 및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통합 한국어 학습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과 유튜브의 세종학당 전용 채널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에 대한 행정적, 직접적 지원본부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이 운영되기에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국립국어원이 한국어의 국외 확산을 위해 펼쳐 온 사업 중에는 세종학당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 세종학당의 한국어 학습자나 교원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넓게 국내외 교육 기관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나 교원도 고려하여 범용의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추진하였다.

먼저 교재 개발과 관련된 실적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종한국어 1·2·3·4』

(세종학당용 표준 교재 1·2권은 초급 하 수준, 3·4권은 초급 상 수준, '11년~'12년 개발)

- 『초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어·중국어·몽골어·베트남어·태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판 '08년 발간, 교원용 지침서(읽기·쓰기) '11년 발간, 러시아어·스페인어판 '12년 발간)

- 『중급 한국어 1·2』

(한국어·영어·중국어·몽골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필리핀) 등 6개 국어 교재 '09년~'10년 발간, 교원용 지침서 '10년~'11년 발간)

다음은 교원 연수 및 재교육과 관련된 실적이다.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화합의 축제인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09년부터 매년 1회, 매년 교육자 300여 명 초청)했으며, 국외 한국어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국내 초청 연수('11년: 한국어전문가 51명, 세종학당 교원 56명, '12년: 한국어전문가 44명, 세종학당교원 42명)도 실시하였고,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11년: 8지역 16명, '12년: 10지역 22명)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확산으로 높아지는 한국어 학습 열기를 살려 세계 문화와 소통하며 전 세계에 한국어 공동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총괄적으로 수행했다. 앞으로 한글·한국어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와 문화 교류 강화에 힘써 한류의 지속 확산을 촉진하려고 한다.

## 2.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국립한글박물관 조성은 한글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전략 목표로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소통시키고, 한글 유물 자료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 그리고 한글의 미래지향적 가치 발굴 및 확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글의 연구·보존뿐 아니라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전시·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으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9년에는 서울 시내 또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지를 물색하였고, 동시에 공간 계획 및 콘텐츠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상설전시실, 교육체험실, 기획전시실, 한글 정보 검색 공간, 강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림 3-1] 국립한글박물관 조감도

한글의 창제 정신과 우수성을 미래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한글문화의 중심이 될 한글박물관은 2013년 8월 말 완공된다. 한글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향후 박물관 복합단지 내에서 문화적인 상승 효과(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주변의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가 조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물은 한글 모음의 제작 원리인 ‘천지인’을 형상화하여 하늘의 쉼, 사람의 쉼, 땅의 쉼을 쉼쉼이 쌓아 올린 공간에 소통의 매개인 한글을 담고,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와 단청의 멋스러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설계되었다. 건축 연면적은 11,322㎡이고, 사업 기간은 2009년~2014년으로 총사업비 326억 원이 소요된다.<sup>10)</sup>

10) 『문화 정책 3년 성과 자료집(2008~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1.

〈표 3-1〉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구성 계획

공간	상설전시실(2층)			교육체험실 (3층)	한글 누리 (1층)
	[주제1] 한글을 만든다	[주제2] 한글을 꽃피우다	[주제3] 한글을 생각하다		
내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3.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한글날은 공휴일이 많으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많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고 한글날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정부와 한글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2005년부터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한글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국민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2012년 조사에서 한글날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64%(2009년도 88.1%보다 24.1%p 감소)로 나타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2012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3.6%(2009년도 조사 시 68.8% 찬성, 2011년도 76.3% 찬성)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한다고 답변했다.<sup>11)</sup>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갈수록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15돌 기념 학술회의<sup>12)</sup>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경제적 효과는 ① 휴식, 여가, 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재충전으로 노동 생산성의 향상(33.7%) ② 문화·관광 활동 지출 증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21.3%) ③ 문화·관광 등 여가 활동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13.9%) 등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 여가, 관광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 다수(57.5%)가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 한글날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국외 세종학당의 한국어 학습 열기와 국내의 한글 및 한국어에 관한 관심 저조라는 불균형적 상황을 지적하고, 한글 및 한국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알려 나갔으며(2012년 9월~10월) 한국어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정치계의 동참과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한글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 활동도 큰 힘이 되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 운동 전개, 경제 단체의 공휴일 지정 반대 성명에 대한 항의 시위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1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의 여론 조사는 해외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글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왕 탄신 615돌을 맞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 동안 일반 국민(19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pm 3.1\%$ 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글문화연대 주관, “세종대왕 탄신 615돌 기념 학술회의—한글 문화 가치 확산을 통한 한글의 세계화 전략—”(2012. 5. 14.), 주제 발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발표자: 이강욱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에 호응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9일 한글날에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금년 한글날을 계기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고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2년 12월에는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마침내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2년 동안 공휴일 아니었다가, 23년 만인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2월 28일(금) 오후 7시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음을 대내외에 공식 발표하고,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한글날 공휴일 지정 기념 축하 행사(세종의 꿈, 한글로 열다)’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취지와 의미를 국민들 가슴에 새기고 한글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한 행사로 취타대 연주, 한글날 공휴일 선포문 낭독(국무총리 김황식), 점등식(10. 9.), 한글을 주제로 한 영상작품(한글이야기 및 3차원 영상 투사) 상영, 한글 태권춤, 번개춤사위(플래시몹) 등 전통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표 문화유산이자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된 한글의 가치를 드높이고 ‘문화국경일’로서의 한글날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기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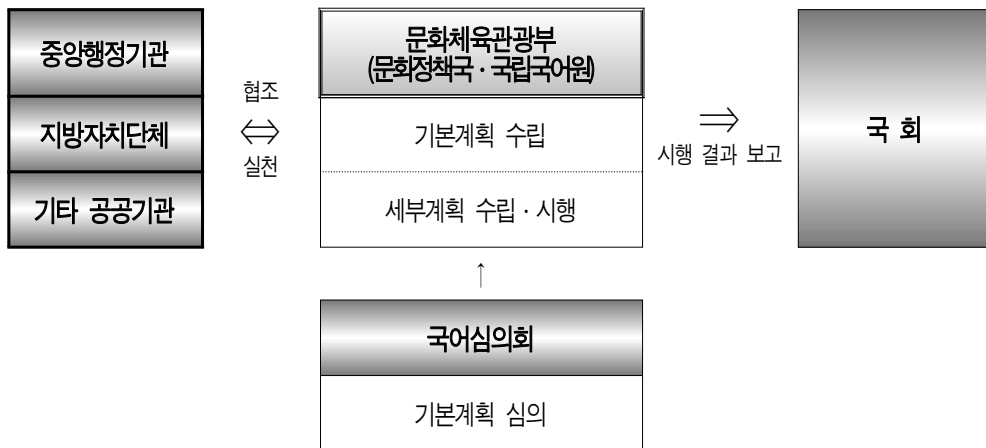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글과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할 것이며, 문화국경일로서의 한글날의 의미를 세계인에게 더 널리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 제2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1~2012)

### 1. 개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다. 또한 이 계획에는 국어기본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이 포함된다.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년~2011년)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이다. 3대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3대 중점 추진 과제〉

<p>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li> <li>▶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국내외 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li> <li>▶ 교육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li> <li>▶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li> </ul>
<p>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1차('07~'08):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li> <li>○ 1단계 2차('09~'11):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li> <li>○ 2단계 ('12~'16):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li> </ul> </li> <li>▶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 연결망 구축</li> <li>○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li> <li>○ 언어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li> <li>○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li> </ul> </li> <li>▶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li> <li>▶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li> <li>○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li> </ul> </li> <li>▶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내 국어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li> <li>○ 현지 한국어 교육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li> <li>○ 국내 한국어 교육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li> </ul> </li> <li>▶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li> <li>▶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체계 구축</li> </ul>
<p>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li> <li>▶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li> <li>▶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li> <li>▶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li> <li>▶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li> </ul>

10대 부문별 추진과제는 국어기본법 및 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국어 정책으로, 추진 과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연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망 구축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8-1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 10-3 국어생활 기획 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은 다음과 같이 추진 과제가 5개 가 있고 추진 과제마다 세 개씩의 세부 과제가 있어서, '5대 추진 과제', '15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	5대 추진 과제	15대 세부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사용 환경 조성 1-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2-1 언어소외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2001년에는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시책이 시행되었는데, 두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관련성이 깊은 것끼리 3개 분과(1. 언어 정책 기반 조성(국어 능력 향상), 2.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3.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로 재편하여 통합적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2011년 추진 과제(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름)

분과	3대 중점 과제	10대 추진 과제
1 언어 정책 기반 조성 국어 능력 향상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 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대상별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망 구축

분과	3대 중점 과제	10대 추진 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1</p> <p style="text-align: center;"><b>언어 정책 기본 조성과 국어 능력 향상</b></p>	<p style="text-align: center;">교재 개발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 개설, 운영</li> </ul>	<p><b>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b>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p> <p><b>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b>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p> <p><b>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b> 5-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p> <p><b>10.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b>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형 서비스체제 구축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p>
<p style="text-align: center;">2</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b></p>	<p><b>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의 설치 및 운영</li> <li>• 한국어 국제교류협력망 구축</li> <li>•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li> <li>•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li> <li>•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li> <li>•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li> <li>•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 체계 구축</li> </ul> <p><b>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li> <li>• 언어권별 대역사전 원고 작성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li> <li>• 실용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li> <li>•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순차 편찬</li> </ul>	<p><b>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b>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p>

분과	3대 중점 과제	10대 추진 과제
3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6-2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8-1 국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질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3 국어생활 기획 총서 발간

나. 2012년 추진 과제(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름)

분과	5대 추진 과제	15대 세부 과제
1 언어 정책 기반 조성과 국어 능력 향상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사용 환경 조성 1-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1 언어소외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2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3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위에서 두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관련성이 깊은 것끼리 3개 분과(1. 언어 정책 기반 조성 및 국어 능력 향상, 2.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3.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로 재편한 것을 그 순서대로 주요 실적을 살펴 보겠다.

## 2. 주요 실적

### 가. 언어 정책 기반 조성 및 국어 능력 향상

####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는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적응형 국어 교육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 대상이 증가하고, 공무원·교사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어 능력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과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 교육 훈련 과정’으로 운영,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 강화, 교육 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및 보급,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일반 성인 대상의 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의 수요 급증에서 비롯되었으며,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 실시 등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현황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03년~'12년)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16	17	17	18	22	24	27	35	29	36	241회
	인원(명)	1,486	1,458	1,765	1,921	2,354	2,443	2,733	3,174	2,701	3,841	23,876명
기획 과정	횟수(회)	-	-	-	-	-	-	-	15	81	75	171회
	인원(명)	-	-	-	-	-	-	-	489	5,919	5,055	11,463명
찾아가는 국어문화 학교	횟수(회)	157	176	195	190	253	148	297	316	334	486	2,552회
	인원(명)	17,890	16,332	15,655	12,926	19,305	10,275	19,062	27,804	28,689	34,347	202,285명
총 수강 인원		19,376	17,790	17,420	14,847	21,659	12,718	21,692	31,467	37,309	43,243	237,521명

국어문화학교는 2011년 총 444회 37,309명이 수강하였고, 2012년에는 총 597회 43,243명이 수강하는 등 수강자 수가 빠르게 증가(전년 대비 약 16~19%)하고 있다. 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은 2년간 연평균 32.5회를 교육하였고, 연평균 3,271명이 수강하였으며, 연평균 수강생을 '09년~'10년(2,953명)과 대비하면 약 11%가 증가하였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년간 연평균 410회를 교육하였으며, 연평균 31,518명이 수강하였다. 이는 연평균 교육 횟수로는 '09년~'10년과 대비하여 33.6% 증가한 것이고, 연평균 수강생 수로는 '09년~'10년과 대비하여 34.5% 증가한 것이다.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으로 기존의 어문 규범 관련 강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생활 글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 말하기와 글쓰기, 국어 문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신규 편성하는 등 일반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과 내용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아울러 기존 강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국립국어원의 3층 공간에 50석 규모의 강의실을 신설하여 강의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도 하였으나, 수강 희망자의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장 출석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국어 강좌는 한글 맞춤법,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공문서 바로쓰기,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구별해야 할 어휘, 띄어쓰기, 생활 속의 어문 규범,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이며, 강좌 내용 개발 및 동영상 제작, 교육 운영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LMS) 및 학습자용 누리집(홈페이지)을 2010년부터 구축하여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림 3-3]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생활 속의 어문규범 온라인 강좌 9차시

국립국어원은 또 ‘국어진흥교육팀’을 ‘국어능력발전과’로 개편하여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 운영 체제를 정비(’09년)하였으며, 국어문화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강의 교수 3명을 채용하여 강좌 개발, 교재 집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4]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학습자용 누리집

## 2)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언어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 및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표준어의 개념과 개별 어휘의 재검토,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급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언어 정보 자원이 국제적 수준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고,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 표준 규격 제정으로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을 통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실천과 실효성 제고,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국어 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와 합리성 확보,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강화 및 언어자원 표준화를 통한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 유도 등을 목표로 하는 이 과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이 그것이다. 각각의 세부 추진 실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어기본법』 개정('11. 4. 14. 일부개정, '12. 5. 23.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12. 8. 22. 일부개정)<sup>13)</sup> 등을 통하여 국어기본법상 각종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11. 2. 23.)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를 위하여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4대 어문 규범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다. 『로마자 표기법

13) 2011년과 2012년 기간에 국어기본법은 일부개정이 두 번 있었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일부 개정이 한 번 있었다. 국어기본법 '11. 4. 14. 일부개정 건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의 순화 정비'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12. 5. 23. 일부개정 건은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12. 8. 22. 일부개정 건은 제14조의2(세종학당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이상 세 개 조문의 신설과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의 조문 일부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예: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 '민족 문화 창달→한국 문화 창달')이었다. 한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같은 기간에 개정은 없었으며, 다만 부칙에 따라 '10. 12. 29. 제정된 것을 '11. 6. 30.에 시행하게 되었다.

영향평가』(‘10. 12.),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평가』(‘10. 12.), 『표준어 규범 영향평가』(‘11. 11.), 『표준 발음법 영향평가』(‘12. 11.)를 수행하였다.

언어 자원 표준화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심의회를 ‘11년, ‘12년 각각 6회씩(‘11년 3·4·6·8·10·12월, ‘12년 3·4·6·8·10·11월 개최) 개최하였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외래어 표기 용례 56,700건, 로마자 표기 용례 12,800건을 제공하여 새로운 외래어 표기 및 로마자 표기와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0년 9월에는 한글 맞춤법의 부록인 문장부호에 대한 어문 규범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문장부호 개정의 정책적 효과 연구』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 작업으로 2011년 8월에는 『문장 부호 지침서 연구 개발』을 발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가로쓰기 방식의 정착과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여론 수렴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문장부호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국어심의회 심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신중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안이 국어심의회를 통과하면 결과는 고시를 통해 알리고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어문 규범의 효과적인 보급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2011년에는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LMS)와 학습자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였고, ‘생활 속 어문 규범’(15차시), ‘띄어쓰기’(12차시), ‘훈민정음의 이해’(14차시) 등 3개(41차시)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 2012년에는 국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인 ‘표준 언어 예절’(15차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5차시),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7차시) 등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9일부터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을 개통하여 매월 13강좌의 정규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바쁜 직장 생활·학업 등으로 어문 규범 관련 강좌들을 강의실 현장에서 수강하기 어려웠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대 변화와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생활 언어 규범의 요구 증대와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요구 증대에 발맞추어 『표준 화법 해설』(1992)을 수정 보완한 『표준 언어 예절』(2012)을 마련하여 교육계, 출판계, 방송계, 일반 국민 등에게 보급하였다(5,500부).

국민들이 어문 규범, 어휘, 어법, 언어예절,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가나다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가나다전화는 2011년에 전화 56,928건, 온라인 16,394건, 트위터 508건의 상담을 수행했으며 2012년에는 전화 85,147건, 온라인 16,032건, 트위터 14,001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상담을 통하여 현행 어문규정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지를 검토하고 규범의 생활 밀착성, 접근성, 편의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국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1년 9월 1일부터는 트위터를 활용한 국어상담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표 3-3〉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실적('11년~'12년)

	가나다전화	온라인	트위터	합계	증가율
2009년	26,964	6,579	-	33,543	
2010년	35,403	10,420	-	45,823	36.6%
2011년	56,928	16,394	508	73,830	61.1%
2012년	85,147	16,032	14,001	115,180	56.0%

또 언어 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과 관련해서도 옛 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의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작업<sup>14)</sup>,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기술 형식의 국제 표준화 작업<sup>15)</sup>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초기 한국 한자 국제표준화(CJK main, Ext. A) 이후 고문헌 등에서 새로 발견되는 신출 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학의 진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언어 자원을 국제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민족 언어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3)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은 시의적절한 국가의 언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 언어교류는

14) 언어 자원 표준화(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3개 분과 위원회(국내, 국제) 지원.

15) 국어사전 내 비표준문자 표준화 자료 구축.

통일 후 언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교류를 통해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이다. 세계의 언어학자, 언어정책 기관과의 교류는 다른 나라의 언어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선진적인 언어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제는 남북한 언어의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남북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언어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며, 전 세계의 언어정책 동향과 연구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국가 언어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언어정책에 관한 국가 간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대회<sup>16)</sup> 추진과 같은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사업과 세계 각국 언어정책 기관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남북 교류 사업은 남북 상황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 남북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4)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우리 사회 구성원은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12년 12월 말 기준 24,614명, 출처: 통일부 통계자료) 등의 증가로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다.<sup>17)</sup> 그리고 이에 따라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적 소외 계층이 생겨나 이들에 대한 언어 복지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접자, 수화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 언어를 체계화하는 일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제로 특수 언어의 보급을 확대하여 언어 소외 계층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sup>18)</sup>

16) 남북 관계 경색으로 2008년부터는 2012년까지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가 2010년에 1건 있었다. 2010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물을 엮어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국립국어원)을 2011년 3월에 펴냈다.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민현식) 외 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7) 외국인 주민 수(귀화자 및 귀화자 자녀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이지만, 통계의 편의와 유래를 고려하여 이들도 외국인 주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함)는 2012년 기준으로 총 141만 명이다. 이 중 ‘한국 국적 주민’은 29만 명인데, 구체적으로는 ‘혼인 귀화자 7.6만, 귀화자의 자녀 16.8만, 기타 4.7만’의 분포를 보인다. 또 ‘한국 국적이 아닌 주민’은 112만 명인데, ‘외국인 근로자 59만, 결혼 이민자 14만, 유학생 8.7만, 외국 국적 동포 13.5만, 기타 16.8만’의 분포를 보인다.

18) 우리나라의 언어 관련 장애인 수는 '11년 기준으로 총 503,676명으로서, 시각장애인(접자) 245,971명, 청각장애인(수화) 240,695명, 언어장애인(수화) 17,010명의 분포를 보인다.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시책은 주로 국제결혼 이주민 등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민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3-4〉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추진 실적('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최(여성가족부 공동, '11. 1~7월)</li> <li>•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최(여성가족부 공동, '12. 1~7월)</li> <li>•법무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12. 5월)</li> <li>•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개최('12. 10월)</li> </ul>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4(중급 단계) 교원용 지침서 개발('11. 12월)</li> <li>•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4(중급 단계) 출판('11. 12월)</li> <li>•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6(고급 단계) 개발('11. 12월)</li> <li>•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2' 교재 개발('11. 12월)</li> <li>•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3단계 개발('11. 12월)</li> <li>•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2단계 자료 보급판 제작·보급('11. 12월)</li> <li>•다문화 배경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1·2 교재 개발('12. 12월)</li> <li>•다문화 배경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1·2 교재 개발('12. 12월)</li> <li>•다문화 배경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1·2 교재 개발('12. 12월)</li> </ul>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2단계) 방송 제작·방영(KBS TV 유치원, '11년)</li> <li>•교육방송(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11년)</li> <li>•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제작·방영(KBS TV유치원- 글자놀이3, '12년)</li> </ul>

북한 이탈 주민의 원활한 한국 정착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통 일부와 협의하에 개발, 진행되었다. 이들의 언어 적응 교육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한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를 체계화하고 교육하는 일은 언어 복지의 주요 과제이다. 표준 수화를 확립하여 보급하고 점자 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소외 계층의 언어 지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표 3-5〉 점자·수화 체계 개선 지원 실적('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표준 수화 확립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수화 및 경제 용어, 정치 용어의 수화 표준화('11, '12)</li> <li>• 한국수화 5 교재 개발('11)</li> </ul>
표준 수화 학습 방송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수화 동영상 웹사이트 증보('12)</li> <li>•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심화 한글 등 3과목 온라인 점자 강좌 개발('12) *점자세상(www.braillekorea.org)</li> <li>• 점역·교정사 양성을 위한 국어, 영어 점자 교재 개발 연구('11, '12)</li> </ul>
점자 포털 사이트 콘텐츠 보완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12)</li> </ul>
웹 기반 수화사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점사량 업그레이드('11)</li> <li>• 유니코드 점자 규정 마련('11) 및 현장 적용 연구('12)</li> <li>• 점자 콜센터 운영('11, '12)</li> <li>• 한국 점자 규정 개정을 위한 실증 연구('12)</li> <li>• 한자 점자 규정 제정에 관한 기초 연구('12)</li> </ul>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이주민 대상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중급 단계 개발) / 온라인·방송(3개 언어, 6종) 등 다양한 형태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도모
- '교육과정·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수요 조사, 모형 개발 등) → 단계별·매체별 교재 개발 →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자료 제공'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 과정을 통하여 교재 개발의 중복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활용성을 제고
-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 현장 경험을 교육 자료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교재를 제작
- 남한 문화와 연계한 언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줌
- 그동안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온 언어 소외 계층의 특수 언어에 대하여 언어과학 차원에서 접근하여 체계화를 지원함.

### 5)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국제화, 개방화와 지식 정보 문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라 국어 사용 환경의 오염과 왜곡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대중매체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 높은 방송 프로그램 개발,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 언어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관행 개선 등 언론 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전문용어 정비를 산발적, 비연속적으로 추진해 온바 국민의 의사소통 원활화 및 활성화에 저해하여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선정하여 우리말로 다듬는 등 국어 순화 사업 강화,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 표현의 개선, 전문용어 정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개선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통한 신문과 방송 언어의 차별적 표현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권고 보도 자료 발표('11년 6건), 방송 제작 관계자 등 관련자에게 개선 권고 공문 발송('12년 32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11. 10.),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12. 12.),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12. 11.)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언론 매체의 언어 관련 프로그램' 내용 감수(연중, 한국방송(KBS) 제1텔레비전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겨루기' 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문과 방송 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신문 및 방송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검토 요청에 따라 전문용어, 공문서 등에 대한 상시 감수 체제를 운영하고, 교육부(위탁 기관 포함)의 감수 요청에 따라 교과서 수시 감수 체제를 운영하였다.

### 6)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은 3대 중점 추진과제인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와 관련된다.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고조되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역의 국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이다.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국어 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과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및 활용,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등이다.

국어 능력 검정시험은 개인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응시자들뿐 아니라 방송사, 교육 기관 등 일정한 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평가 도구로 활용되어 국어 능력을 증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방송, 재단법인 한국어문화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3-6〉 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와 점수평균('08년~'12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간 합계/ 평균(응시자/점수)
케이비에스 (KBS)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방송)	응시자 수	23,352	21,794	41,213	25,353	28,257	139,969 (연평균 응시자 27,994명)
	점수평균 (총점 990점)	556	520	501	513	553	2643 (평균 528.6점)
국어능력 인증시험 (한국어문 화연구원)	응시자 수	19,034	19,288	33,288	18,216	33,703	123,529 (연평균 응시자 24,706명)
	점수평균 (총점 200점)	123	125	122	136	131	637 (평균 127.4점)
한국실용 글쓰기 검정 (한국국어 능력평가 협회)	응시자 수	16,455	15,270	9,541	13,784	13,008	68,058 (연평균 응시자 13,612명)
	점수평균 (총점 1000점)	548	561	585	568	598	2,860 (평균 572점)

이와 같은 외적인 확대에 발맞추어 검정시험의 내실화와 타당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 방법 개선안 연구<sup>19)</sup>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19) 국어능력검정시험 평가 분석('09), 말하기 통합 모의시험 추진 및 분석 평가('09),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09), '10년~'12년에는 시험 주관기관별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내부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을 통해 입사, 승진, 입학시험 등에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채택하는 곳이 100여 개소('10년)에서 120여 개소('12년)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초중등 교육용 기본 어휘 목록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 발달 단계를 감안한 과학적인 검토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교과서들이 집필된 면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빈도' 중심 어휘 선정 방법론을 지양하고 어휘 사용 범위, 포괄성, 친숙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교수·학습에 유의미한 어휘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보고서('11. 12.)에는 '품사 통용 어휘, 파생어 처리, 개념 범주별 어휘 선정 등에 대한 지침',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 목록(1,836개)', '교실 운영 관련 어휘(156개)'도 제시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지역 국어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된 기구이다. 현재 전국 18개 국어문화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역사와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여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자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상담원) 간의 공동 연수회를 실시하고 국어책임관 공모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7〉 국어문화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문화원 경기지역 신규 지정-인하대국어문화원('11. 2.)</li> </ul>
국어문화원의 운영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문화원 백서 발간('11. 1/ '12. 7.)</li> <li>• 국어문화원 워크숍 개최('12. 2./'12. 12.)</li> </ul>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공동 연수회 개최('11. 5/ '12. 5.)</li> <li>• 지역별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공동협의회 개최('11년 6곳/ '12년 16곳)</li> </ul>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해당 지역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도시 언어 경관 조성 사업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소재 문화재 해설문 다듬기 추진('11. 7~12.)</li> <li>• 부산지역 간판 시정('11년~'12년)</li> </ul>

## 나.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 1)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전략 필요(『국어기본법』 제19조)
-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재외 동포뿐만 아니라 현지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 언어문화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현지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지원 필요성 대두
- 지속적인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육성 필요 등

이 과제는 (가) 동북아 지역을 거점으로 현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를 단계별, 연차별로 설치, (나)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기관을 통한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공급, (다)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육성 및 자격 관리, (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교육기관·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마) 인터넷과 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등이 목표이다.

이와 같은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학당의 설립·운영
-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 및 출판 보급, 대상별·수준별·지역별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등)
-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등)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국외 한국어 교육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언어정책 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 등)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온라인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누리-세종학당) 구축)
- 한국어·문화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강좌 제작·보급 등

이 가운데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제4절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 방안'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사업'의 '11년~'12년간의 세부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이 사업은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언어정책 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 국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을 주요 세부 내용으로 취한다. 이와 관련한 '11년, '12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세계 각국의 언어정책기관 방문 및 현황 조사
  - 중국민족어문번역국 관계자의 국립국어원 방문('11. 9.)
  - 프랑스 언어 정책 기관(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 알리앙스 프랑세즈, 교육부, 이민국 등) 방문('11. 9.)
  - 영국 런던 언어 박람회 및 '런던대학교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학 대학'(SOAS) 위기 언어 계획 방문('11. 10.)
- 국립국어원 기관지 '새국어생활'에 세계의 언어 정책 기고 고정란 마련
  - 아일랜드('11년 봄호), 헝가리('11년 여름호), 루마니아('11년 가을호), 슬로베니아('11년 겨울호), 베트남('12년 봄호), 미국('12년 여름호), 스위스('12년 가을호), 말레이시아('12년 겨울호)의 언어 정책 원고 게재
-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국제학술회의 개최('12. 11. 20.~21. 프레스센터)
  - 국내외 언어정책 및 언어연구 관계자 150여 명 참석
  - 기조연설: 유럽연합 언어정책전문가,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교수 로버트 필립슨(제목: 언어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발표: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위원회 최고경영자,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부소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언어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언어발전진흥기구 ‘언어발전 및 보전센터’ 책임자,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 단장, 핀란드 언어원장,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위원장 등(7명)

급변하는 세계의 언어적 상황에서 프랑스, 영국 등 각국의 언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기관이 국립국어원을 방문하는 일, 그리고 각국 언어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일 등을 통해 각국의 언어정책의 실태를 알아보고 정보를 교류하였다. 또 외국 언어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기관지 ‘새국어생활’에 세계의 언어 정책 고정란을 마련한 일도 언어정책의 발전과 국제 정보 교류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및 교육 전문가 간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1년(제3회)과 2012년(제4회)에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열렸다. 2011년 대회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2년 대회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대 수원 캠퍼스에서 열렸는데, 두 대회 모두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 운영자·교원·학습자 등 관련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011년 대회에서는 한국어·한국문화 관련 다양한 특강뿐 아니라, 세종학당 운영 및 교재 관련 교육, 세종학당 운영 사례 발표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2012년 대회에서는 신규 지정 세종학당 지정서 전달식, 국외 파견 한국어교원 발대식 등의 행사 외에도, 한류와 관련된 특강, 한국어 교육 사례·도구 발표, 한국문화 관람 및 체험, 세종학당 정책 설명, 세종학당 표준 한국어교육 과정 및 교재 설명,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설명, 분임 토의(주제: 세종학당 교재 활용 방안, 누리-세종학당 활용 방안) 및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한국어 교육자들은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배우고, 다른 나라 한국어 교육자들과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11년과 ’12년에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자·교육

기관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및 단체, 교육 기관, 교육자 간의 유기적 공조 체제를 구현하고 한국어 보급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다.

## 2)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은 한류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에 따른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증가로 인하여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용 사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다. 한편, 주요 언어권(영어, 일어, 중국어 등)에 집중된 사전 시장 구조로 동남아 등 한국어 학습자 급증 지역에 대한 사전 공급이 취약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현지어의 양방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는 배경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국어 사전을 접근성이 높은 웹사전 형태로 개발하여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개발과 국립국어원 내 '사전편찬실'의 설치 및 상설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개발 계획의 단계적 수립
- 한국어 학습 수요에 기반한 사전 서비스 시스템 설계
- 5만 어휘 선정 및 다국어사전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 언어권별 대역사전 연구진 선정 및 번역·감수, 실용성이 높은 예문 확보 및 언어권별 번역
- 한국인·외국인 화자를 위한 한국어·현지어 발음 설명서 작성
- 사전 편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전편찬실'을 설치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과 연동하여 전체 사업 총괄 진행

'11년~'12년 세부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개발 사업에는 한국어기초사전과 다국어사전의 집필이 포함된다. 한국어기초사전과 관련해서는 어휘사전 모형 개발 및 지침 마련, 한국어 학



습용 기초 어휘 5만 항목 선정·집필 등을 수행하였다. 다국어사전과 관련해서는 다국어사전 모형 개발 및 지침 마련, 5개 언어(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다국어 사전 집필 등을 수행하였다.<sup>20)</sup>

나아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연동한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국어 지원 웹사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어 기초사전과 다국어사전 구축 작업이 한 시스템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편찬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뿐 아니라 한국어기초사전의 집필을 통해 얻은 쉬운 뜻풀이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어교육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및 어휘의미망 구축 사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한국어 지식 정보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또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실용적인 예문(구 단위 예문, 문장 단위 예문, 대화 단위 예문)을 구축하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 정보를 탑재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정규직 3명, 계약직 14명(개방형 사전 편찬, 사전 지침 통합 관리 및 정비, 뜻풀이 및 용례 보완, 분야별 전문용어 자료 정비,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목록·내용 정비,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및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전편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전편찬실은 연구진, 시스템 개발팀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시스템의 안정적 설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다.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 1)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둔 언어 정책 수립과 소멸되어 가는 민족 생활어, 지역어 조사를 통해 국어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는 크게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등 세 부

20) 앞으로 '13~'15년에는 한국어기초사전 음성 발음 정보 5만 항목을 구축하고, 5개 언어(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미얀마어 예정, 일부 변동 가능)를 추가하여 총 10개 언어로 된 다국어사전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국어 사용 실태 조사는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어 사용 환경 조사,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국어 정책 통계 지표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등이 실시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8〉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추진 실적('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사업 추진('12년)
국어 사용 환경 조사	•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용역 사업 추진('11년)
국어 의식 조사	•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용역 사업 추진('11년)
국어 정책 통계 지표 조사	• '국어 정책 통계 포털 구축' 용역 사업 추진('11년) • '2011년 국어 정책 통계 조사' 용역 사업 추진('11년) • '2012년 국어 정책 통계 조사' 용역 사업 추진('12년)

위와 같이 매년 주제, 영역에 따라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는 국어 사용 실태 및 언어 의식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 주기 때문에 국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년 국어 및 언어 관련 각종 실태가 정량적으로 측정된 결과는 국어 정책의 추세 분석 및 현황 파악에 활용되어 국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목표 설정, 평가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는 민족의 역사와 생활 양식, 정신이 담겨 있는 전통 기층 생활어와 전통 직업 생활어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11년, 2012년에 조사된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9〉 민족 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민족 생활어 조사(4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및 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 구축	해초류(제주도 동부 우도), 명태잡이에서 덕장까지(동해안 북부 강릉), 자염(서해안 중부 태안), 돌살, 김 양식(남해안 서남부 해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동·서·남해 및 제주도 공통)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2년 민족 생활어 조사(4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및 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 구축	추자도 고기잡이(제주도 근해 추자도),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동해 근해 울릉도), 서해 근해의 어로 생활(서해 근해 외연도), 채 낚기, 숨어들이(남해 근해 욱지도, 가덕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동·서·남해 근해 섬 및 제주도 근해 섬 공통)

지역어 조사는 국내 권역별 지역어와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 3-10〉 지역어 조사 실적('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8권역)	8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어 어휘·음운·문법 조사 및 9개 지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발간
2011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3지점)	3지점(중국 지린성 양수진, 무주촌, 영길현) 지역어 어휘·음운·문법 조사 및 1지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발간
2012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9권역)	9개 권역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지점씩 지역어 자료 추가 전사·대역 및 8지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원고 집필
2012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1지점)	1지점(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지역어 자료 추가 전사·대역 및 1지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원고 집필

지역어 조사 결과는 음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데, 음성 자료를 분절하여 일부 단어는 각 지역의 방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어를 조사·전사하기만 해서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언어 자료 겸 민족 문화 자료로 널리 활용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 2)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를 집대성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 대표 사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단어들이 있으며, 해마다 새로 생겨 널리 사용되는 신어와 전문어를 검토하여 표제어로 올려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검색 서비스의 강화로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으로 거듭나야만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는 계열적 미등재어 등을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6,400여 항목에 대해 사전의 내용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언어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생활 용어나 새로 생긴 전문어 등 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를 검토하여 사회상과 더불어 새로 생긴 말을 등재함으로써 사회 및 언어 변화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는 법률, 기관명, 도로명 등 각종 사전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다.

### 3)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은 국어 정보 자원, 한글 관련 문화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국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과제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국어 정보 자원의 품질 제고와 활용 극대화, ‘디지털 한글박물관’ 사이트 확충 운영,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등이 있다.

### 4)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과제는 국어 자료의 시대별 현황을 파악·구축·관리하여 국어 문화유산의 항구적 보존과 한글, 국어의 문화적 가치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과제의 세부 목표를 훈민정음을 비롯한 한글 문화유산의 종합 정비 및 전 세계 보급, 고전 자료의 판각, 복원 등을 통한 우리말의 역사 및 생활 문화적 가치 증대, 다양한 매체별 구축으로 우리말 자료의 보전과 접근성 제고, 우리말 변천을 보여주는 우리말 역사 정보 구축 토대 마련,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언어 경관 조성으로 도시 환경 정비, 아름다운 디자인의 한글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및 세계화에 두고 '11년~'12년에는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어 교과서 특별전, 한글 문헌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있는 문화로 만들고, 한글을 문화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

한글 글꼴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개최된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에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70여 개의 글꼴 작품들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2011년에는 47작품을 시상하였고, 2012년에는 41작품을 시상하였다.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은 인쇄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그 외의 환경에도 잘 어울리는 글꼴을 공모함으로써, 한글 산업화에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5)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계간 『새국어생활』을 연중 4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어 관련 주요 일지와 논저 목록, 분야별 연구 동향을 담은 국어 연감을 해마다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국립국어원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국외에 한국과 한국어를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역시 4개 언어로 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11년 1월에는 『국립국어원 20년사』를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상에서는 소식지 『십표, 마침표』를 제작하여 국민들이 국어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 20여 개의 기사편지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연 12회). 특히, '11년 10월에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 함께 누리다'라는 제목의 호외 형식의 신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성과물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국어 정책의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각종 보도자료 수시 배포는 물론 해외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sup>21)</sup>, 국제학술대회 개최(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12년)도 꾸준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국립국어원 견학 방문, 직업 체험 등의 요청에 대응하여 홍보 활동(전시물 설명, 홍보 영상 방영, 국어 정

21) 국어 정책의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각종 보도 자료를 수시로 배포하였으며, 중국(중국민족어문 번역국 관계자의 국립국어원 방문, '11년), 프랑스(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 아카데미 프랑세즈, 교육부, 이민국 등, '11년), 영국(런던 언어 박람회 및 '런던대학교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학 대학'(SOAS) 위기 언어 계획 방문, '11년) 등 해외 기관과 교류하였다.

보 활용법 강연, 자료실 및 국어생활종합상담실 등 소개)을 떠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의 언어적 상황에서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언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기관이 국립국어원을 방문하는 일, 그리고 각국 언어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일은 각국의 언어 정책의 실태를 알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언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토대를 마련하는 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외국의 언어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기관지 『새국어생활』에 세계의 언어 정책 고정란<sup>22)</sup>을 마련한 일도 언어정책의 발전과 국제 정보 교류에 매우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어운동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역시 국어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등 관련 단체의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말글 지킴이 선정,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한글날 기념 온겨레 한말글 이름 큰 잔치 대회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 대회,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 집현전 학술대회 개최 등도 지원하였다.

### 제3절 언어 정책 기반 조성파 국어 능력 향상

#### 1. 추진 배경

국가의 언어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올바른 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 『국어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국어 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22) 국립국어원의 계간지 『새국어생활』에 아일랜드(‘11년 봄호), 헝가리(‘11년 여름호), 루마니아(‘11년 가을호), 슬로베니아(‘11년 겨울호), 베트남(‘12년 봄호), 미국(‘12년 여름호), 스위스(‘12년 가을호), 말레이시아(‘12년 겨울호)의 언어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원고를 게재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 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②).

국어기본법은 이러한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장(제4장)에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제22조), 국어 능력의 검정(제23조), 국어문화원의 지정(제24조) 등 각각의 조항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정책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실행하기 위해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2011)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 2016)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주요 목표별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국가의 언어정책은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려 정책이 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정책의 핵심은 추진 계획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그리고 정책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을 위해 네 가지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어기본법은 국가 언어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 법령 정비를 통해 각종 제도를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

둘째는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 체제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어 정책은 법률 적용 중심의 강제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다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언어 표준화의 핵심인 어문 규범을 효과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어문 규범의 일관된 적용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규범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국민들의 실질적인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언어 자원 표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 전통에서 형



성된 언어 자원(지역어, 민족 생활어 등)을 국어 생활에서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한자의 표준음, 표준 자형 등의 정비 작업은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나.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남북 관계는 정치 변화에 따라 경색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남북 언어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는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언어 교류는 남북 언어 사전 편찬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더라도 학술 대회 등의 간접 교류를 통한 언어 동질성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도 구축하여 폭넓은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이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언어 정책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한국어를 널리 알리고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정책이나 행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다.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능동적인 언어정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언어소통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언어 사용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수화나 점자를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소외 계층의 언어소통 문제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 맞는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 라.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국제화와 지식 정보화가 강화될수록 국민 개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흐름에 맞추어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국어 순화 사업을 새로운 시대 환경 변화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 기관의 공공언어의 순화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접 연계되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 밖에 대중매체 언어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격 비하어나 비속어의 남용, 외국어 남용, 언어 파괴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문제는 매체 스스로의 정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정책과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급속한 시대 변화는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용어는 이제 특정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자료 구축을 통해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마.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공공기관의 공문서, 보도 자료 등에 나타나는 행정용어,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이들 용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 개선에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등과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식과 절차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바. 교과서, 법령문의 감수 제도 정착

국민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또 다른 분야는 교과서와 각종 법령문이다. 교과서는 각 교과목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규범서 구실을 하므로 학생들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법령문도 각종 행정과 연계된 국민들의 생활 권익과 연계되고 국가의 공식 문서인 만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어문 규범과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범의 보급 못지않게, 국어 능력 검정시험 제도에 의한 국어 능력 신장과 국립국어원의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이나 전국 국어문화원의 국어상담실 운영과 같은 국어 상담 서비스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어 능력 검정시험 제도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의적 언어생활 정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입사, 승진, 입학시험 등과 연계시켜 시험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국어 능력 향상의 기초가 되는 어휘 능력 향상은 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선정 등을 통해 교수·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지역별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성과가 매우 의미있게 나타남에 따라 국어 문화 선도 기관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국의 국어문화원은 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국민의 의식을 높이는 거점 기관이 되어 공공언어 개선 사업, 지역어 조사 및 보존 사업 등을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국어 문화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아.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국어 정책과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어 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국어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국어 정책 홍보 맞춤형서비스 체제 구축, 국어생활 기획 총서 발간, 국어 운동 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핵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어 운동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국어 진흥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등의 공공언어 개선 정책과 민간의 국어 사랑 운동이 결합되어 올바른 국어 사용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인 분위기 속에 한글 주간 행사와 같은 기획 행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이어질 때 한글과 우리말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문화융성의 토

대도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에 앞장서는 사회 분위기를 굳건하게 조성할 때, 국내에서 국어가 홀대받고 외국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기가 이는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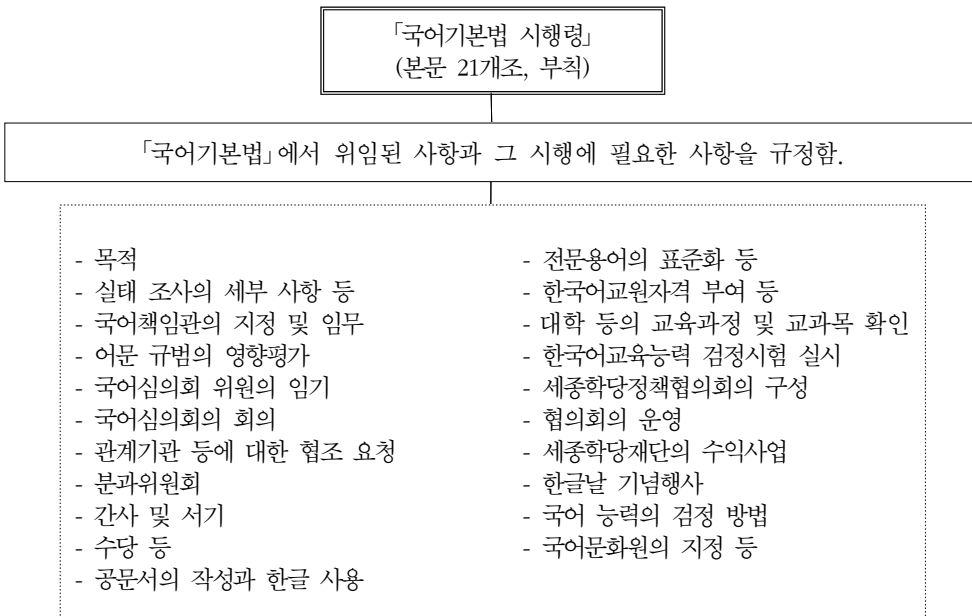
## 2. 추진 실적

### 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국민 개개인이 국어를 바르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였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실천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은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구성 체계이다.

〈표 3-11〉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구성 체계



'11년 1월 24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10년 12월 29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11년 6월 30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시행함으로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끝냈다. 그리고 '11년 8월에 국회에 국어 발전 기본계획 연차별 결과보고서인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국어 발전 기본계획 연차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 고시의 정비를 국어기본법상 각종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2〉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분 류	조 항	주요 내용
•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제2조	- 「국어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함. -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어문 규범의 영향평가	제4조	- 어문 규범 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어문 규범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대학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제5조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함.
	제6조	- 국어심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 공문서 작성 시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2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제13조	-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의 자격 등급 및 기준 등을 정함.
•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13조의2	-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등의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등에 대한 적합여부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2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국어 능력의 검정 방법	제18조	- 국어 능력 검정 분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국어문화원의 지정	제19조	- 국어문화원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 체제 운영 활성화

국어 정책은 단순히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지 않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언어 현실의 변화상을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어 심의회의 분과 전문소위원회',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회의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국어심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심의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09년 10월 11일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11년 9월 26일 심의회를 개편하고 각 분과위원을 선임한 후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전문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세부 운영 지침은 '11년 2월 23일에 제정·시행하여 전문용어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준어와 외래어의 심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한 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회차별 심의 확정안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어에 관한 게시글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국어 정책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를 위해 '어문 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어문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비된 어문 규범의 효과적인 보급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11년 11월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11년 8월 문장부호 지침서 연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어문 규범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신규 외래어 표기 용례 489건을 포함하여 56,000여 항목의 외래어 표기 용례 서비스를 하였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통해서도 어문 규정 관련 강의를 제공하여 한글 맞춤법 20차시, 표준어 규정 13차시, 외래어 표기법 8차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차시, 띄어쓰기 12차시, 생활 속 어문 규범 15차시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문 규범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전화 56,928건, 온라인 16,394건, 트위터(2011. 9. 1. 개통) 508건을 상담하였다.

'11년 8월 31일에는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39항목(짜장면, 맨날 등)을 발표하는 등 시대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규범의 생활 밀착성 및 접근성을 높임으

로써 정책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외교부, 기상청 등의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등의 어문 규범 관련 감수 및 조언을 강화하여 어문 규범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외래어심의회 본회의 및 실무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외래어 표기 용례를 포함하여 56,000여 항목의 외래어 표기 용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가나다전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의’, ‘트위터를 통한 국어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 4) 언어 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국어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한자의 표준음, 표준 자형, 표준 새김 등을 정비하고 제정한 성과가 있으나, 옛 한글, 이두, 구결 등의 정비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옛 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의 자모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작업을 하였고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기술형식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옛 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작업을 위해 '11년~'12년에 언어 자원 표준화(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3개 분과 위원회(국내, 국제)를 지원하고 이에 참여하였으며, 국제 언어자원 관리 분과(ISO-TC37/SC4 위원회)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기술 형식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 나.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직접적인 남북 언어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남북 공동 국제학술 대회는 2007년 중국 연길에서 제7차 대회가 개최된 이후 중단되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의 남북 교류 또한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는 독자적으로 사전 편찬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 언어 교류는 단순히 언어 교류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화를 극복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정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외 학회나 학자의 교류를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 언어 교류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 언어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언어 동질성 회복과 남북 언어 통합 기반 조성을 모색하였다.

2009년 10월 20일부터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과 한국학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고, 2010년 12월 28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사카에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린 바 있다. 남북 간 학술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3국에서 재외 동포 언어 전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남북한과 재외 동포를 아우르는 언어 통합의 문제를 모색한 것이다. 2011년 3월에는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민현식)라는 논문 외 3편의 발표 논문과 종합 토론 자료를 묶어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간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 남북 언어 통합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기 위해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라는 주제로 2011년 11월 2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남북 언어 통합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2011년의 이 학술 대회는 체제 분단과 통합을 경험했거나 체제 통합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한국, 중국, 베트남, 타이완, 마카오, 미국)의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2)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여 전 세계의 언어정책 동향과 연구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국가 언어정책을 개발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어정책기관 방문 및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 언어 정책 기관 방문('11. 9.), 영국 런던 언어박람회 및 '런던대학교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학 대학(SOAS)' 위기 언어 계획 방문('11. 10.), 중국민족어문번역국 관계자의 국립국어원 방문('11. 9.) 등을 통해 언어정책에 관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연대를 이루었다.

국립국어원이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세계 유수의 언어



정책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한국어를 널리 알리고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처럼 자국어의 가치 보존을 중시하는 정책적 사례는 우리나라의 언어 보존 및 발전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언어 박람회 및 위기 언어 계획에 대해 직접 교류하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협력망을 구축하였다. 더욱이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서 국어원을 방문한 것은 그동안 국제 협력망을 구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다.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 배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언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점자, 수화 등 특수 언어를 체계화하고 이의 보급을 확대하여 언어 소외 계층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준수화의 확립과 보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수화 사용자에게 대한 표준수화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일반인과 수화 사용자의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인에게도 표준수화의 존재를 홍보하고 희망자에게 표준수화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일상생활 수화 표준화, 경제 용어 수화 표준화 등 표준수화를 확립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온라인 점자 강의(수학, 과학, 컴퓨터) 개발, 유니코드 점자 규정 마련, 점자콜센터 운영 등 점자와 관련하여 계획된 추진 과업을 모두 달성하였다.

디지털 기반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발한 각종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고,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유니코드 점자 규정 마련 등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여 정책 여건 및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화 교재 1권을 개발하고 온라인 점자 강의 콘텐츠 1과목을 개발하려던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특수 언어의 표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되어 온 장애인의 특수 언어에 대하여 언어적 전문성을 가지고 표준·체계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결과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온라인 점자 학습 사이트 운영, 점자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결과물이 널리 제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곧 표준수

화를 확립하고 보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판, 통신, 학습 방식 등의 사회 제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 라.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1)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국어 사용 환경의 오염과 왜곡이 그 정도를 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대책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국어 순화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우리말을 중시하는 국어 의식을 고양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2년까지 이루어졌던 전문가 중심의 일방향적, 폐쇄적 국어 순화 사업은 순화어 중 일부가 일반인의 언어 의식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의 쌍방향적 국어 순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티)' 누리집<sup>23)</sup> 운영을 기반으로 한 국민 결정 방식이다. 2009년 6월부터는 순화 대상어나 순화어를 더 신중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 1개(연간 26개)의 순화어를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sup>24)</sup> 그러다가 2011년 12월부터 순화어를 확정할 때 문인, 언론인, 학자, 번역가, 국어심의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말다듬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최종 순화어까지 국민이 결정하던 방식에서 순화 대상어를 제안하거나 순화어 후보를 제안하는 데까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일부 다듬은 말(순화어)이 특정 사용 맥락에 맞지 않거나 국민 다수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23) 2013년 3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주소가 <http://www.malteo.net>에서 <http://malteo.korean.go.kr>로 변경되었다.

24) 2011년에는 격주로 1개씩, 2012년부터는 매달 1개씩의 순화어를 발표하였다. 마치 '이 달의 순화어'처럼 언중들에게 순화어를 각인시킬 시간적 여유를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적은 수의 순화어를 발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매달 2~4개씩 관련성 있는 순화어를 발표하고 있다(근로빈곤층[←워킹푸어],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등). 이는 밀려드는 외국어를 좀 더 신속하게 다듬고, 낱말발처럼 관련성 있는 순화 대상어들을 모아 한꺼번에 순화함으로써 순화어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말다듬기위원회의 위원들은 평소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우리말을 더 쉽고 윤택하게 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말다듬기위원들 중 다수는 신문 기고, 집필 등을 통해 다듬은 말을 널리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2011. 12.)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언론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 다듬은 말(순화어) 중 실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말들(예: 각자내기(←더치페이),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대리주차(←발레파킹), 조리법(←레시피) 등 61개)에 대해 순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예문 등을 제시한 자료집이다. 이 순화어들은 의미 전달력(또는 개념 환기력), 단어의 구성, 간결성 등의 면에서 볼 때 비교적 잘 만들어져서, 국민의 국어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만한 말들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2년부터 국어문화학교 수강생들에게 다듬은 말이 인쇄된 ‘서류 끼우개’(페이퍼 홀더)를 선물로 증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듬은 말을 더 간편하게 찾아보고 친숙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다듬은 말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 및 기획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연합뉴스의 원문배포서비스를 통해 14개 언론사 및 종합정보사이트(포털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순화 대상어를 선정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중요도 및 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선정하였고, 순화어를 선정할 때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객관적·합리적 선정을 위해서 누리꾼 의견 외에도 국립국어원 구성원, 말다듬기위원회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표 3-13〉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선정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목록('11년~'12년)

순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및 참고 사항	분야	발표일
스키니진	skinny jean	맵시청바지	허리부터 발목까지 다리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	의류/패션	2011. 01. 04.
론칭쇼	launching show	신제품 발표회	어떤 제품이나 상표의 공식적인 출시를 알리는 행사를 이르는 말	정보 통신/사회	2011. 01. 18.

순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및 참고 사항	분야	발표일
블랙 컨슈머	black consumer	악덕 소비자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	사회/식품	2011. 02. 01.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관광취업	국가 간 비자 협정을 통해 상대국 청소년(통상 만 18~30세)들이 자유롭게 취업하며 관광이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사회/관광	2011. 02. 15.
큐아르코드 (QR코드)	QR Code, Quick Response Code	정보무늬	격자 무늬 그림으로, 많은 정보를 나타내는 네모 모양의 바코드	정보 통신	2011. 03. 01.
로하스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친환경살이	'건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 방식'을 이르는 말	환경	2011. 03. 15.
에코드라이브(에코드라이빙)	eco-drive, eco-driving	친환경운전	'친환경, 경제성, 안전을 고려한 운전 및 그러한 운전 방식'을 이르는 말	환경	2011. 03. 29.
치킨게임	chicken game	끝장승부	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양보 없이 극한까지 몰고 가는 상황	사회/정치	2011. 04. 12.
러브샷	love shot	사랑건배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엇갈리게 걸고 건배하는 일을 이르는 말 ※ '사랑건배' 외에 '사랑맞잔', '사랑축배', '팔걸이건배', '잉꼬건배'도 순화어 후보로 제안된 바 있음.	사회	2011. 04. 26.
울킬	all kill	쌩쌩이	연예, 게임, 스포츠 등에서 '석권(席捲, 席捲)', '전승(全勝)' 등을 이르는 말	연예/체육/게임	2011. 05. 10.
오버페이스(하다)	over pace	무리(하다)	운동 경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능력이나 분수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	체육/사회	2011. 05. 24.
바리스타	Barista	커피전문가	커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즉석에서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	사회/직업	2011. 06. 07.
포커페이스	poker face	무표정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을 이르는 말 ※ '무표정' 외에 '기면얼굴', '감춘낫', '시치미얼굴'도 순화어 후보로 제안된 바 있음.	사회	2011. 06. 21.
롤모델	Role model	본보기상	존경하며 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또는 자기의 직업, 업무, 임무, 역할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이르는 말	사회	2011. 07. 05.

순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및 참고 사항	분야	발표일
풀옵션	full option	모두갖춤	승용차, 주택, 여행 상품, 장비 따위에 추가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갖춘 것을 이르는 말	물건	2011. 07. 19.
코스프레 {코스튬 플레이}	コスプレ, costume play	분장놀이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 하는 것	사회/패션	2011. 08. 02.
플래시몹	flash mob	번개모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전자우편, 휴대 전화 등의 연락을 통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놀이나 행동을 취하고 흩어지는 것	사회	2011. 08. 16.
시스루	see-through	비침옷	속이 비치는 얇은 옷. '시스루패션', '시스루룩'(얇고 비치는 소재로 만드는 양장 스타일의 하나)과 같은 용어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함.	의류/패션	2011. 08. 30.
오픈 프라이스제	open price 制	열린가격제	제조 업체가 결정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제도.	사회	2011. 09. 14.
트라우마	trauma	사고후유 (정신)장애	과거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	사회	2011. 09. 27.
팜 파탈 (잘못된 표기: 팜므 파탈)	femme fatale	매력악녀	남성을 치명적이거나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여자	영화/ 드라마	2011. 10. 25.
싱크로율	synchro率	일치율	어떤 요소와 요소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치율', '완성도', '정확도' 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임. 영화 번역 시 지막과 배우의 목소리가 맞아떨어지는 정도,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 목소리를 따로 입힌 화면에서 목소리와 영상이 맞아떨어지는 정도, 립싱크(입술연기)에서 가수의 입술 움직임과 음성의 일치율을 가리킴.	음악/영화	2011. 11. 08.
인저리타임	injury time	추가시간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각 45분의 정규 시간 이후 주심이 재량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는 시간	체육/축구	2011. 11. 22.
피팅모델	fitting model	맵시도우미	패션, 디자인 분야 따위에서 실제 사람의 착용감, 외관 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살아 있는 마네킹'처럼 본이 되는 의상, 장신구 등을 착용해 보는 일을 하는 사람	사회/직업	2011. 12. 06.

순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및 참고 사항	분야	발표일
리얼 버라이어티	real variety	생생예능	짜인 각본대로만 하지 않고 출연자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대사나 행동이 진행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한 장르	영화/음악/ 드라마	2012. 01. 05.
팔로잉	following	따름벗	트위터에서 내가 따르는 사람(자신이 소식을 받는 어떤 사람)	정보 통신	2012. 02. 06.
팔로어	follower	따림벗	트위터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자신의 소식을 받는 사람)	정보 통신	2012. 02. 06.
스펙	← speci- fication	공인자격	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공인 외국어 성적, 자격증 따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회	2012. 03. 05.
벤치마킹	benchmark- ing	본따르기	경쟁 업체의 경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사의 경영과 생산에 응용하고 따라잡는 경영 전략	사회	2012. 04. 05.
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	앞선사용자	제품이 출시될 때 남들보다 먼저 구입해 사용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	사회/ 정보통신	2012. 05. 07.
모기지론	mortgage loan	미국형 주택담보 대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중에서 특별히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금융	2012. 06. 05.
그린슈머	← green consumer	녹색소비자	녹색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가 합쳐진 말로, 다음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 제품과 유기농 제품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	사회/환경	2012. 07. 03.
캘리그래피	calligraphy	멋글씨 / 멋글씨 예술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칼로스(kállōs, κάλλος, kállōs)'와 '글쓰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그라페(γραφῆ graphḗ)'에서 비롯된 합성어로서, 아름다운 서체를 고안하여 글씨를 쓰는 예술을 뜻함.	예술	2012. 07. 31.
업사이클	upcycle	새활용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행위	사회/환경	2012. 09. 05.
테이크아웃	take out	포장구매 / 포장판매	음식점이나 찻집 따위에서 음식을 사서 밖으로 가져가는 것	사회	2012. 10. 05.
매니페스토	manifesto	참공약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 공약의 정책 목표와 실현 시기, 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정치	2012. 11. 05.

순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의미 및 참고 사항	분야	발표일
웹진	← web + manazine	누리잡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과 '잡지(magazine)'의 합성어로서 '종이책으로 출판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으로만 발간하는 잡지'를 뜻함.	정보통신	2012. 12. 05.

## 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국립국어원은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 대중매체의 저품격 언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중매체 언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제한적인 방식에서 방송이나 언론 등과의 협력망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의 홍보 및 계몽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아나운서연합회, 어문기자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대중매체 언어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간 이루어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 조사(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1.10.)를 통해 신문과 방송 언어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차별적 표현, 저품격 표현에 대해 조사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동시에 그 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막장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비속어, 막말, 무분별한 외국어가 남용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저품격 언어와 차별적 언어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홍보·보급하였다. 또한 부적절한 인터넷 댓글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댓글을 분석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민간 운동을 지원하고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및 저품격 언어의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개선 방안을 공개하여 대중매체 스스로 책임감을 인식하여 품격 있고 공익성 높은 방송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개선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통한 신문과 방송 언어의 차별적 표현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권고 보도자료 발표('11년 6건), 방송 제작 관계자 등 관련자에게 개선 권고 공문 발송('12년 32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11. 10.),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12. 12.),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12. 11.)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언론매체의 언어 관련 프로그램' 내용 감수(연중. KBS 1TV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겨루기' 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문과 방송 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신문 및 방송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바른 신문 언어, 방송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대중매체와의 공조를 통해 품격 있고 공정한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방송 예능프로그램의 저품격어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사회 현상의 변화와 사회 계층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 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전문용어 정비를 산발적, 비연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 의사소통 원활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전문용어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용어 정비를 위한 기반 콘텐츠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과 전문용어 정비와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지원하였다. 전문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지원(감수, 회의 참석)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연 7개 기관 이상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전문용어 목록 검토 및 수정안 제시를 통해 전문용어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잘못된 전문용어의 유통으로 인한 소통의 효율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전문용어 정비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전문용어에 대해 감수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술표준원의 한국 표준 규격(KS) 용어, 국방과학기술원의 국방과학기술 용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통신용어 등의 검토·감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용어 표준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각 기관에 돌아가고, 표준화된 전문용어가 국민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한국 표준 규격(KS)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신규 표준 기술 규격 및 개정 표준 기술 규격에 포함되는 기술 용어를 검토함으로써 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 양상에 대처하였다. 정보통신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용어와 관련해서는 전문 용어 표준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용어를 표준화하고 현재 기술 수준에 맞는 기존 용어를 수정하여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 마.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공공기관의 각종 용어(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기관명, 구호), 보도자료, 안내문, 공고문, 법령·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 등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감수 체계를 운영하였다. 특히 공공언어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언어지원 누리집을 개설하여 지원 요청과 결과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공공언어 개선을 지원하였다.



[그림 3-7]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공공기관에서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과 공공언어지원 누리집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공공언어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 공공 기관의 언어 지원 요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결과에 대해서 공공 기관과의 의사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공공 기관의 언어 개선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공공기관 언어 표현 감수 지원 서비스는 '기관에서 요청하면 감수에 응하는 서비스'인데 '11년~'12년의 감수 실적은 총 617건('11년 185건, '12년 432건)이었다. 행정용어·정책(제도)명·신설 기관(부서)명·구호, 대외 공문·보도자료·안내문·공고문, 법령·계획서·보고서·지침서 등을 주로 감수하였다.

공공기관 상시 점검 및 개선 권고 서비스는 '기관에서 요청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 권고하는 서비스'인데, '11년~'12년의 상시 점검 실적은 총 171건('11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98건, '12년 지식경제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73건)이다. 상시 점검 서비스는 별도의 사전 홍보는 없으며, 개선 권고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업 홍보를 대신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의 점검 전담 인력(1명)이 매일 중앙 부처의 보도자료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권고 이행 여부, 개선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및 상시 점검 체제 운영함으로써 개선된 공공언어가 보급·확산 될 수 있는 관리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주요 행정기관의 공공언어를 매년 진단하고 분석하여 공공언어 사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공공언어 개선 우수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공언어 개선을 잘하는 기관은 더 잘하려는 동기를 유발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4〉 국립국어원의 감수 지원 주요 실적('11년~'12년)

번호	기관	지원 내용
1	기상청	“하늘사랑” 1월호 원고 문안 감수
2	질병관리본부	골다공증 관련 소책자 감수
3	서울시청	역사 문화 유적지 기념 표석 검토
4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학습 활동지 문안 감수
5	국립임실호국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관련 공문 감수
6	문화재청	조선왕릉 정보관 패널 원고 감수
7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방송 문안 감수
8	산림청	철절봉 표지석 안내문 감수
9	여성가족부	이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이 안내문 감수
1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공문 감수
11	청원 국제교육도시연합(AEC) 세계총회팀	워크숍 자료 문안 감수
12	소방방재청	소방 강령 문안 감수
13	우정사업본부	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감수
14	통계청	조사표 문안 감수
1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용어 및 용어 설명 감수
16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안내 사인 감수
17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용어 순화 요청 답변
18	농촌진흥청	농업 용어 감수
19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의사 국가시험 문항 감수
20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 감수

## 바. 교과서, 법령문의 감수 제도 정착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편찬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위탁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포함)의 국정 교과서 감수 요청 및 검인정 교과서 표기·표현 기초조사 참여 요청에 따라, 교과서 감수 및 기초조사를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였다.

교과서 검정 자동화와 선진화 요구에 따라 교과서 표기·표현 검정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필요성과,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를 보완할 교육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요청으로 '교과서 표기·표현 기초 조사 지침(2011. 12.)을 공동 발간하기도 했으며, 교과서 편수 자료 I~IV권(2011. 12.) 전체를 감수한 것을 비롯하여 '11년~'12년에 총 410여 권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감수하였다. 교과서 감수의 양이 '09년~'10년에 1,500여 권에서 '11년~'12년에 410여 권으로 줄어든 것은 교과과정 개편 시기와 맞물린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검인정 교과용 도서가 증가할 전망인바, 관련 인력의 양성·재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 학교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 일부가 검정 교과서나 인정 교과서로 전환되고, 검정 교과서의 상당수가 인정 교과서로 전환되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감수하고 감수 전문가를 지원하며, 국정 교과서 편찬진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을 실시(2011. 10. 20.)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3-15〉 교과서 감수 현황('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국정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초등, 고등, 특수 교과서 50여 종의 어문 규범 감수
2011년 검인정 교과서 표기·표현 기초 조사	•초등, 중등, 고등 교과서 310여 종의 표기·표현 기초 조사
2012년 국정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초등 1·2학년 교과서 26종의 어문 규범 감수
2012년 검인정 교과서 표기·표현 기초 조사	•중등 교과서 25종의 표기·표현 기초 조사

한편,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의 내용 감수 등 국회 법제실, 법제처 등의 법률 용어 순화 요청에 따라 수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법령용어 감수는 2012년까지 제도화되지 못하여 주로 주관기관에서 직접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는데, 2011년과 2012년 동안 방송통신설비 법령, 전기공급 약관, 경찰청 예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약 50건의 법령, 약관, 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2012년 8월 차관회의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제고를 위한 행정용어 다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3/4분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서는 법제처(법제총괄담당관실)와 협조하여 입법예고된 정부 제출 법안의 법령 용어를 검토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 사.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시행 횟수(연 16회)와 응시 인원(2년간 132,321명) 면에서 이전보다 늘어났다. 또한 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곳도 121곳에 이르는 등 꾸준히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험을 시행하는 곳이 민간기관이므로 시험의 시행과 결과에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에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공직 적격성 평가(PSAT)와 함께 공인 시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통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의적 언어생활 정착을 도모하여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즉 검정 시험 개최 횟수를 증가시키고 시험 결과의 활용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양적으로 볼 때 검정 시험 지원이 증가하여 시험 개최 횟수가 연 16회로 증가하였고 검정시험의 내실화와 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시험 기관별 자체 평가

분석(한국방송의 'KBS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을 수행하였다. 또 검정 시험 결과의 활용 증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등 세 종류의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2년간의 평균 응시자 수는 '09년~'10년 7만여 명에서 '11년~'12년 6만 6천여 명으로 약 5.8% 감소하였으나,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경제적 요인이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응시자 수의 감소에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정 시험 결과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110곳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케이비에스(KBS)한국어능력시험 52곳, 국어능력인증시험 45곳,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4곳 등 모두 121곳에서 활용하여 109%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정 시험의 시행 횟수(16회)와 응시 인원('11년 57,353명 → '12년 74,968명)이 늘어났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국어 능력 검정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입사, 승진, 입학시험 등에서 검정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학교 및 기관을 121곳으로 확대하여, 검정 시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에 의해 실시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활용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 2)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활용

국어 능력 향상의 기초가 되는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 및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 개발과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지침을 확정하고 어휘 목록을 확정하였다.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에 유의미한 어휘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각 항목별 어휘 내용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어휘 1,836개를 선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활용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어휘 선정(1,836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및 구축, 어휘 의미 범주 목록 선정 및 어휘 분류, 주제 및 상황 목록 선정 및 어휘 분류, 어휘 정보의 항목 선정 및 구축, 어휘 지도 모형 설계, 어휘 교육 내용 자료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 3)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지역의 국어 문화 선도 기관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확대를 통한 문화 거점화를 추진하였다.

국어문화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어문화원의 운영을 정착시키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어책임관 사업과 국어문화원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를 통해 지역말 겨루기, 어르신 백일장, 이주민 우리말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국어문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국어문화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없는 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정 지원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에 골고루 분포한 국어문화원은 각 지역에서 바른 국어 환경 조성 및 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이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을 함으로써 지역의 국어 문화 발전과 지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 상담을 위한 전국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통해 국어문화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각 지역별로 국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인천광역시의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을 지정함으로써 전국에 총 18개의 국어문화원을 지정하게 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국어문화원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 인접한 광주광역시의 전남대 국어문화원이 전남 지역까지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하여 해외 공공언어 개선 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한글사랑 조례 제정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새터민과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청소년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중학생 대상 황금사전 대회, 대학생 대상 토론 대회와 우리말 경연 대회, 어르신 백일장,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가게 선정 및 시상, 서울말 으뜸 사용자 대회 등 각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어 문화를 확산하였다.

국어책임관 공모 사업과 국어문화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역의 국어책임관 및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국어문화원은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정책명·사업명 등의 언어 사용 진단 및 권고, 공공 언어 쉽게 쓰기 교육,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내외국인 (한)국어 교육,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각종 국어 관련 대회 개최, 청소년 언어 사용 개선,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 집중형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의 요구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어르신,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대회를 통하여 바른 국어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어에 대한 관심을 드높였다.

지역의 국어책임관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각종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고, 민원 서식을 개선하는 등 공공언어 사용 문화를 높이고 지역어 보존과 지역 언어문화 자료 수집, 지역별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시상, 방언 경연 대회 등을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국어 문화의 가치를 높였다.

#### 아.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국어 정책 홍보 다양화, 홍보 자료 보급 체계 개선을 통한 국어 문화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사업의 수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쌍방향 정책 정보 제공으로 정책의 품질 향상을 기하였다.

국어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어 운동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공공언어 환경 개선,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등의



국어 사랑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때보다 올바른 국어 사용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을 더 촉진할 수 있다. 한글 우수성 선양 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는 일과 국경일인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1) 국어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새국어생활』, 온라인 소식지(『쉽표 마침표』), 『국어 연감』, 홍보 책자(『국립국어원 20년사』),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새국어생활』을 연 4회 발간하고,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를 연 12회 발간하여 6만여 곳에 발송하는 등의 작업이 연중 꾸준히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계간지 『새국어생활』과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는 국어 관련 교양 지식을 널리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새국어생활』에 특집 주제를 국어 정책 방향에 맞게 선정한 것이나 국어에 관심을 갖는 독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대학 학과,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과 희망하는 개인에게 제공한 것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글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를 매달 발간하여 국민들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은 국민과 연구자에게 국어 시책과 국어 문화,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특히 전자우편 제공 서비스를 통해 60,000여 곳에 직접 배포하여 자료 접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온라인 소식지를 기존의 전자책 방식에서 에이치티엠엘(HTML)<sup>25)</sup> 방식으로 전환하여 독자가 읽기 쉽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기사의 수를 7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국어 정보에 관한 내용은 물론 문화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 사건을 소개하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독자의 시선을 오래 끌 수 있는

25) 에이치티엠엘(HTML):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표시가 있는 글을 선택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 주거나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젊은 층의 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국어 연감』을 기존의 책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내용 면에서 국어원의 주요 일지, 국어학 분야별 연구 동향, 논저 목록을 수록함으로써 국어 연구자에게는 국어 연구의 동향 및 논저 목록을 제공하여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미래의 국어 연구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국어연감 2011』, 『국어연감 2012』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동안의 분야별 연구 실적과 국어, 한국어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어연감 2011』에서 지난 4년간(2008~2010)의 국어 연구 실적을 검토한 ‘숫자로 살펴본 국어 연구의 동향’을 게재하여 국어 연구의 현황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국어 연감』은 국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교사, 교수, 언론출판인, 문인, 학생 등)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국어원 20년사』(2011. 1.)를 발간한 것도 지난 20년간 국립국어원이 이루어 온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 2) 국어 정책 홍보 맞춤형서비스 체제 구축

국내 언론과 학계에 국어 정책과 활동을 홍보하고, 해외의 국어 및 언어 연구 기관을 방문하여 국제적 정보 교류 및 홍보 활동을 하고, 한국어 및 한글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국내 언론의 국립국어원 및 국어 정책 관련 보도 동향을 분석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일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화된 매체 환경에 부응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좀 더 편리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를 시행하였다. 일방적인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홍보 업무를 어문연구팀이 전담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정책 여건에 탄력적·효과적으로 대응한 조치로 생각된다.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의 제작 방식을 전자책에서 에이치티엠엘(HTML)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국어원 누리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어에 관심을 갖는 기관과 개인

이 증가하도록 한 것도 정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어원에 대한 언론 보도 동향을 매주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언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국립국어원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11. 1. 19.)를 개최하여 관련 기사를 통한 홍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배포하여 우리말 정보와 국립국어원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국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2011년에 시범 시행하고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 3) 국어 생활 기획 총서 발간

국어 생활 기획서로서 지역어 구술 자료 기획 총서를 발행하여 국내의 지역어 자료와 해외의 한국어 자료의 축적은 물론 현재의 언어문화, 생활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급격히 소멸되어 가는 지역어 구술 자료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어 생활 총서로 발간하여, 국립국어원의 사업 성과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한 것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의 언어문화 및 생활문화 자료를 축적한 것은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의 정신을 잘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표준어를 벗어나 지역어와 지역 문화에 대해 관심을 높였으며 관련 연구자에게는 생생한 언어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그 활용도를 높였다. 또, 지역어 자료 총서는 현재의 살아 있는 언어문화 자료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국어 생활 기획 총서 발간은 10권 발간(국내 지역 9권, 국외 지역 1권)을 목표로 하여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10권을 발간함으로써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처럼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를 출판하여 국립국어원의 사업 성과를 일반 서점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열악한 지원 상황에서도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를 출판한 것은 의미가 있는 실적이며, 이는 살

아있는 국어 자료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생활문화 자원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라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내용 구성에서도 지역어와 표준어의 대역과 함께 찾아보기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발간은 지역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어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지역어 구술 발화 자료는 실제 음성 자료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그냥 보존하는 것보다 이를 텍스트화해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일도 중요하므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많은 자료를 텍스트화하고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자료는 언어 자료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언어문화 나아가 현재의 생활문화 자료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구술 발화 자료 전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이런 자료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여러 곳의 공공 도서관 및 일반 도서관에도 많이 보급하여 국민들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어뿐 아니라 국어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총서의 기획을 더욱 다양화·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4) 국어 운동 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국어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국어 운동 단체를 지원하였다. 한글날을 계기로 일회적인 기획행사성(이벤트성) 사업보다는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 단체들이 자립적인 활동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협력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어 운동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국어 운동 단체의 공연, 전시, 학술 행사 등 한글날 기념 행사를 집중 지원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높였다.

국어 운동 단체의 지원은 각 단체의 특성과 각 단체의 사업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국어 운동 단체인 더플랜티 코리아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 확산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국어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어 운동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등 19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 글과 국어의 발전에 힘쓰는 민간단체의 노력을 활성화했다. 한글 글꼴 디자인 개발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수행해 왔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국어 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지는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국어 발전 운동 전개에 기여하였다.

## 제4절

###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 1. 추진 배경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재외 동포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한류의 확산,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 외국인 주민의 수(13년 1월 기준 약 144만 명,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재외 동포의 수(11년 9월 기준 약 730만 명,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도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의 언어 사용 계층이 다양화되고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도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원주의 언어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학당은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류한다는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세종학당에서는 표준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세종 한국어』)를 지침으로 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을 실시하는 표준화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각 세종학당의 현지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글로벌라이제이션 glocalization)을 취하여야 한다. 즉, 언어권별, 국가별로 현지 교원·학회·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재 내용에 현지의 문화와 관심사가 반영되는 '맞춤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 세종학당인 '누리-세종학당'은 오프라인 세종학당이 지니는 제약을 극복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접속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누리-세종학당이 연계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원격교육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방송통신대학도 전국 거점 도시에 지역 학습관을 두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기관과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요구된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 하면 바로 '세종학당'을 떠올릴 수 있고, 한국어 배우기에 가장 좋은 누리집(사이트) 하면 바로 '누리-세종학당'을 떠올릴 수 있도록 '세종학당'과 '누리-세종학당'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교육 콘텐츠들의 표준화와 현지화가 동시에 이뤄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제의 주요 추진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현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세종학당'을 단계별·연차별로 설치
-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 기관을 통한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공급
-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육성 및 자격 관리
- 지역별 교육 기관 및 교육 전문가 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
-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 가.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최근 한국어 학습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 수요의 다변화에는 한류의 확산, 국제결혼의 증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고용 허가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상승 작용을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지로 확장되고 있어 한국어 학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유학생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도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외 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학습자 유형이 다양화되었고 학습자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적절한 한국어 언어문화를 보급·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전략이 필요하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수요에 따라 한국어 교육 통합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이 일원화·균질화되지 못하고 교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어 교육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현지 특화형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확대하여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지역별 한국어 교육기관 간의 교류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한국어 세계화 추진과 인적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아울러 한국어 학습자 및 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한국어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는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민관 간의 상승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

한류의 확산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 사전의 수요도 급증했다. 그러나 사전 시장이 주요 언어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동남아 등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 공급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다국어 학습 사전 편찬이 필요하다. 인쇄 사전 출판에 따르는 비용이나 수익성, 제작 기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온라인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외국어 학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사전을 웹사전 형태로 개발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전편찬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현행 한국어 사전의 대표형인 『표준국어대사전』을 토대로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이나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웹사전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국어 관련 사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조율함으로써 각 사전 편찬 사업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다.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세계화된 지구적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언어적 소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외국인 주민 총계는 144만여 명(남 741,372명, 여 704,259명, 합계 1,445,63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75만여 명(751,981명)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520,906명(남 372,671명, 여 148,235명)이고, 국제결혼 이주민이 147,591명(남 20,887명, 여 126,704명)이며, 유학생이 83,484명(남 40,099명, 여 43,385명)이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은 24,608명(남 7,579명, 여 17,029명)이다<sup>26)</sup>.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변화되어 언어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

26) 전국 외국인 주민 통계의 출처는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통권 제15호, 안전행정부 정보통계담당관실 2013년 6월 발행)의 290쪽 '5-1-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이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통계의 출처는 통일부 누리집의 '통계자료·북한 이탈 주민 정책' 중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이다. 2012년 12월까지의 북한 이탈 주민 합계는 24,608명이고, 2013년 7월까지의 잠정 합계는 25,431명(남 7,775명, 여, 17,656명)이다.



착하고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본인의 한국 정착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 자녀 출산에 따른 이차적 언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어복지 차원의 언어 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 지원을 통해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추진 실적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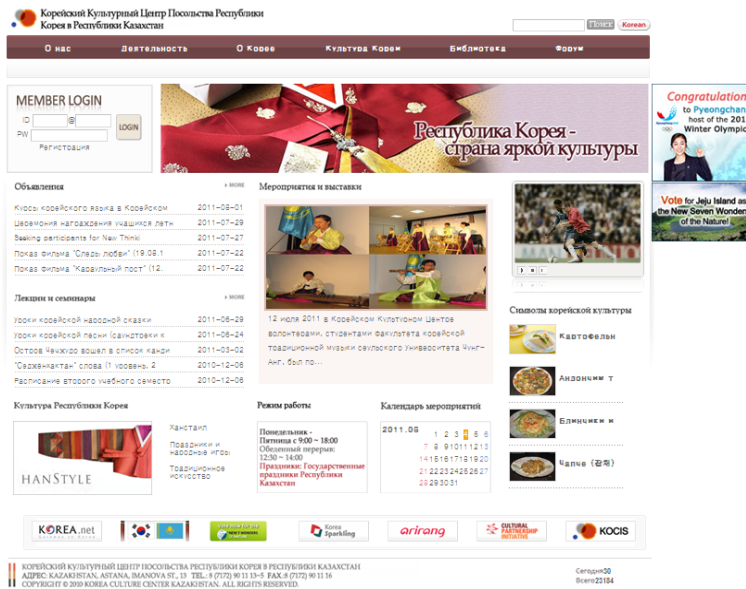
#### 1) 세종학당의 설치 및 세종학당재단 출범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은 국어기본법 제19조 2항에 따라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 세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변화된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재외 동포 대상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 대상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시설이 취약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와 요청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세종학당을 설치하여 왔다. 특히 국내외 한국어 보급의 표준화·현지화를 위하여 예산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설립 방식 외에도 기존의 한국문화원과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도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여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3-8] 베트남 호찌민 세종학당 누리집



[그림 3-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세종학당 누리집

세종학당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43개국 90개소<sup>27)</sup>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그림 3-10], <표 3-16>과 같다.



[그림 3-10] 국가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12년 12월)

<표 3-16>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12년 12월)

대륙	대학 세종학당 (개소 수)	소계 (68개소)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개소 수)	소계 (22개소)	합계 (90개소)
아시아	중국(16), 베트남(4), 몽골(3), 태국(3), 터키(3), 필리핀(3), 스리랑카(2), 우즈베키스탄(2), 카자흐스탄(2), 네팔(1), 대만(1), 라오스(1), 방글라데시(1), 인도네시아(1), 캄보디아(1), 타지키스탄(1), 파키스탄(1), 아랍 에미리트(1)	47	일본(2), 중국(2), 베트남(1), 인도네시아(1), 카자흐스탄(1), 터키(1), 필리핀(1)	9	56개소
유럽	독일(2), 러시아(2), 벨기에(1), 영국(1),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프랑스(1),	9	독일(1), 러시아(1), 스페인(1), 영국(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7	16개소
북 아메리카	미국(2), 캐나다(1), 멕시코(1)	4	미국(2), 멕시코(1),	3	7개소
남 아메리카	칠레(1), 브라질(1), 콜롬비아(1), 페루(1)	4	아르헨티나(1)	1	5개소
아프리카	알제리(1), 짐바브웨(1), 케냐(1)	3	나이지리아(1)	1	4개소
오세아니아	뉴질랜드(1)	1	호주(1)	1	2개소

27) 세종학당은 2013년 7월 4일 기준으로는 전 세계 51개국 11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연말까지는 1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기준 36개국 68개소에 이르는 일반 세종학당(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제외)의 설립 현황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국가별 일반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12년 12월)

연번	대륙	국가	설립 기관	소계
1	북 아메리카 (4개소)	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1
2		미국	뉴욕세종학당(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	2
3			샌프란시스코세종학당 (캘리포니아국제문화대학)	
4		멕시코	테픽세종학당(나아리트자치대학교)	1
5	남 아메리카 (4개소)	칠레	산티아고세종학당(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아시아태평양센터)	1
6		브라질	상레오폴두세종학당(유니시노스대학교-배재대학교)	1
7		콜롬비아	보고타세종학당(아시아-이베로문화재단콜롬비아경찰어학문화센터)	1
8		페루	리마세종학당(페루가톨릭대학교-충남대학교)	1
9	아시아 (47개소)	네팔	카트만두세종학당(세종한국언어교육원-한국산업인력공단)	1
10		라오스	루앙프라방세종학당(수퍼누봉국립대학교-(사)비비비코리아(BBBK OREA))	1
11		몽골	울란바토르1세종학당(울란바토르대학교)	3
12			울란바토르2세종학당(몽골국립대학교-공주대학교)	
13			울란바토르3세종학당(국립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14		방글라데시	다카세종학당(방글라데시 한국기술훈련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1
15		베트남	달랏세종학당(달랏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4
16			하노이1세종학당(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7			하노이2세종학당(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18			호찌민세종학당(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조선대학교)	
19		스리랑카	콜롬보1세종학당(한글사랑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2
20			콜롬보2세종학당(국립콜롬보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21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세종학당(자이드대학교)	1
2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세종학당(사마르칸트국립외국어대학교)	2
23			타슈켄트세종학당(타슈켄트한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24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세종학당(무함마디아부톤대학교-경북대학교)	1
25		중국	베이징세종학당(북경외국어대학교 배훈학원)	16
26			서안세종학당(서안외국어대학교 신서북배훈학원)	
27			양저우세종학당(양주대학교-영남대학교)	
28			연변1세종학당(연변과학기술대학교)	
29	연변2세종학당(연변대학교)			

연번	대륙	국가	설립 기관	소계		
30	아시아 (47개소)		엔타이세종학당(루똥대학교-남부대학교)			
31			우한세종학당(화중과학기술대학교)			
32			웨이하이세종학당(산둥대학교위해분교)			
33			지난세종학당(산둥사범대학교-인하대학교)			
34			충칭세종학당(쓰촨(四川)외국어대학교-우송대학교)			
35			치치하얼세종학당(치치하얼대학교-동신대학교)			
36			칭다오세종학당(중국해양대학교)			
37			톈진세종학당(톈진외국어대학교)			
38			하얼빈세종학당(하얼빈사범대학교대진한국센터)			
39			항저우세종학당(저장(浙江)관광대학-호남대학교)			
40			후허하오터세종학당(세종언어문화활동유한공사)			
41			카자흐스탄		탈디코르간세종학당(제티수국립대학교-알마티한국교육원)	2
42					아스타나세종학당(유라시아국립대학교-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	
43	캄보디아	프놈펜세종학당(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1			
44	타이완	가오슝세종학당(고웅시한인회)	1			
45	타지키스탄	두산베세종학당(타지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계명대학교)	1			
46	태국	마하사라캄세종학당(마하사라캄국립대학교-인제대학교)	3			
47		방콕세종학당(탐마 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48		콘깸세종학당(콘깸대학교-충남대학교)				
49	터키	앙카라세종학당(앙카라대학교탁심투메르-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3			
50		이스탄불세종학당(앙카라대학교투날르투메르-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51		이즈밀세종학당(앙카라대학교이즈밀투메르-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52	파키스탄	이슬라바미드세종학당(국립외국어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1			
53	필리핀	카인타세종학당(한국쉐마학교)	3			
54		퀘존세종학당(베네딕틴국제학교국제어학센터)				
55		파사이세종학당(정인한국어재단-이화여대)				
56	아프리카 (3개소)	알제리	알제세종학당(알제2대학교-배재대학교)	1		
57		짐바브웨	무타레세종학당(아프리카대학교-배재대학교)	1		
58		케냐	나이로비세종학당(아프리카사랑모임)	1		
59	오세아니아 (1개소)	뉴질랜드	오클랜드세종학당(에덴즈대학)	1		
60	유럽 (9개소)	독일	본세종학당(라이프프리트리히빌헬름본대학교 동양학및아시아학연구소)	2		
61			튀빙겐세종학당(튀빙겐에버하르트칼스대학교)			

연번	대륙	국가	설립 기관	소계	
62	유럽 (9개소)	러시아	나훗카세종학당(극동취업지원대학교-경동대학교)	2	
63			모스크바세종학당(모스크바 원광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		
64		벨기에	브뤼셀세종학당(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1	
65		영국	런던세종학당(런던대학교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학 대학(SOAS))	1	
66		우크라이나	미콜라이브세종학당(페트로마힐라흑해주립대학교)	1	
67		이탈리아	베네치아세종학당(카포스카리대학교)	1	
68		프랑스	파리세종학당(미르발레대학교 한불언어문화연구소)	1	
		6개 대륙	36개국		68

한편, 2012년 5월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해 10월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했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교육을 총괄·관리하는 기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기구이다.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ㄱ.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ㄴ.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ㄷ.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ㄹ.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ㅁ.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ㅂ.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세종학당재단 설립을 통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노력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누리-세종학당' 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여 세종학당의 학습자, 교원, 기관 운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세종

학당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세종학당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sup>28)</sup>(’09~’12) 등으로 한국어 세계 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2)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지원

세종학당 신설·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효율적으로 반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전 세계의 세종학당에서 통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모형 개발·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한국어 기본 교재의 구체적인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8〉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기본교재 개발 현황(’08년~’13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급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종)	교재	6개 언어* 출판			스페인어, 러시아어 추가 개발	스페인어, 러시아어 출판	
	교원 지침서			읽기·쓰기 개발	읽기·쓰기 발간		
중급 한국어 1	교재	개발	출판				
	교원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 한국어 2	교재		개발	출판			
	교원 지침서			개발	발간		
세종 한국어	교재				1,2 개발/발간	3,4 개발/ 발간	5,6,7,8 개발/ 발간
	교원 지침서						1,2,3,4 개발

\* 초급 한국어 교재 6개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28) 한국어 교육기관 브랜드 통합 방안 수립(현대경제연구원), 세종학당 공동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 홍보 방안(현대경제연구원), 한국어 교육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이중언어학회),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운영(연세대 산학협력단), 한국어 교재 추천 제도 운영 방안 연구(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11년과 '12년의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실적으로는 초급 한국어 교재 2개 언어(스페인어, 러시아어) 추가 개발 및 출판('11년~'12년), 중급 한국어 2 교원 지침서 발간('11년), 세종한국어 1·2[초급 하 수준 발간('11년), 세종 한국어 3·4[초급 상 수준 발간('12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지 특화형 수준별 학습 교재 개발·보급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고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KBS) 간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11년)에 따라 방송 전문성과 국외 송출망을 가진 한국방송과 협력을 추진했다. 한류 드라마와 대중가요 등을 소재로 한 기초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두근두근 한국어”를 시범 제작하여 ‘케이비에스(KBS) 월드’를 통해 방영하였으며 누리-세종학당에도 탑재했다('12년). '12년 사업은 기초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12편(1강 드림하이, 2강 제빵왕 김탁구, 3강 넝쿨째 굴러온 당신, 4강 넝쿨째 굴러온 당신, 5강 미스 에이(miss A) 〈굿바이 베이비〉, 6강 쾌도 홍길동, 7강 폴 하우스, 8강 겨울연가, 9강 소문난 칠공주, 10강 슈퍼 주니어 〈요리왕〉, 11강 오작교 형제들, 12강 미안하다 사랑한다)을 시범 제작 및 송출했는데, '13년부터는 케이비에스(KBS) 월드의 본격 방송(전 세계 73개국 4,800만 가구에 송출)을 위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의한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이 국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현지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한국어 세계화의 내용을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지역별·기관별로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체계(교수, 학습, 평가 등)가 표준화되지 않은 한국어 교육 환경에 세종학당을 비롯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 양성 기관 등에서 통용 가능한 표준 한국어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특히 기존에는 학습자를 특정하지 않은 범용 교재 중심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국내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외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학습 대상별·학습 목적별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했다.

아울러 세종학당의 확대 설치 운영과 연계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효율적으로 반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전 세계의 세종학당에서 통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모형 개발·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 (가) 세종학당 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세종학당이 설립된 현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했다(2012년). 학년당 학습자 및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90시간 과정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했다. 또한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표준 교재 운영과 현지 특화 교육을 적절히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표 3-19〉 세종학당 교육과정별 교재 개발 현황

교육과정	세종학당 기본과정				세종학당 심화과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교재 운영 표준안	세종1	세종2	세종3	세종4	세종5	세종6	세종7	세종8	기관 선택
	개발 완료			2013년 국립국어원 개발 예정					
2013년 교재 사용(안)	세종1	세종2	세종3	세종4	중급 한국어1	중급 한국어 2			기관 선택

특히 세종학당의 단계별 기본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파일 형식으로도 제공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제작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학당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는 1~4권까지 출판을 완료하여 23개국 31개소 1,335부(2012년)를 배포했다.



[그림 3-11] 세종학당 표준 교재 ‘세종한국어’ 1~4권(국립국어원)

세종학당의 교육 표준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교원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 교원양성과정은 온라인 과정과 국내 초청 교육 과정을 혼합한 독특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현지 특화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한국어 교육 표준화를 바탕으로 현지 특화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의 일환으로 현지 맞춤형 초급 한국어 교재 2개 언어 추가 현지화(스페인어, 러시아어), 현지 맞춤형 중급 한국어 1 교재 개발 및 출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현지 맞춤형 중급 한국어 2 교재 개발 및 출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현지 맞춤형 교재 교원용 지침서 개발(4종) 등을 제작 배포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실태 조사 및 개발 방안 연구(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등이 이루어졌다.

〈표 3-20〉 국립국어원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실적('11년~'12년)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맞춤형 초급 한국어 교재 출판 (4종 8권, 2개국어)</li> <li>· 현지 맞춤형 교재 교원용 지침서 발간 (3종)</li> <li>· 결혼이주인 대상 한국어 교육 교재 (함께하는 한국어3,4)(1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어판 초급 한국어 교재(듣기·말하기·읽기·쓰기)</li> <li>· 스페인어판 초급 한국어 교재(듣기·말하기·읽기·쓰기)</li> <li>· 초급한국어읽기-교원용지침서</li> <li>· 초급한국어쓰기-교원용지침서</li> <li>· 중급한국어2-교원용지침서</li> <li>· 함께하는 한국어 3권</li> <li>· 함께하는 한국어 4권</li> <li>· 함께하는 한국어 3권 교원용 지침서</li> <li>· 함께하는 한국어 4권 교원용 지침서</li> </ul>
개발 건수 (8종)	·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4종)	· 세종학당 표준교재 세종한국어 1,2,3,4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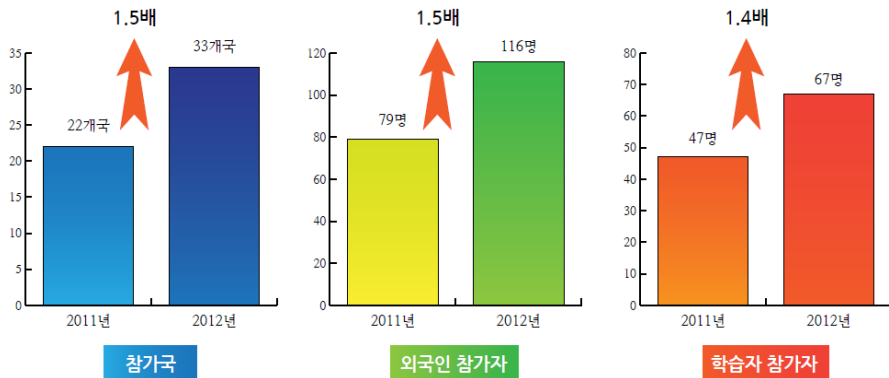
구 분		내용	세부 내용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개발 건수 (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교재(함께하는 한국어5,6)(1종)</li> <li>· 결혼이주민 대상 한국어 지침서(함께하는 한국어 3,4 지침서 개발('11년), 5,6 지침서 개발('12년)) (2종)</li> <li>·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2' (1종) 개발 및 발간('11년~'12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하는 한국어 5권, 6권 교재</li> <li>· 함께하는 한국어 지침서 3·4권, 5·6권</li> <li>· 이주노동자 대상 아자아자 한국어 2</li> </ul>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건수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11년)(경희대 산학협력단) 한국어 교재 추천제도 운영 방안 연구 ('11년)(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최종보고서</li> <li>· 한국어 교재 추천제도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li> </ul>

이와 같은 현지 특화형/ 맞춤형 수준별 학습 교재 개발·보급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고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3) 한국어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국내외 한국어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국제교류협력망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2012년 현재 4년 연속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외의 한국어 교육 및 보급 상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세계 한국어 교육 종사자 및 교육 기관 간 협력망을 공고히 하고,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질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회는 한국어 보급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를 공유함과 세종학당의 사업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울러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들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자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2]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참가자 변동

2011년과 비교해서 2012년 대회에서는 참가국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학습자 참가자 수 모두 증가하여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의 축제이자 교류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 4)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교육전문가를 육성하는 일이다. 교육전문가 육성을 위해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은 해외 세종학당 등 해외의 주요 거점 지역에 있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현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외국 현지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한국어교원의 연수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원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11년에는 8개 지역(중국 북경·상해·웨이하이(威海), 일본 동경·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오타와)에 16명, '12년에는 10개 지역(중국 홍콩·홍콩강성 치치하얼·북경, 일본 동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몽골 울란바토르,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미국 워싱턴)에 22명의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원을 연수시켰다.

또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사업은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가자 간의 연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국외 한

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은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과 세종학당 교원 초청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11년에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를 19개국에서 50명을 초청하고, 세종학당 교원을 15개국에서 50명을 초청하여 총 1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12년에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를 23개국에서 44명을 초청하고, 세종학당 교원을 17개국에서 42명을 초청하여 총 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제도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09년까지는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심사 수요 증가로 '10년 이후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11년, '12년에도 연 3회의 심사 실시하여 2년간 4,146명('11년에 1,809명, '12년에 2,337명)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했으며 '06년 이후 '12년 12월 말까지의 누계로는 9,690명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9,690명 중 1급: 136명, 2급: 4,731명, 3급: 4,822명).

또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11. 6. 30.) 등을 추진하여 자격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원)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11. 6./ '12. 6.)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11. 6./ '12. 6.)를 제작·배포하였다.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사업을 통해 교원들의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참가자 서로 간의 연계망이 형성되었으며, 국외 현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파견·연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한국어교원이 체계적으로 배출되어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루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 5)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간 간 상승 전략 추진

한국어교육 수요를 지속하고, 효율적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민간기업의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 간의 상승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 설립에 국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2011년에 7개국 8개소를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했고, 2012년에는 7개국 10개소를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했다.

〈표 3-21〉 국내 대학 연계 세종학당 현황('11년~'12년)

연번	국가(지역)	공동 설립 기관	설립 연도
1	짐바브웨(무타레)	아프리카대학교, 배재대학교	2011
2	필리핀(파사이)	정인한국어재단, 이화여자대학교	2011
3	타지키스탄(두산베)	국립외국어대학교(계명-타지키스탄 한국어문화 센터), 계명대학교	2011
4	태국(방콕)	탐마삿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5	베트남(하노이)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6	태국(콘깬)	콘깬대학교, 충남대학교	2011
7	중국(지난)	산둥시범대학교, 인하대학교	2011
8	러시아(나훗카)	국립태평양경제대학교, 경동대학교	2011
9	베트남(달랏)	달랏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10	중국(엔타이)	루똥대학교, 남부대학교	2012
11	중국(치치하얼)	치치하얼대학교, 동신대학교	2012
12	중국(충칭)	쓰촨(四川)외국어대학교, 우송대학교	2012
13	태국(마하사라캄)	마하사라캄국립대학교, 인제대학교	2012
14	알제리(알제)	알제2대학교, 배재대학교	2012
15	페루(리마)	페루기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2012
16	인도네시아(바우바우)	무함미디아부톤대학교, 경북대학교	2012
17	브라질(상레오폴두)	유니시노스대학교, 배재대학교	2012
18	중국(항저우)	저장(浙江)관광대학, 호남대학교	2012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특수형 세종학당을 설립했다. 특수형 세종학당은 외국 인력 송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 전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까지 8개국에 8개 기관이 선정·운영되고 있다(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 6)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이 과제는 집합형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의 한국어 수요자가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했다. 그 결과 누리-세종학당이 개발되었고, 한국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세종학당의 다국어 누리집을 확대하고,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텍스트 기반 강좌로도 개발함으로써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국외 교육 기관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들이 보다 폭넓게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어 정보와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림 3-13] 누리-세종학당 첫 화면

세부 추진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누리-세종학당 구축 사업

- \* 다국어 누리집(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

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안내 및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서비스(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고도화

- \* 세종한국어 1·2 온라인 강좌, 세종한국문화 1 온라인 강좌 개발('11년)  
세종한국어 3·4 온라인 강좌, 세종한국문화 2 온라인 강좌 개발('12년)  
개별 세종학당 운영 지원시스템 개발, 콘텐츠 저작 도구 등 개발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를 구축·운영한 것은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를 탄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한류 열풍, 한국기업 해외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어 보급 체제를 일원화하고 세종학당 프로그램 연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온라인 콘텐츠 확충, 전화 한국어 서비스 활성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2012년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 교원, 교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http://www.sejonghakdang.org>)'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통합 한국어 학습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로 제공됨으로써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교원 및 세종학당 관리자별로 특화된 전문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요컨대,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를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한류 열풍, 한국 기업 해외 진출 증가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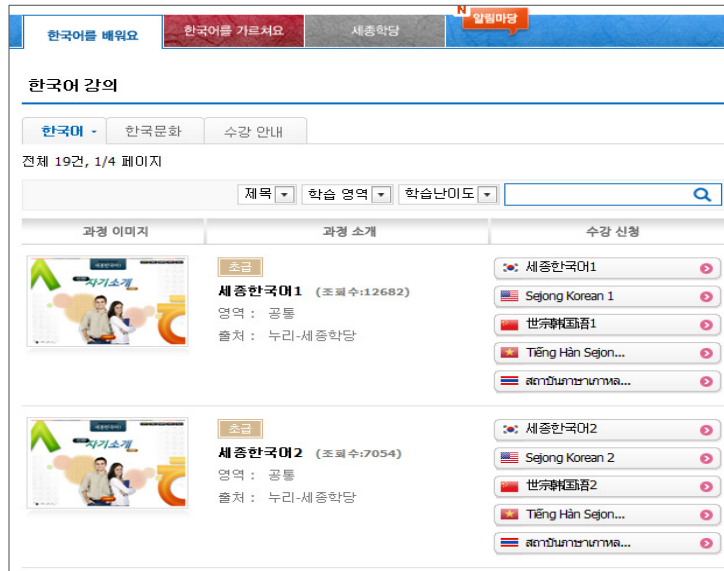


증가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어 보급 체제를 일원화하고 세종학당 프로그램의 연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온라인 콘텐츠 확충, 전화 한국어 서비스 활성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표 3-22〉 누리-세종학당 이용자 증가율('11년~'12년)

	2011	2012	증감률	비고
누적 가입 회원 수	3,192명	15,029명	470%	11,837명 증가
방문자 수	221,174명	418,931명	189%	197,757명 증가

무엇보다도 누리-세종학당은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확충해 가고 있다. 『세종한국어 1~4』, 『세종한국문화 1, 2』를 비롯하여 수준별(기초, 초급, 중급, 고급), 영역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 어휘, 문법 등)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60차시 분량의 한국어-한마디 콘텐츠를 9개 국어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의 방송사(Arirang, EBS, KBS, MBC 등)에서 방영된 한국어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온라인 강의 및 방송 강의 39종). 다문화사회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등으로 확대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그 외에도 한국어 교재 서지 정보(275종), 전자 원문(141종), 그림, 사진, 음성, 애니메이션, 만화, 동영상, 텍스트 등 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약 1,150종)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텍스트 기반 강좌로 개발함으로써 국외의 컴퓨터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림 3-14]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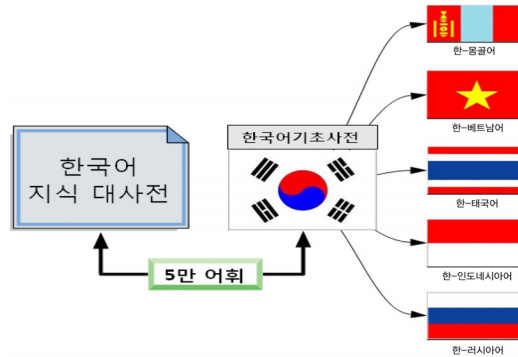
[그림 3-15] 누리-세종학당 디지털 교육자료관(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

### 나. 다국어지원 한국어학습용 웹사전 편찬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다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 사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요 언어권이 아닌 동남아 등지의 한국어 학습자 급증 지역에 대한 웹 기반의 다국어 학습자 사전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일부분으로서 구축해 왔다.

다국어 학습자 사전은 문화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웹 기반의 사전이자, 다양한 예문과 음성 서비스를 포함하는 실용 학습 사전을 지향한다.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웹사전의 체계는 다음 [그림 3-16]과 같다.



[그림 3-16]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웹사전 구축 체계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웹사전 구축은 100만 어휘 규모의 위키피디아식 개방형 사전인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과 연동된다. 이 중에서 5만 어휘 규모의 한국어 기초 학습사전 표제어를 선정하고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등이 한국어 어휘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다문화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하고, 차후 다른 언어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외국인의 수준에 맞추어 쉬운 풀이와 실용 용례를 등재할 한국어 기초 학습사전은 그 자체로도 한국어 학습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기초사전 집필 대상 5만 어휘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2만 8천여 어휘 항목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를 집필했다. 이에 대응하는 5개 언어(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대역어를 각각 달아 다국어 사전 원고를 집필했다. 사전 편찬의 통합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편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기초사전 검색 기능과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검색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다국어 웹사전은 한국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표제어의 전형적인 실용 예문을 구, 문장, 대화 단위 등으로 구축하여 제시하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 정보를 탑재할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기에 한국어 학습에 기본적인 고유명사, 가표제어 및 어미, 조사를 추가 선정하여 사전 자체가 한국어 학습 자료로 쓰이도록 기획했다.

사전 편찬은 방대한 양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년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수많은 사전편찬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이다. 사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사전기술자와 연구팀 및 웹 시스템 개발자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공동 작업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과 연계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총괄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편찬 전문가 집단으로 '사전편찬실'을 구성하여 상설 조직으로 운영했다. 2010년도에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도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및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사업과 연계하여 전체 사전 관련 업무를 총괄 진행할 수 있는 '사전편찬실'을 언어정보팀 내에 두고 운영했다. 사전편찬실 인원은 전체 9명이 배정되었는데, 2010년도에 비해 인력 증원이 없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특히 다국어 사전의 연구 결과를 검토할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를 검토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사업은 당초 사전편찬실의 독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지 못했다. 기존의 내부 조직인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체제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원래 정규직 4명, 계약직 16명을 목표로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2명(전년도에 비해 1명 감소) 계약직 7명 확보에 그쳐 인력 확보 목표는 45% 정도 달성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방형 사전의 검토 인력 및 시스템 개발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전담 인력 부족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전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바는 인정된다. 다만, 이 사업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편찬실 내 관련 전담자를 반드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의 구축 결과를 검토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현재 다국어사전 담당 1명)하여 밀도 있게 사전을 편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2단계 사업에서는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사전편찬실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는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한국어 학습을 충분히 받지 못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차별을 받는 언어 소외계층이 있다.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이주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중요하다. 언어 복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민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확대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기표현과 정당한 권리 보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다문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소외 계층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업을 실시했다.

-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강화
-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개발·지원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부처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한국어 방문 지도사의 전문성 향상 및 한국어교원 자격(3급) 취득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온오프라인 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국어 공동 연수회’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회씩 개최하여 총 269명이 수료했다.<sup>29)</sup>

29)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들은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이들이 외국인 유학생 외에도 국내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등을 위한 교육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기도 하므로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함께 언급하였다.

〈표 3-23〉 한국어 공동 연수회 개최 실적('10년~'12년)

구분	시기	장소	대상	참가 현황
제1회	2010. 7. 8.~7. 10.	온양 팔래스호텔	5년 이상 경력 교원	36개 기관 56명 수료
제2회	2010. 12. 2.~12. 4.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1년 경력 교원	32개 기관 43명 수료
제3회	2011. 7. 21.~7. 23.	대전 우성 스파피아 호텔	5년 이상 경력 교원	38개 기관 45명 수료
제4회	2011. 11. 17.~11. 19.	서울 건국대 쿨하우스 연수원	2년 내외 경력 교원	32개 기관 45명 수료
제5회	2012. 8. 9.~8. 11.	서울 건국대 쿨하우스 연수원	5년 이상 경력 교원	40개 기관 39명 수료
제6회	2012. 11. 22.~11. 24.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	3년 내외 경력 교원	33개 대학 41명 수료

2012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를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41개 기관 46명이 참가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에 한국어 방문지도사 대상 온-오프라인 양성 과정을 개발한 데 이어서, 2010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한국어 방문지도사 대상 양성과정'도 운영했다.

〈표 3-24〉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 실적('10년~'12년)

구분	시기	장소	연수 결과
제1회	2010. 7. 8.~7. 10.	재택(온라인 과정), 건국대 쿨하우스(현장 교육 과정)	82명 교육, 63명 수료
제2회	2011. 12. 2.~12. 4.	”	85명 교육, 76명 수료
제3회	2012. 7. 21.~7. 23.	”	94명 교육, 70명 수료

부처 협의로 2010년~2012년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대상 양성 과정을 2013년부터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다.

둘째, 이주민(결혼 이민자,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이주민 한국어 교육의 수요와 교육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초급·중급)로 체계적인 교재 및 부교재를 개발

했으며, 이를 방송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했다.

-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2009년 발간)
  - \* 교재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2009년 발간)
  -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4』(2010년 발간)
  -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 6』(2012년 발간)
  - \* 교재 언어: 한국어
- 『이주 노동자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1, 2』(2012년 출판)
  - \* 교재 언어: 한국어

셋째,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을 지원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2단계) 방송을 제작·방영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강좌를 개발하여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교육방송(EBS) 다문화사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방송('10~'11년)<sup>30)</sup>
  - \* 방송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3개 국어
  -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교재를 기반으로 방송 제작
- 교육방송(EBS) 함께하는 한국어 개발·방송('11년~'12년)
  - \* 방송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3개 국어
  -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교재를 기반으로 방송 제작
- 교육방송(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개발·방송('12년)
  - \* 방송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3개 국어
  -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 교재를 기반으로 방송 제작

30) 교육방송(EBS)를 통해 '다문화사회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방송'은 '08~'09년에 실시되었다.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3개 국어로 진행했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교재를 기반으로 방송이 제작되었다.

## 제5절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 1. 추진 배경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는 언어 자료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을 편찬하며, 국어 정보망을 구축하고 통합 정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아울러 한글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과제별 추진 배경과 사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둔 언어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 및 민족 생활어 조사를 통해 국어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2011년 1월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4단계에 등록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의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 보존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 때 지역어가 지니는 역사 문화적 가치 및 문화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데 81.6%가 찬성하여 국민들의 지역어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과제별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먼저, 국어 및 언어 관련 각종 실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시계열적인 축적을 통하여 추세 분석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언어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기본법상 실태 조사', '상호보완적인 정책 통계 조사'를 실시하며,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변화 양상을 제때에 파악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확보하는 일 등이 이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집단별, 계층별 기층문화 생활어 등을 조사하고, 민족 생활어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급격히 소멸되어 가는 민족어의 권역별 지역어 조사와 자료 구축 확대로 지역어의 유지·보존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국어 연구와 문화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경연대회, 학습서·교재 출판, 지역어 상품 공모전 등 다양한 지역어 확산 활동을 통해 지역어 진흥 환경 조성 및 지역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표준어 중심 50만 어휘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였고, 2008년에 인터넷 기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어휘에서 풀이가 다소 어렵거나 순환적·비체계적이고, 표준어 중심이어서 몇몇 실생활 언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어 지식 및 민족 문화를 집대성한 총체적 국어사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속적 정비 및 사전 편찬자와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사전 편찬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생활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전 편찬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의 발전 및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의 언어 능력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과제별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국어 지식 및 민족 문화를 집대성한 총체적인 국어사전의 지속적 정비로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과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전 편찬자와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사전 편찬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제공하여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생활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전 편찬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의 발전 및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어 지식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을 위한 상시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말 사전의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 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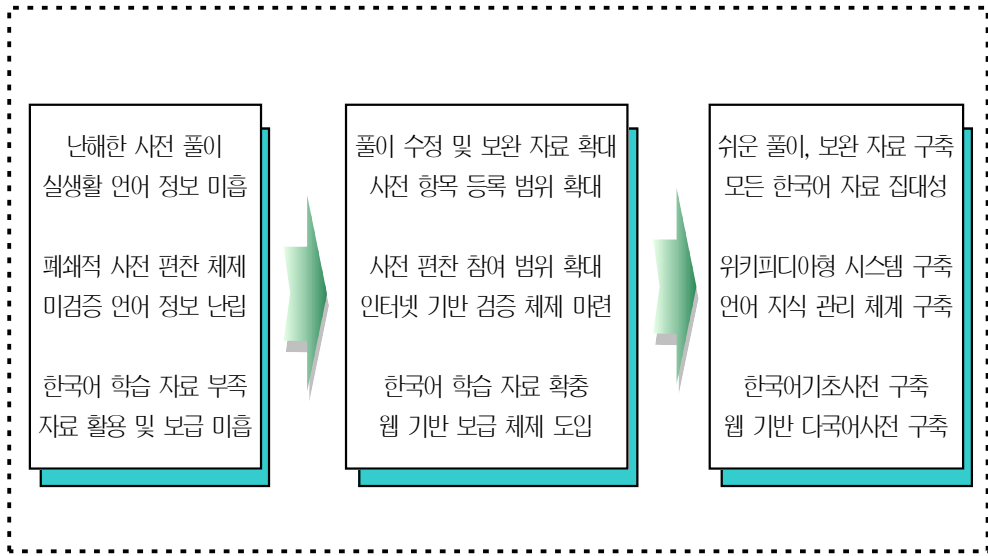
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 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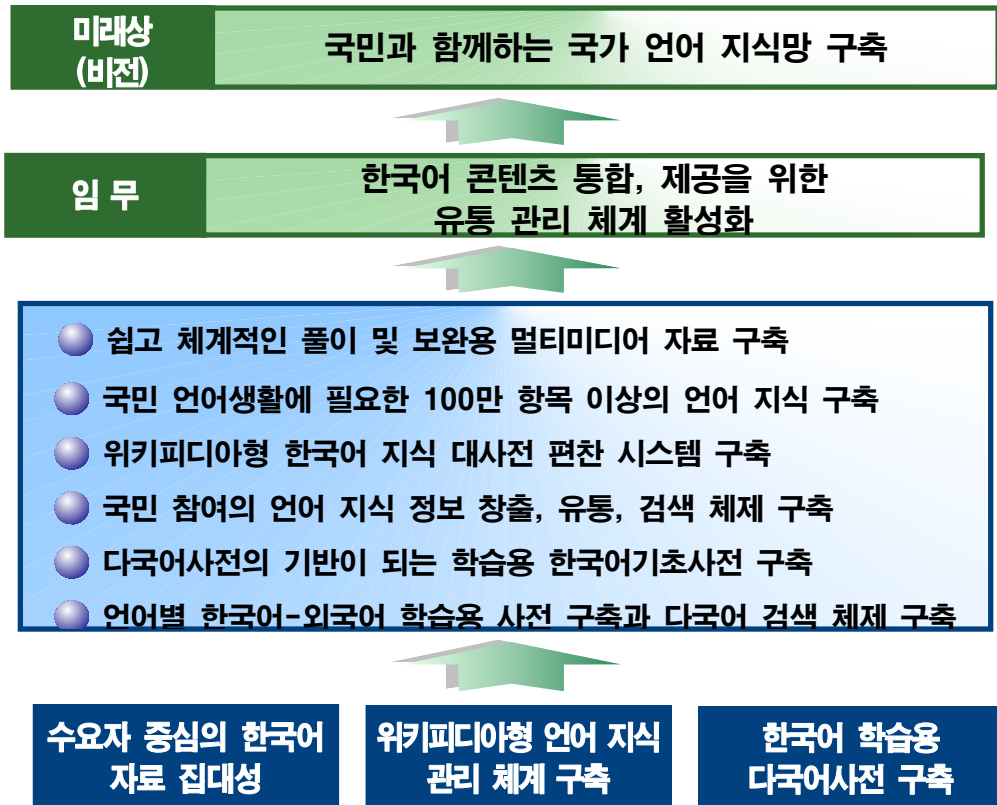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대폭 수록한 100만 어휘 규모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가칭)' 구축 사업을 '09년부터 준비하여 '1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5개 언어의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도 함께 구축하였다.

그 이전에는 '99년에 표준어 중심 50만 어휘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였고, '08년에 인터넷 기반 『표준국어대사전』개정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어휘에 있어 풀이가 다소 어렵거나 순환적·비체계적이고, 표준어 중심이기에 몇몇 실생활 언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생산에 국민 참여를 수용할 체계가 미비하고, 지식 정보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의 비약적 증대에 따른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 학습 자료의 보급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편찬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쉽고 살아 있는 사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계획을 '09년에 수립한 바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사전 이용자들이 표제어의 선정·내용 집필·수정 보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사전, 인터넷 기반의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전, 풀이를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생활용어나 방언 등 실생활 자료를 대폭 수록할 수 있는 사전, 그리고 '한국어 기초 사전'과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외국어 사전'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전 등을 목표로 하는 사전이다.



[그림 3-17]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배경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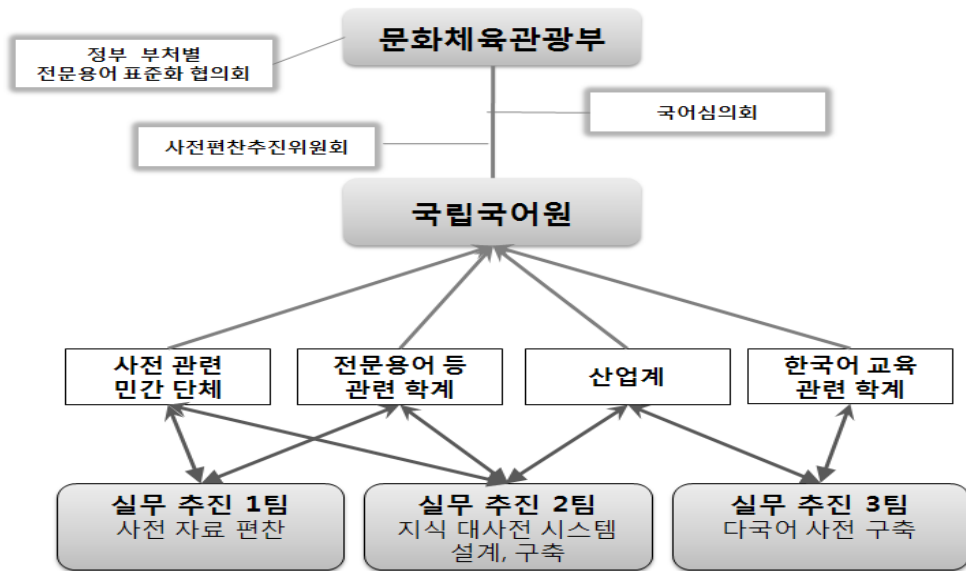


[그림 3-18]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임무와 미래상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1차년도인 2010년에는 쉬운 풀이와 신어, 방언, 전문어 등의 확충을 위한 한국어 자료 구축 사업, 위키피디아 방식을 참조한 개방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기초 어휘 5만 항목 선정과 한국어 기초사전 2만 항목 구축 및 다국어 시험 대역 등 3개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개방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사전은 2016년 이후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학계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국립국어원이 기획·총괄하며 부문별로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9]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체계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의 담당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참여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진행 총괄, 사전편찬추진위원회·국어심의회 운영, 부처 간 협력 사업 추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결과 통보, 자료 협조
국어심의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최종 검토, 지문
사전편찬추진위원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검토, 지문
국립국어원	사업 실무 총괄, 기본 계획 수립,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실무추진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작업 수행(직접 수행, 용역 등)
민간단체, 관련 학계	어휘 수집, 분류 등 관련 작업 진행
산업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설계, 구축

## 라.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국어 정보의 안정적 구축과 보급 및 보존을 위해 효율적인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했고, 국어 정보 처리 수준 제고를 통한 국민들의 언어생활 편의 및 향상을 위해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1세기 세종계획”으로 구축된 국어 정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어 정보 관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한글 관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여 시대에 상관없이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생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세종 말뭉치 등 각종 언어 정보 자원 구축의 지속적인 정비, 보완과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했고, 지속적인 언어 자료 수집, 관리, 검색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언어 정보의 유통 체계가 필요했다. 또한 급증하는 한국어의 확산 환경에 따른 한국어 교육을 정보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어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으로 구축된 국어 정보 자원의 품질을 높이고, 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한글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한글박물관’ 사이트를 확충하고 운영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또한 국어 정보 처리 수준 제고를 위한 한국어 어휘 의미망의 구축,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춘 말뭉치 등 언어 정보 자

원 구축, 유통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문자 코드의 확보 등으로 산업적 활용 지원 체계의 선진화를 꾀하고 언어적 소수자, 외국인 등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 마.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국어 자료의 시대별 현황 파악 및 구축, 관리를 통해 국어 문화유산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어 문화유산을 종합하고, 정비하여 한글과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와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가 도심의 간판, 안내판에 많이 퍼져 있어 도심의 언어 경관 훼손이 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한글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에 따른 문화 콘텐츠로서의 한글을 활용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한국어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한글 주간을 기획하고, 한글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하여 전시 체험물 제작, 자료 수집, 종합 운영 방안 연구용역, 건립 홍보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과제별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훈민정음을 비롯한 한글 문화유산을 종합하고 정비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다양한 매체별 구축으로 우리말 자료의 보전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우리말 변천을 보여 주는 우리말 역사 정보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언어 경관 조성으로 도시 환경을 정비하며, 아름다운 디자인의 한글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글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한글 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한글을 활용한 문화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며, 한글문화 가치의 보존 및 국내외 확산을 위한 한글박물관의 건립을 사업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 2. 추진 실적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이라는 이 과제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국어 사용 실태 조사,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지역어 자료 구축 및 활용, 지역어 경연 대회 개최 지원, 지역어 상품 및 지역어 교재 개발·보급),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신어 조사 지속 실시,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국어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국어 능력 향상 학습시스템 개발,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한글의 산업화 지원),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국어 정책 홍보 맞춤형 서비스 체제 구축, 국어 생활 기획 총서 발간, 국어 운동 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이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 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 사용 실태 조사는 추진 과정이 원활했고 목표 달성도 매우 탁월하게 이루어졌는데, 다문화 가족 국어사용 환경 기초 조사는 목표 3건에 실적 3건,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조사는 목표 4건에 실적 4건, 국어 정책 통계 조사는 목표 3건에 실적 3건, 국어 정책 통계 포털 구축은 목표 3건에 실적 3건으로 각각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선 전국 규모의 다문화 가족 국어사용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에서는 외국의 표준어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현행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였고,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표준어 규정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어 정책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국어 정책 통계 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어 정책 통계 자료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어 정책 통계 포털’ 누리집을 통하여 국

립국어원에서 그동안 수행하여 온 국어 정책 관련 통계 자료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다문화 가족 국어사용 환경 조사,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국어 정책 통계 조사, 국어 정책 통계 포털 구축 등 계획한 사업이 매우 성실하게 추진되어 향후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민족생활어 조사 및 직업 생활어 조사는 추진 과정과 목표 달성도가 매우 탁월하게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제주 동부 우도 해초 관련어, 동해안 명태잡이와 덕장 관련어, 서해안 자연 관련어, 남해안 돌살과 김 양식 관련어를 주로 조사하고, 제주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생활과 어업에서 사용하는 기초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어촌 4개 권역의 기초 어휘 및 민족생활어 조사 목표 4건에 실적 4건으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2012년은 4개 권역의 어촌 민족생활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지점 수는 목표 4건에 총 4건을 조사 완료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어촌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촌 기초 어휘와 어촌 민족생활어 조사, 어촌 기초 어휘 및 어촌 민족생활어 어휘 자료 정리, 관련 구술 자료 조사 및 전사,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확보 등 계획된 사업이 매우 정밀하고 성실하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해안에 있는 어촌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하는 민족생활어의 조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양식, 정신이 담겨 있는 전통 생활어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자료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 사업에서 어휘 조사는 물론, 자료 조사, 전사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연구 및 교육, 시청각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6〉 민족 생활어와 직업 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민족생활어 조사(4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및 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 구축	해초 관련어(제주 동부 우도), 명태잡이와 덕장 관련어(동해안 북부 강릉·평창), 자연 관련어(서해안 중부 태안), 돌살과 김 양식 관련어(남해안 서남부 해남), 생활과 어업 기초 어휘(제주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2년 민족생활어 조사(4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및 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 구축	추자도의 고기잡이(제주 추자도),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경북 동해 울릉도), 어로 생활(충남 서해 외연도), 채낚기, 송어들이(경남 남해 옥지도 가덕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제주 추자도, 동해 울릉도, 서해 외연도, 남해 옥지도 공통)

### 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국내 권역별 한국어의 지역어 분포 조사는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국외 중국 이주 한민족(충청, 전라, 경상)의 지역어 조사 등 계획된 사업이 매우 성실하게 추진되어 한국어의 지역적 분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매우 어려운 분야의 현장 조사 작업이 전문가들의 훌륭한 식견으로 말미암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11년은 국내 총 8개 지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국외는 중국 이주 한민족(충청, 전라, 경상 출신자)의 지역어 3개 지점을 조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다. 2012년은 국내 9개 권역에 4개 지점씩 구술 자료를 조사하고 전사했으며, 국외 집단 이주지역 1개 지점의 구술 자료를 전사했다. 국내외 지역어 구술자료 추가 전사 지점 수는 목표 10개 지점에 총 10지점을 조사 완료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구어체 자료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급격히 소멸되는 지역어를 조사하고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함으로써 언어 자료와 민족 문화 자료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지역어의 체계를 구축하고 한민족의 언어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2년에는 지역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국어문화유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술 발화 자료를 집중 전사하였다. 그리고 이미 조사된 국내 지역어와 중국 이주 한민족 지역어의 구술 자료를 책으로 발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표 3-27〉 한국어의 지역어 분포 조사 실적('11년~'12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8지점)	경기(인천광역시), 강원(정선군), 충북(영동군), 충남(천안시), 전남(광양시), 경북(봉화군), 경남(하동군), 제주(서귀포시)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3지점)	중국 길림성 도문시, 연변조선족자치주(무주촌), 영길현
2012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9개 권역별 4개 지점씩)	경기(용인, 화성, 포천, 파주), 강원(삼척, 원주, 양양, 홍천) 충북(제천, 청원, 충주, 돈화) 충남(공주, 대전, 논산, 서천) 전북(완주, 남원, 무주, 군산), 전남(함평, 곡성, 진도, 영광), 경북(경주, 상주, 청송, 고령), 경남(고성, 창원, 창녕, 산청), 제주(건입, 한경, 호근, 표선)의 구술발화 자료 2시간 분량 전사 및 대역
2012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1지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 4)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지역 언어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어 보급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또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및 지역별 행사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어 활성화를 도모했고,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지원 및 지역어 교재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어 진흥 환경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 목표도 계획대로 달성되었다. 지역어 자료 구축 분야는 40건 파일 구축 목표에 총 69건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1건을 목표로 한 지역어 경연대회 개최는 총 3건(충북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강릉 언어문화 축제, 제주 서귀포 언어문화 축제)을 수행하여 목표치의 300%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계획을 1건 수립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지역어 상품 개발 사업은 '제1회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1건 계획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업의 효과성에서도 지역어 보급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역어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의 지역어 사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언어문화 행사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언어문화 보존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어 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선작을 지역어 상품 모형으로 보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지역어 상품 개발을 도와주고 지역어 진흥 환

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표 3-28〉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12년)

구분	대표자 성명	비고
대상	김지원	
최우수상	안진나 외	
우수상	권초롱 외	
아이디어상	1) 김재성 외 4) 장가혜 외	2) 권상용 외 5) 김교연 3) 김보민 외 6) 김응석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국어 지식 및 민족 문화를 집대성한 총체적 국어사전의 지속적 정비로 국민의 언어 능력 향상과 국어문화의 발전 토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웹 사전 구축을 통하여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인 국민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사전 편찬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변화에 따른 언어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편이를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생활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전 편찬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의 발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추진 과정과 사업 목표 달성도는 매우 우수하게 이루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 정비, 보완을 위해 6,000 항목에 대한 추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초과하여 6,400항목을 달성하였다. 사전정보보완심의회 설치 및 운영하여 4회를 개최하였으

며,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구축 운영에서 951건의 의견 수렴으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 계열적 미등재어 등을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6,400여 항목에 대해 사전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실제 언어변화를 있는 그대로 사전에 반영하였다. 생활 용어나 새로 생긴 전문어 등 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를 검토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한 말을 사전에 등재함으로써 정책 여건과 사회 및 언어 변화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달라지는 법률, 기관명, 도로명 등 각종 사전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전 편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언어 정보를 갱신하고 새로운 말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상시 수정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한 웹 사전 체제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변화에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사전에 대한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있어서 향후 국민들이 위키피디아식 사전을 능동적으로 검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지금까지 구축된 말뭉치와 새로이 구축할 말뭉치 및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신어를 조사해야 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수집된 신어를 분석하여 언어 및 사회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추진 과정과 사업 목표 달성 면에서 사업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언어 자료를 조사하고 취합하여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신속하게 자료화함으로써 국어지식의 기반 자료로 축적했다. 또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편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시대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당초 신어 20,000 항목을 목표로 했지만 20,478 항목을 초과 수행하여 계획한 것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신어 항목을 선정하여 뜻풀이 및 용례를 제시하면서 집필하고 연중 수정 보완하여 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20,478 항목의 신어는 그 언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상과 당대의 구성원들이 살면서 이루어 가는 사회의 경향, 풍조,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여 다양한 활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언어변화 양상을 기록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사용하는 신어를 국어사전 편찬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어사전의 갱신과 변화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 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식 대사전을 개발했는데,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10년~)과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 사업(10년~)이 지속되었다. 특히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및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사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과 사업 목표 달성도가 매우 탁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용어 3만, 방언 4만 항목을 구축하고, 뜻풀이, 용례, 역사 정보 5만 7천 항목을 구축하였으며,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을 위해 국어기초사전 등재 어휘를 선정하여 2만 3천 항목을 집필했고, 5개 언어 다국어 사전 언어별 2만 8천 항목 구축하고, 3개 언어의 다국어 검색시스템을 개발했다.

다양한 생활용어와 방언 등 어휘를 확대하여 구축함으로써 한국어 기반 콘텐츠를 집대성하였다. 사용자의 참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개방형 국가 언어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국어 한국어 학습 사전의 개발을 통해 한국어 학습 수요의 비약적인 증대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사전 편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용어 집필, 뜻풀이·용례·역사정보 구축 등을 통해 한국어 정보 콘텐츠를 집대성하고, 한국어기초사전 구축을 통해 외국인용 한국어 학습 사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즉 이러한 사업은 한국어 지식 정보를 망라한 사전 편찬을 통해 국민 언어생활에 필요한 언어 지식을 구축하고, 국가 지식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

### 1) 주요 추진 내용

#### 가) 2011년~2012년 사업 추진 실적

##### (1)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기존 국어사전에서 어떤 단어의 풀이에 더 어려운 단어가 쓰였거나 그 풀이를 찾아가다 보면 원래의 단어로 돌아오는 순환적 풀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서는 최대한 순환적인 풀이를 지양하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풀이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 풀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사전의 삽화나 사진 자료를 확충하는 한편 동영상 자료 등도 함께 구축하여 한층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규범사전의 성격이 강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수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표준국어대사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준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어와 방언, 새로 등장한 전문용어 등 다양한 어휘를 대폭 수록한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던 자료는 새로 구축하는 자료와 구분하여 볼 수 있어 준거 언어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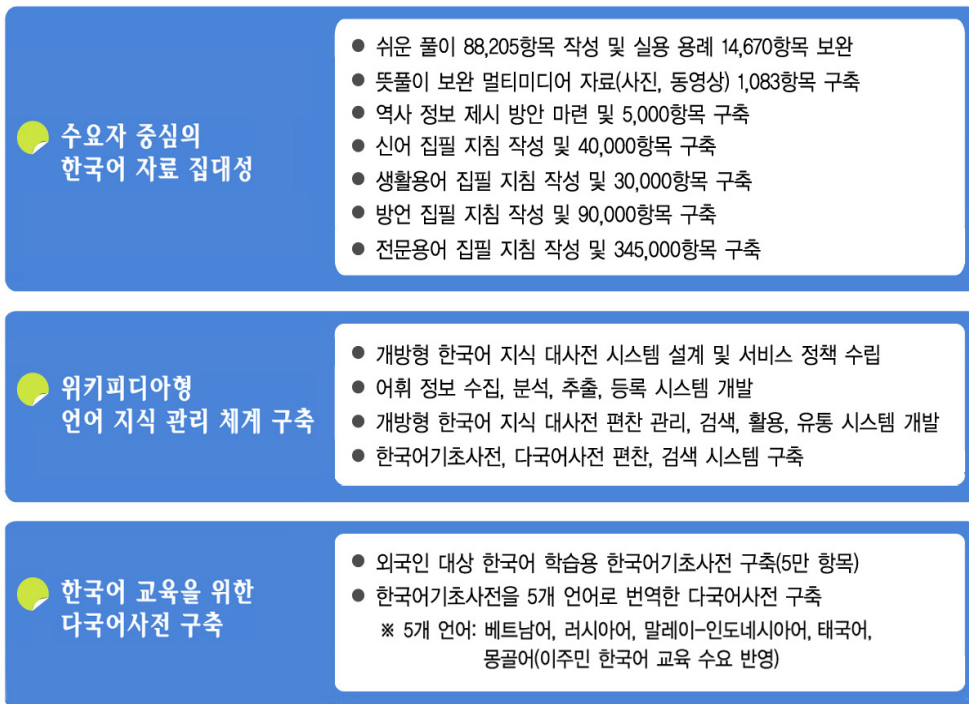
##### (2) 위키피디아형 지식 관리 체계 구축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언어생활 자료를 집대성하여 디지털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전 편찬이 폐쇄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는 일반인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가,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작업하여 만들어 나가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전은 인터넷 기반의 위키피디아 방식을 참조하여 개방형으로 설계되며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인이 제공한 정보는 차후 전문가의 감수 절차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확대하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전으로 거듭날 것이다.

### (3)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사전도 함께 구축된다. 다국어사전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기초 학습사전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등이 한국어 어휘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인데, 다문화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하고, 차후 다른 언어로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외국인에 맞추어 쉬운 풀이와 실용 용례를 등재할 한국어 기초 학습사전은 그 자체로도 한국어 학습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20]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12년 사업 추진 실적

## 나) 사전 집필 사례

### (1) 풀이 없이 기본 표제어로 돌려져 있는 동의어를 직접 풀이한 예

- 동의어 직접 풀이: 50,000항목 풀이 완료
- 표준국어대사전에 풀이 없이 돌려져 있는 동의어 직접 풀이

구분	예) 가극
기존 풀이	오페라(opera) 「명」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따위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따위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누가극(歌劇)·오페(Oper). 가극(歌劇) 「명」 =오페라.
수정 풀이	오페라(opera) 「명」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따위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따위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누가극(歌劇)·오페(Oper). <i>*기본 단어는 기존 풀이와 동일</i> 가극(歌劇) 「명」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따위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따위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누오페(Oper).오페라(opera)

### (2)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한 예

- 용례 추가: 1,800항목 추가 완료
-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용 용례 및 다양한 쓰임을 보여 주는 용례 보완

구분	예) 계약
기존 예문	¶정당한 방법으로 협의의 결정된 소작료니까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내대었다. 《이태준, 농토》
추가 예문	¶{계약} 결혼/나는 그와 아무도 모르는 {계약을} 맺었다./봉건 시대에 영주와 기사는 보호와 봉사의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 (3) 신어 집필 사례

#### 놀-토(-土) 「명사」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토요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이다. ¶놀토에도 나는 회사에 간다. 회사에서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 2003년 6월》/초·중등 학생들이 격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인 '놀토'. 학생에게는 즐거운 날이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그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쿠키뉴스 2009년 11월》

#### 대안<sup>^</sup>학교(代案學校) 「교육」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롭게 고안한 학교. ¶대안 학교는 일반 고교에 비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적 능력이나 미래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경향신문 2010년 5월》/다만 대안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대안 교육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내가 교사를 그만두려고 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점차 커지고 있었다. 《김종희, 내 안의 열일곱, 산티, 2007년》



## (4) 한국어기초사전 집필 사례

## 당신(當身) 「대명」

- 대화에서 상대방을 높여 가리키는 말.
  -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 주세요.
  - 가: 당신과 나의 뜻이 같으니 우리 함께 연구를 해 보지 않겠어요?
  - 나: 좋아요. 당신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지요.
 참고: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관계에서 쓰며 몇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어: 너이, 자네이
-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가리키는 말.
  - 당신과 결혼해서 같이 산 지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 나는 당신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 가: 아이들이나 나나 요즘 당신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 나: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네.
-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상대방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
  - 당신 몇 살인데 계속 나한테 반말이야?
  - 이런 일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당신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 가: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 나: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참고: 주로 싸울 때 사용한다.
- 이야기되고 있는 어른을 높여 다시 가리키는 말. 그 분 자신.
  - 할머니는 손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자주 해 주신다.
  -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당신을 만나러 오는 자식들을 맞는 것이다.
  - 아버지는 퇴직 후 당신이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다.
  - 어머니는 당신의 무릎에 내 머리를 얹히셨다.

## (5) 다국어사전 집필 사례

## 묶이다

- 끈, 줄 등이 매듭지어지다.
  - 몽골어 대응 어휘: зангидагдах.
  - 몽골어 번역: оосор, тууз мэт зүйл уягдах.
  - 베트남어 대응 어휘: bị cột lại, bị buộc lại, bị trói lại
  - 베트남어 번역: thắt gút , cột dây lại
  - 타이어 대응 어휘: ၵ်းၵ်း, ၵ်းၵ်း
  - 타이어 번역: ( ၵ်းၵ်းၵ်းၵ်းၵ်းၵ်း ) ၵ်းၵ်းၵ်းၵ်း
  - 마인어 대응 어휘: terikat
  - 마인어 번역: terikat(tali, karet, benang)
  - 러시아어 대응 어휘: быть завязанным, быть связанным.
  - 러시아어 번역: Быть закрепленным с помощью узла, банта и т.п.(о шнурке, веревке и т.п.).
- 사람이나 물건이 기둥, 나무 등에 붙들어 매어지다.
  - 몽골어 대응 어휘: хүлэгдэх, хүлээстэй байх.
  - 몽골어 번역: хүн ба юм багана, мод зэрэгт баглагдан боогдсон байх.
  - 베트남어 대응 어휘: bị trói vào
  - 베트남어 번역: người hay vật bị trói vào thân cây hay cây cột
  - 타이어 대응 어휘: ၵ်း
  - 타이어 번역: ၵ်း(ၵ်း, ၵ်းၵ်း)ၵ်းၵ်းၵ်း(ၵ်း, ၵ်းၵ်း, ၵ်း-ၵ်း ၵ်းၵ်းၵ်း)
  - 마인어 대응 어휘: terikat(orang, benda)
  - 마인어 번역: terikat di tiang, pohon, dan semacamnya(orang atau benda)
  - 러시아어 대응 어휘: быть привязанным.
  - 러시아어 번역: Быть прикрепленным к чему-либо с помощью веревки, ремня и т.п. (о человеке, предмете и т.п.).

## 2) 단계별 사업 내용

### 가)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 (1) 쉬운 풀이 및 보완 자료 구축

<p>1단계 ( '1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 수정 및 보완</li> <li>● 풀이를 보완할 용례 확장</li> <li>● 인터넷 기반 사전의 특성을 활용한 풀이 보완 자료 구축</li> </ul>
<p>2단계 ( '1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 수정 및 보완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를 보완할 용례 확장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 보완 자료 구축 지속적 추진</li> <li>● 언어 및 지식 정보의 검증과 사전 반영</li> </ul>
<p>3단계 ( '16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 수정 및 보완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를 보완할 용례 확장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 보완 자료 구축 지속적 추진</li> <li>● 언어 및 지식 정보 구축에 사용자 참여 유도</li> <li>● 사용자 구축의 언어 지식 정보 및 자료의 검증, 사전 반영</li> <li>● 지식 정보의 활용과 민간 출판 지원</li> </ul>

#### (2) 개방적 실생활 한국어 자료 구축-생활 용어, 전문용어, 방언 등

<p>1단계 ( '1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어 7만 항목 구축</li> <li>● 전문용어 34만 항목 구축</li> <li>● 지역별 방언 9만 항목 구축</li> </ul>
<p>2단계 ( '1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의 추가 구축(쉬운 풀이, 용례 등)</li> <li>● 추가 자료 및 지식 정보 구축과 전문가 검증</li> <li>● 검증된 언어 지식 정보의 사전 반영</li> </ul>
<p>3단계 ( '16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의 추가 구축(쉬운 풀이, 용례 등)</li> <li>● 검증된 언어 지식 정보의 지속적 사전 반영</li> <li>● 민간 출판 및 활용 지원</li> </ul>

## 나) 위키피디아형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1) 설계 및 개방형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분석, 설계, 통합</li> <li>● 구축된 언어 정보 통합, 변환 및 등록</li> <li>● 개방형 어휘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비동형어 분석 감지)</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기반 웹 환경 대응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분석, 관리, 변환</li> <li>● 수집된 언어 정보 정제, 등록 및 연계</li> <li>● 지능형 어휘 의미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동형어 분석 감지)</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웹 표준 기반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고도화</li> <li>● 수집된 언어 정보 통합, 정제 및 확산</li> <li>● 통합형 어휘 의미 수집, 분석 시스템 고도화</li> </ul>

## (2) 국민 참여형 편찬, 관리 및 검색 시스템 개발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키피디아형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개발</li> <li>● 언어 정보의 유통·검색 지원 시스템 구축</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li> <li>● 개방형 콘텐츠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li> <li>● 수요자 맞춤형 언어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 구축</li> <li>● 언어 정보 자원 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li> </ul>

## 다)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

### (1)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p>1단계 ( '1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등재 어휘 선정(5만 항목)</li> <li>● 선정 어휘 집필(5만 항목)</li> <li>● 한국어 학습 시 필요한 실용 용례 제시</li> <li>● 어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시</li> </ul>
<p>2단계 ( '1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어휘 학습 정보 추가</li> <li>● 그림 및 동영상 등 교육 자료의 추가 구축</li> <li>● 학습자 맞춤형에서 선정한 학습자 오류 용례 및 교정 제시</li> <li>● 범용 한국어 교재와 연동하여 국내의 교육기관의 보충 학습 기능 강화</li> </ul>
<p>3단계 ( '16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와 교사의 교육 자료 추가 구축 유도</li> <li>● 웹을 통한 학습 및 평가 기능 강화</li> <li>● 사용자 평가 및 피드백 유도</li> <li>● 언어권별 대역어 및 다언어, 다문화 지식 보완</li> </ul>

### (2)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편찬

<p>1단계 ( '1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사전 설계, 분석 및 대역 사전 모형 완성</li> <li>● 5개 언어의 한국어-외국어 사전 구축</li> <li>● 다국어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li> </ul>
<p>2단계 ( '1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사전의 5개 언어 추가 구축</li> <li>● 풀이 보완 자료 및 교육 학습 자료의 지속적 보완 구축</li> <li>● 다국어사전의 대역 오류 수정에 사용자 참여 유도</li> <li>● 다국어사전에 대한 반응 조사 검토(모형 보완 및 수정 등)</li> </ul>
<p>3단계 ( '16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사전의 10개 언어 추가 구축</li> <li>● 풀이 보완 자료 및 교육 학습 자료의 지속적 보완 구축</li> <li>● 다국어사전의 모형 보완 및 수정</li> <li>● 다국어사전의 민간 활용 및 출판 지원</li> </ul>

### 3) 기대 효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대폭 수록하고 어려운 풀이를 쉽게 수정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디지털 사전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까지 포함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가 언어 지식의 큰 길잡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은 다문화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를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며, 다국어사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5만 어휘 규모의 한국어기초사전도 함께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국어사전의 5개 언어(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층 쉽게 우리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라.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1)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국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어 정보 자원 및 사업 결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별 국어 정보 자원들을 통합하고 이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웹 형태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도 국어 관련 지식 정보 자원들을 체계화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훌륭한 시도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통한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언어 자원 상시 관찰, 수집을 통해 실시간 자료를 획득하여 자료의 현행화를 이루었고, 개방적 편찬 체제 운영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언어 지식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표준어, 방언, 전문용어 등 사전 콘텐츠를 구축하고, 한국어 학습자용 다국어사전을 확장하였다.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 사업에서는 미래형 한국어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원시, 분석 말뭉치 및 의미 분석, 개념 어휘망 구축, 언어자원 검증-평가 지원 도구 개발), 한국어 정보 서비스의 활

용도 제고를 위한 언어 자원 관리, 공유, 유통 체계 및 한국어 역사 정보, 학습용 콘텐츠 구축, 한국어 정보화 지원 시스템 개발, 소수자용 한국어 언어자원을 구축했다. 그리고 문자코드 표준화 등 언어 자원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한국어 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를 촉진하였는데, 한국어 교육 정보화를 위한 학습자 오류 말뭉치 등 기초 언어 자원을 구축하고, 그림·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언어 이해 기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언어 소수자 및 외국인용 한국어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언어 소수자 및 외국인용 한국어 학습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고, 사업 목표의 달성도도 우수하게 이루어졌다. 추진 계획상의 일정도 적절히 준수하여 정상 추진되었다. 특히 현대의 정책 여건 및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국어 정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기능 다양화 및 다양한 지역어 등 풍부하게 우리말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여 지식 정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한글 자료 디지털화(한글 자료 이미지 6천여 면, 문헌 해제 1,100여 매 구축 등), 디지털 한글박물관 운영 체계 개선 및 보완, 다양한 한글 정보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한 사이트 이용 확대 등과 관련된 제반 활동들을 적절히 수행하여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었다.

월평균 51만 건에 이르는 국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는 목표치인 월평균 53만 건 대비 96%를 달성하였고, 국어정보시스템의 한국어 통합 관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79%로 목표 75% 대비 106%를 달성했다. 한글 정보 이용 건수는 목표 대비 130%, 디지털 한글박물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 대비 112% 등으로 관련 정량적 달성도는 탁월하게 이루어졌다. 즉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또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을 통한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구축을 위한 목표 27.6만 건에서 28만 건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도 목표대로 달성하였다. 국어기초사전은 목표 7,000항목에 7,000항목을 추진하였으며, 다국어사전의 경우 목표 94,000항목

에서 94,000항목을 추진하여 모두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언어 정보 자원 및 축적 사업의 세부 사업인 ‘언어 정보 자원 연계 체계 구축’과 ‘어휘 의미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 확장 구축’도 모두 계획대로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를 달성했다. 국어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 목표 82%에 82.6%를 달성하여 모두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국어 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 분야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으로 660항목을 목표로 하여 660항목을 구축했고, 학습 정보 구축에서 목표 255항목에 255항목을 구축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도 국어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합 관리·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어 정보의 안정적 구축과 보급, 보존에 도움을 주었고, 국어 지식 정보의 체계화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사전 등 언어 자원에 대한 개방형 웹 방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어 정보자원을 개방형으로 제공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국어 정보 자원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우수하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국민의 한글 및 한글 정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한글 정보 홍보 활동들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한글 파괴와 외래어 범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일환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을 통한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의 경우, '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서비스 이후 달라진 언어 사용 현실과 모바일 환경으로의 가속화에 따른 집단 지성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이사전 중심의 규범사전을 탈피하여 집단 지성이 편집에 참여할 수 있고 표준어 이외에 신어, 방언, 전문용어 등 실생활 언어를 대폭 수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로서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를 설계하여 구축했다. 또한 일반인 사용자의 편집을 허용하는 위키피디아형의 장점을 취하여 설계하되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감수단이 최종 감수를 하는 형태의 절충형 체계를 기획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ISO)으로 되어 있는 언어 정보 자원 기술 규격인 어휘 표지 틀(LMF)을 채용하여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절대 주소인 유시아이(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 체계 간의 연계 표준)로 도입하여 다른 정보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했다. 언어 정보 자원의 축적 및 확산 사업은 21세기 세종계획 등 국어 정보화 중장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많은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수집하여 다수의 사용자들과 이를 공유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언어 정보 나눔터(허브)를 설계하고 기획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언어 정보 수집, 구축과 함께 많은 사용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언어 정보 나눔터로서 이를 통한 국어 정보의 지속적인 정비, 공유, 유통 체계가 활성화되어 원천 자료의 2, 3차 활용에 의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구축한 어휘 의미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과 이것의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어휘 의미 연계 정보의 파악을 쉽도록 하였다. 한국어 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의 세계화 촉진 사업은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그동안 문자나 단순 그림 정보에 머물렀던 학습 정보를 한국어기초사전을 통하여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지된 사진, 삽화 등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동작에 관련된 어휘들을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어휘 의미 정보 검색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어휘 의미 관계를 체계적·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국어 어휘 의미망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산학 연구 및 국내외 협동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 검색 및 시맨틱 웹 등의 첨단 기술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과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 어휘 의미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의 연계를 통해 어휘 의미 관계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 다만 한국어 어휘 의미망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의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하게 이루어졌다. 어휘 의미 정보 검색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명사 9만여



항목, 동사 1만 7천여 항목, 형용사 5천여 항목 등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변환 구축 및 개방형 지식 대사전 의미 단위와 연계 작업 등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 의미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은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구축이 완료되어 계획한 대로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량적인 평가의 측면보다는 어휘 의미와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의 연계 및 다각적 어휘 의미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어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바른 어휘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어 기본 어휘를 선정하여 이들 사이의 어휘 관계를 체계적으로 표상한 어휘 의미망을 구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개별 단어 수준의 기술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휘 의미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표상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 어휘 의미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른 사전 및 어휘 의미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가적 어휘 의미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자동적으로 획득된 정보가 공존하는 만큼 그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외국어 어휘 의미망과의 연동까지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고 추진될 때 사업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3)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어휘 의미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단어와 단어를 체계적으로 연동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어휘 의미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관련어 지도를 설계함으로써 진화하는 어휘 학습 시스템 환경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현황과 필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비교적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즉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의 일환으로서 8만 항목의 관련어 정보를 연결하

였고, 개방형 지식 대사전 내 어휘 의미 관계망 브라우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작업이 애초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향후 내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현재 국민들의 국어 생활에서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국어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 4) 한국어 다양성 체험관 설립

이 사업은 급격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어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어의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역어 음성 자료를 정비한 뒤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체험식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어 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한 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은 18권역 지역어 어휘 음성 자료를 3만여 항목(31,104 항목) 정도 분할하고 아울러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이 개발된 점이 높게 평가된다. 지역어 낱말 소리 듣기 서비스, 지역어 구술 자료 샘플 듣기 서비스, 지역어 어휘 음성 자료 분할, 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 2차 개발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모두 당초 계획대로 완수하게 되었다.

한국어 다양성 체험 자료는 한국어의 역사와 한국어의 존재 양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긴요한 자료이다. 또한 지역 문화 이해의 중요한 자료이나 현재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지역어를 조사하여 보존하고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사업이다.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언어 자원의 측면에서도 일정 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사업은 한글 옛 문헌이나 국어 관련 전문 도서를 다량 확보하여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간행물의 온라인 관리·배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간 자료, 수증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적 문화유산인 한글 옛 문헌과 국어 관련 고문헌 전문 도서를 다량 수집·정리·보존하는 것은 자료의 보존과 활용, 확산을 위한 소중한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보고서 및 교재 등 각종 자료와 국립국어원 간행물의 온라인 관리 체계 구축도 이들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주해천자문 등 한글 옛 문헌, 국어 전문 도서를 438종 수집하고(당초 179종 수집 계획함), 온라인 간행물 242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의 온라인 배포물 115건 등을 등록, 배포하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당초의 계획을 뛰어넘어 매우 충실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전문 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국어 전문 도서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온라인 관리 체계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한글 문화유산 역주 및 출판·보급 사업은 매우 성실하게 추진되어 한글 문화유산 보급 및 관련 학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이나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로 계녀서인 『내훈』과 옛 사람들의 구황 방법인 『구황촬요』를 선택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즉 한글 문화유산인 『내훈』과 『구황촬요』 자료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출판·보급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옛 선인들의 생활모습이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 및 한글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 이러한 분야를 처음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이 자료의 정확한 텍스트로서의 성격과 함께, 언어학적인 이해를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한글 문화유산 역주 및 출판·보급 사업으로 목표 2건에 실적 2건, 즉 『내훈』과 『구황촬요』를 역주하고 출판하여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한글 문화유산 역주 및 출판·보급 사업은 1년에 2편 정도를 계획하여 달성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관심과 투자는 옛 문헌자료에 대한 번역 및 문화유산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사장되어 있는 많은 자료를 역주하고 출판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역주 사업으로 출간된 자료를 공공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또는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의 자체 예산으로 해당 역주 자료를 구입하도록 홍보하여, 한글 문화유산 역주 사업의 성과가 일반인이나 연구자에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옛 문헌 자료의 원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말 역사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옛 문헌 자료에 서지 정보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과 일반인들에게 주제별 특별 기획전의 일환으로 국어 교과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으로 문헌 자료의 촬영 및 가공,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디지털박물관의 충실도를 높였고 역사 자료의 수집과 함께 일반인에게 보급함으로써 이런 자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에서는 특별 전시 목표 2건에 실적 2건 즉, 한글디지털박물관 특별전을 위하여 문헌 자료 촬영 6건과 가공 8건을 하였으며 국어 교과서 특별전을 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학봉 김성일 종택 소장의 '이륜행실도' 외 이미지 사진 6건을 처리하고 '대한문전' 등의 이미지 파일을 가공·처리하여 한글디지털박물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한글 문화유산을 홍보하여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연구자들에게는 이들 원문 자료를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또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을 열어서 옛 문헌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옛 문헌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를 구축하고 보완하였다.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에서 옛 전적 자료의 원문과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합당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옛 전적 자료의 원문 서비스와 이미지 자료의 제공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일반인과 관련 연구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옛 전적 자료의 원문 서비스 사업은 예산을 더 확충하여 관련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 세기 국어 교과서 특별전은 주제별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는 관점과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디지털박물관과 같은 온라인 가상 박물관의 한계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특별전을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가공된 텍스트 자료보다는 원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원문의 이미지 구축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대별 한글 자료에 대한 이미지 자료의 구축 및 가공은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사업은 한글디지털박물관에 제공할 옛 문헌 자료에 대한 이미지 구축 사업과 17~18세기 한글 옛 문헌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며 두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말 자료의 구축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17~18세기 한글 옛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했고, 또한 한글 문화유산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는데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즉 시대별 한글자료 1,124건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글 이미지 자료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한글 자료의 구축은 물론 보존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런 작업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에게 원문과 원래의 이미지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활용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한글 문화유산 정보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옛 문헌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검색 시스템을 확충하고 옛 문헌 한자어 검색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했다.

다만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글 문화유산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

축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자료의 활용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터넷상의 자료 검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이 사업은 제주와 전주 국어책임관을 통한 언어 경관 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의 추진이 일반 시민에게 밀착된 형태로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다. 지방 국어문화원을 통한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사업도 아름다운 우리말의 확산 및 우리말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디자인 위주의 경관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언어적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였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말의 우수성과 미학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도시 언어 경관 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은 목표 연 2회 시행에 연 2회 추진으로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고,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대회 목표 연 2회 시행에 연 2회를 추진하여 역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도시 언어 경관 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 과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대회’ 는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특정 지역의 거리나 지구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문화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이러한 한글을 통한 문화적 특화가 곧 특정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개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5) 한글의 산업화 지원

한글의 산업화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한글 문화 상품·아이디어 공모전’과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지원(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인데, 이 두 공모전은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주관하에 디자인, 글꼴, 한글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두 공모전을 통해 한글을 예술과 산업의 측면에서 재발견하고 한글의 생활화와 산업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글의 문화 상품 개발 촉진 및 장려를 위해 개최된 ‘한글 문화 상품·아이디어 공모전’에 2011년에는 197점, 2012년에는 200점의 응모 작품이 접수되었다. 2011년 수상작 중에는 완성품 부문의 ‘덕담 문구를 적용한 한글 우산’, 렌더링(계획 단

계의 제품에 대한 완성 예상도) 부문의 ‘한글 보도블록’, ‘한글을 이용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의 ‘내 이름은 한글’, ‘한글을 대기 번호표에 담다’, ‘한글 이름을 가진 교통카드’ 등이 있었으며, 2012년 수상작 중에는 완성품 부문의 ‘부채 보석함’, ‘효제 문자도 병풍’, ‘한글 자음 이니셜 목걸이’, 렌더링 부문의 ‘나랏말씀미 천지인 출입문 자물쇠(도어록)’, 아이디어 부문의 ‘한글 찾아 떠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있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문화로 만들고, 한글을 문화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

한글 글꼴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개최된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에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70여 개의 글꼴 작품들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2011년에는 47작품을 시상하였고, 2012년에는 41작품을 시상하였다.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은 인쇄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그 외의 환경(출판·광고·방송·이동 통신 매체, 문화 상품 응용)에도 잘 어울리는 글꼴(본문용, 제목용, 디자인)을 공모함으로써, 한글 산업화에 대한 인식이나 국민 관심을 심화·확대하고 산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진 과정의 충실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면에서 볼 때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방안으로 ‘한글 문화 상품·아이디어 공모전’과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모두 연 1회씩 개최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한글 문화 상품·아이디어 공모전’은 한글을 이용한 예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지만 이들 아이디어 작품을 산업화, 상업화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의 경우 한글 글꼴 개발 문제를 단순한 산업적, 상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자존감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므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글꼴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한글, 국어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글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에 따른 문화 콘텐츠로서의 한글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한글 주간을 기획하고, 한글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하여 제작, 수집,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되었으며, 사업 목표 달성도도 매우 우수하게 이루어졌다. 한글의 문화 가치를 높이고 한글 문화의 보존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글 문화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한글박물관 건립 사업은 『한글박물관 종합발전 방안』 결과 보고서 1부 발간(2012년), 한글 자료 수증위원회 개최(2회), 수증 7,450점(누적), 상설 전시실 전시 영상 스토리보드 제작(16편), 소장 자료의 전시 등을 위한 목록화 890여 건, 케이비에스(KBS) 라디오 광고 1회 지하철 내부 광고(30일) 등 주요 일간지(2개), 지역 신문(20여 개) 등 5단 컬러 광고 게재, 네이버 「한글 캠페인」 한글박물관 배너 설치('12년 10월 9일 이후 계속), 위클리공감(1건), 공감코리아(1건), 문화체육관광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등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글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은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일이다. 한글박물관 건립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 체험물을 제작하고, 이를 등록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전시물을 수증을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확보한 일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에서는 한글 주간 행사 연 1회 개최 목표에 연 1회를 개최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한글 문화 예술 단체 행사를 17건 지원하였다. 이 사업의 경우 한글 주간을 설정하여 국민과 더불어 다양한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문화 행사를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 주고,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한글박물관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이 민족적 수난을 극복한 우리 민족의 정신임을 선양하기 위해 세우는 기관이다. 수많은 박물관과 같이 유물을 전시하는 기관으로 한글박물관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글 창제의 정신과 한글의 과학성, 독창성을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체험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의 경우는 한글



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온 국민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고 한글 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문화 행사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또한 한글날을 즈음한 한글 주간이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재외 동포들이나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들(세종학당 수강생 등)이 동시에 한글 반포를 기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한민족에게는 한글을 통해 언어문화 공동체로 결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들에게는 한류의 중심인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글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세종학당재단 관계자들과 전 세계 세종학당의 교원, 수강생 등이 화상통화로 한글날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은 흥미 있는 시도였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 제4장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추진 개요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 제4장 향후 추진 계획

### 제1절 추진 개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시행 결과’를 살펴보았다. 2011년도는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 시행된 마지막 해이고, 2012년도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 시행된 첫해이다. 이 기간에 정부는 급변하는 국어 환경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1~2012)의 추진 실적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남은 기간(2013~2016)의 계획을 보완할 때다.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2011)에서는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을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2)와 3)은 결국 한국어 세계화와 관련된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서도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가 유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며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에 맞춘, 적절한 대응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세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대상도 주로 아시아권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국어 정책의 주요한 한 축으로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언어 공동체 내부에서 시행하는 언어정책의 목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인 화두는 다문화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다문화·다언어 사회의 공존’이 어문정책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내적으로 다변화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계층, 이주

민 등 다양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쉬운 공공언어 쓰기 확대와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전제하므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대들보라 할 수 있는 국어의 내적·외적인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우면서 세련된 표현·표기 지원 등 국어의 내용적인 면과 더불어 정보화 수단을 통한 손쉬운 검색 등 국어 사용 환경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국민의 국어 표현 능력 등이 개선 또는 신장되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도 나아짐에 따라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어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언어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어 자료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언어문화 자산인 한글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한글 날 행사를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글 활용도를 높이는 등 한글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아래의 여러 시책 중 대내적으로는 소통의 국어 문화 확산(공공언어의 소통성 높이기)을, 대외적으로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을 중요한 시책으로 꼽을 수 있다.

〈표 4-1〉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책의 향후 추진 방향

시책	추진 방향
언어 정책 기반 조성 국어 능력 향상	가.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 1) 새터민 배려 정책 2) 언어 소외 계층 지원 강화 나. 소통의 국어 문화 확산 1) 공공언어의 소통성 높이기 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다. 품위 있는 언어생활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시책	추진 방향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가.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1)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나.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 문화의 국외 확산 1) 세종학당 확대 지정 및 운영 2) 세종학당 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3) 운영 평가 및 관리 체계 정비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가. 국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운영 2) 유형별 말뭉치 구축 3) 지역어 자료 구축 및 활용 등 나. 한글의 국내외 위상 제고 1) 한글박물관 건립 및 운영 2) 한글날 행사 다양화 3) 한글의 활용도 강화 등

##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 1. 언어 정책 기반 조성 및 국어 능력 향상

#### 가.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의 매개체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통합하는 데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국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언어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탈북 동포),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청각 장애인·시각 장애인 등 언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언어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현안이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여는 관건이다.

### 1) 새터민 배려 정책

새터민의 탈북 행렬은 1990년대부터 이어져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새터민의 수가 약 24,000명을 넘어섰다. 새터민은 남북 언어 통일의 시금석이 될 사람들이니 남한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새터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표준어 교육, 새터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언어 교육 강사 양성 등이 필요한 때이다.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새터민의 사회 부적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새터민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 연구, 새터민 지원 교사 연수, 새터민 표준어 교육 시행 등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새터민의 언어 적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남한말의 화법, 구어적 특징인 발음과 억양 등 말하기 부문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구어 교육 자료와 음성 교육 자료 개발 구축 사업을 할 것이다.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관련한 언어 문제 제반 양상 조사(2013년)를 바탕으로 새터민 언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표준어 교육 단계별 훈련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 2014년에는 새터민을 위하여 ‘표준어 어문 규정·발음·억양·어휘·화법’ 등에 대한 교육 단계별(기초·고급) 교육 내용을 선정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수립된 새터민용 강좌·교재의 단계별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2〉 새터민용 강좌·교재 단계별 개발 계획('13년~'16년)

연도	새터민용 강좌·교재 단계별 개발 계획
2013	○새터민 표준어 교육 단계별 훈련 기본 모형 구축
	○새터민용 표준어 구어 학습용 교육과정 및 기초 교재 출판 및 보급
	○새터민용 필수 어휘 자료집 개발 및 출판, 보급
2014	○새터민용 표준어 화법 학습 기초 교재 출판 및 보급
	○새터민용 표준어 어문규정 학습 기초 교재 출판 및 보급
	○새터민용 표준어 어휘 학습 고급 교재 개발
	○새터민용 표준어 발음억양 학습 과정 및 고급 교재 개발
	○새터민용 표준어 화법 학습 고급 교재 개발
	○새터민용 표준어 어문규정 학습 고급 교재 개발



연도	새터민용 강좌·교재 단계별 개발 계획
2015	○새터민용 표준어 어휘 학습 고급 교재 출판 및 보급
	○새터민용 표준어 발음역양 학습 과정 및 고급 교재 출판 및 보급
	○새터민용 표준어 화법 학습 고급 교재 출판 및 보급
	○새터민용 표준어 어문규정 학습 고급 교재 출판 및 보급
2016	○이미 발간한 교재의 보완 및 증보

이런 흐름에 따라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연수회를 운영('15~/연 4회 이상)할 것이며 새터민 언어 교육 교사용 교재 개발 및 교사 대상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새터민용 어휘·발음·역양 기초 교재용 지침('14) → 새터민용 화법·어문규정 기초 교재용 지침('14) → 새터민용 어휘·발음·역양 고급 교재용 지침('15) → 새터민용 화법·어문규정 고급 교재용 지침('16)”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다.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 교사 및 새터민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연수회도 정기적으로 실시(연 2회)할 것이다.

60여 년의 정치적·지리적 분단과 함께 소통마저 단절된 결과,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이질화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남북 교류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민간 개인 차원에서도 서로 쉽게 만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로간의 동질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있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 언어 통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새터민이 새로운 소외 계층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여 보존 차원에서 사회가 이들의 언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선 우리 국민들이라도 북한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언어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둘째, 개정 시행된 지 25년이 지난 현행 어문 규범의 정착 여부를 세밀히 측정하여 개정

사항을 도출하는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치밀한 연구와 의식 조사 등을 병행하여 남북통일 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어문 규범 통일안을 마련한다.

## 2) 언어 소외 계층 지원 강화

2013년에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하나로 ‘(가칭) 한국 수화 기본법 제정’이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개별법을 통해 수화 관련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화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청각 장애인의 수화 사용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장려되어야 할 모어 사용에 대한 권리(복지적 차원의 관점보다 기본적 권리 보장의 관점)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청각 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수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각 장애인의 언어 복지나 농문화 지원을 위한 정책도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수화, 점자 등의 정비를 통한 언어 소외 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수화, 점자 등 특수 언어를 체계화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언어 소외 계층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 기반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발한 각종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고 점역(點譯: 일반인의 말을 점자로 변환)·역점역(逆點譯: 점자를 일반인의 말로 변환) 소프트웨어를 갱신(업그레이드)하고 점자 규정을 유니코드화 하는 등의 시대 요구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 언어(수화, 점자 등)에 대해 언어적 전문성을 가지고 표준화·체계화하는 일도 지속하겠다. 온라인 점자 학습 누리집 운영, 점자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결과물을 널리 제공하고 활용할 것이다. 표준화한 수화·점자의 보급 및 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점자 규정 등의 보완 연구도 지속할 것이다.

한국 수화 표준화 사업 계획에 따라 표준 수화 확립 및 보급(연중)을 위해 2011

년에 1차 완료한 일상생활 수화 및 경제 용어 수화의 표준화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점자세상(www.braillekorea.org)”과 같은 온라인 강의를 늘려 나갈 것이다. 온라인 점자 학습 사이트 운영, 점자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업 결과물을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 나. 소통의 국어 문화 확산

### 1) 공공언어의 소통성 높이기

공공 부문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외국어 남용으로 대국민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방송 매체에서 자극적 언어, 저품격 언어 사용이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통이 원활하고 품격이 높은 공공언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등으로 공공기관 언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후속 세대를 위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 언어의 순화 방안 모색 및 질적 개선 등 건전한 언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해 온 연속 사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 언어 개선 지원, 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한 전면적 진단 평가 시행, 대중매체 언어 개선(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통이 원활하고 품격이 높은 공공언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등 공공기관 언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언어 환경 개선 지원 및 진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청소년 등 후속 세대를 위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 언어의 순화 방안 모색 및 질적 개선 등 건전한 언어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가) 공공기관 언어 개선 지원 강화

공공언어 감수단 조직·운영을 통한 공공언어 감시의 양적·질적 확대가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2013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며, 국어 관련 전공 대학원생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공공언어 감수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것이다.

공공기관 언어 전용 누리집 확대 개편으로 공공기관 언어 개선안 안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일은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2013년 이후에도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추진할 것이다.

#### (나) 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한 전면적 진단 평가 시행

공공기관의 언어 진단 평가 기준 확립 및 보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일,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일 등이 2012년에 추진되었는데, 중앙부처 평가('13), 지자체 평가('14) 등에 활용하는 후속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년 연말 우수 기관 포상을 하는데 공공기관 언어 진단과 결과 통보 및 결과 순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실시한다. 공공언어(교과서, 법령, 정책명, 제도명 등)의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기 위해 사용 지침을 개발('12)한 데 이어, 2013년 이후에는 보급·확산할 것이다.

2010년 발간된 이후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자료 바로 쓰기』와 같은 공공언어 개선 연속 기획물도 계속 더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것이다.

#### (다) 대중매체 언어 개선

신문·방송인(기자, 프로듀서, 작가 등) 및 매체 관계자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신문·방송인 대상 바른 국어 사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2년~'16년/연 1회 이상)하고 신문·방송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도 계속 보완하여 개발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재 개발('12년)과 보완 발간('13년~)이 이루어졌다.

매체 언어 개선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각 방송국의 우리말 관련 방송을 지원하고 한국어문기자협회와는 신문 언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과 홍보('13년~'16년/연1회)를 추진하고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 언어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12년)한 것을 바탕으로 매체 언어 품질 평가 체제(공공언어 감수단 활용)를 운영할 것이다.

방송언어 조사·분석 및 결과 발표(월 2회)도 지속적으로 하여 방송언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방송사로 전달함으로써 자체 정화를 유도한다.

## (라)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2012년에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간의 연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중앙 행정기관 145곳, 지방자치단체 247곳 등 총 392곳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활동 중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임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2012년부터 실시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3년 이후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국어책임관 사업에 대한 공모와 지원을 통해 국어책임관 연수회 개최 및 교육을 확대(연 2회→연 4회)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 과제에 국어책임관의 업무의 하나인 ‘공공언어 사용 개선’ 또는 ‘알기 쉬운 정책 용어 쓰기’의 실적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13년~). 또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언어 사용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확산(13년~)할 것이다.

## (마)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지원

앞서 소개한 (가)~(라)가 공공언어의 대내적인 소통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면, (마)는 공공언어의 대외적 소통성을 높이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마)는 다음에 소개할 “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요 문화·관광 용어, 공공 명칭 등에 대한 주요 외국어 번역 지침 및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행정 비효율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화재명, 공공기관, 도로명, 관광지 안내판, 시설명 등의 외국어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들의 혼란과 불편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식명을 예로 보더라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영어식 표기가 혼재하여 표현상의 통일성이 없는 경우(예 만두전골 Mandu Hot Pot, 만둣국 Dumpling Soup),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경우(예 떡볶이: tteokbokki(올바른 표기), topokki(잘못된 표기))도 종종 발견된다. 이와 같이 음식명을 포함한 문화·관광 용어, 공공명칭에 관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표기 및 번역과 관련하여 정부 내 총괄 관리 및 조정 기능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용어의 공공성, 소통성,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문화번역원이

협력하는 체제로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립국어원과 한국문화번역원 간 협업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번역원은 이미 확보한 번역 인력들을 활용하여 기초 번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국립국어원은 공공용어의 번역 표준화를 총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각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표기 표준과 번역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표기안·번역안이 국어어문 규범에 합치되는지를 검토·심의하여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일이 공공용어 번역에서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 공공용어(한국어·외국어) 수집·분석, 2. 어문규범에 따른 한국어-외국어 문자표기 변환 및 번역안 마련, 3. 표준안 심의, 4. 고시·보급·관리' 이상의 전 단계에 걸쳐 규범적 준거에 따른 판단 및 어문정책과의 연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립국어원이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용어 번역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국립국어원이나 한국문화번역원 모두 기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판단된다. '공공용어번역과'나 '공공용어번역팀'을 꾸릴 정도로 다수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번역 및 표준화하는 일과 더불어 한국적 요소(우리의 인명, 지명, 단체명, 문화재명, 음식명 등)를 외국어로 번역 및 표준화하는 일 즉,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번역이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의 기본 업무가 된다.

한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로마자 성명 표기 방식의 혼란이 있었다. 한국인 로마자 성명 표기 방식의 혼란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런던올림픽 때부터 선수 경기복의 로마자 성명(영문 성명) 표기를 '성+이름'순으로 통일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맞춰, '로마자 성명 표기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2013년 3월 21일 자로 시행하였다. 이 공문을 통해 명함, 명패, 영문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올바른 표기 적용하는 데에 공무

원은 물론이고 관련 공공기관, 단체 구성원도 동참해 주기를 권장하였다.

### <로마자(영문) 성명 표기 권장안> 31)

Hong Gildong (‘성 이름’ 순서)

Hong Gil-dong (‘성 이름’ 순서, 붙임표 사용)

‘성 이름’ 순서는 한국의 전통과 언어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언론사(AP통신, BBC, 뉴욕타임스 등)나 유네스코에서도 로마자(영문) 성명을 ‘성 이름’ 순서로 표기하는 국가의 전통을 존중해 주고 있다. ‘성 이름’ 순서로 한국인의 성명을 일관성 있게 표기하는 일은 한국의 전통과 언어문화 정체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국인의 성명을 로마자로 적을 때에 ‘성+이름’순의 방식보다 ‘이름+성’순의 방식이 국제표준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영어권을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며, 국력·국격에 맞고 우리의 전통과 언어정체성을 나타내는 ‘성+이름’순의 방식으로 표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영문 누리집, 해외 공관 등의 직원 명단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및 개선 권고를 활발히 하였다. 앞으로도 ‘성+이름’순의 로마자 성명 표기 방식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문인 성명 목록(데이터베이스)에 ‘성+이름’순 표기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영화, 음반 등 한류 상품의 자막 표기에도 반영하고, 국제 대회 선수·임원 성명 표기에서도 ‘성+이름’순 표기 방식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문화계, 체육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31)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 7. 7.)에 따른 권장안임. 위 두 표기 방식에서 각각 ‘성’ 전체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용도로 허용할 수 있음.

## 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전문용어 표준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 내외의 갈등으로 표준용어의 마련과 보급이 미비하다. 따라서 국민 언어생활과 밀접하여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부터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하여 공공성과 소통성을 확대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체계 구축으로 관련 학회나 단체, 협력 기관, 기업, 일반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용어의 본보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소통 장애를 최소화하여 편리한 국어 생활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가) 국민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확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용어 표준화('12년~)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한 각 중앙부처 행정용어의 표준화 추진을 더욱 강력하게 권고하고 문서결재시스템에 표준화 또는 순화된 행정 용어를 탑재하도록 추진할 것이다(안전행정부와 지속적 협력 추진).

학술분야 용어의 단계적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표준화된 용어를 고시하여 공신력을 부여한다. 학술단체총연합회, 분야별 관련 학회 등과도 정보 교류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나) 전문용어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 강화

학회·협회 등 전문단체와의 표준화 관련 협력 체제 마련('12년)을 바탕으로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 전문용어 및 뜻풀이 탑재를 추진('12년~)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전문용어 표준화(ISO TC37)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언어자원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 문서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연 4회),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것이다(연 2회).

국민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고 전문용어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더불어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고 민간 및 정부 부처의 전문 분야 용어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용어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제



활동 및 국제 표준의 현지화 활동에도 협력할 것이다.

### 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빈번한 비속어 사용, 정부의 법적인 권한 미약, 사후약방문식 감시 행정 등으로 쉽고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한글단체, 대중매체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언어문화 시민운동의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혼탁한 언어 환경에서 국민의 국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며, 쉬운 공공 언어, 품격 있는 매체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글사랑지원단’ 활동 지원(’09년), ‘우리말 가꿈이’ 활동 지원(’10년~’12년)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어 운동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이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통해 국어 운동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언어 환경 개선의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민간 단체의 우리말 가꿈이 활동으로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스크린 도어’를 ‘안전문’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어 운동 단체, 우리말 사랑 동아리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다. 품위 있는 언어생활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품위 있는 언어생활은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세 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이고, 둘째는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이고 셋째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이다.

### 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시대 변화,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생활 언어 규범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친족 간 호칭, 존대법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생활 언어를 반영한 규범 정비 및 안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언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따라서 국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어 문제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의문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국어에 관한 전문적인 상

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상담 체제를 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상담 만족도를 향상한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언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다.

(가)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 제공

1992년에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 화법 해설』은 호칭어, 지칭어, 인사말 등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았으나 20년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에 대한 국민 수요도 커졌다. 이런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1년 12월에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을 2012년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각급 학교), 신문사, 방송사, 관련 학회, 출판사, 민간 등에 책자를 배포하여 우리말의 언어 예절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2013년에는 『표준 언어 예절』 책자의 수요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표준 언어 예절』의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용 웹 검색기로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 언어 예절 웹 검색기’는 사용자의 성별, 대화 장소(가정 또는 직장), 듣는 이와 관계 등 세부사항 입력 후 올바른 호칭, 지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또 백화점, 병원 등 서비스 업계에서 잘못 사용하는 존대어(과잉 존대 또는 사물 존대의 ‘-사’, 병원 등에서 ‘주사 맞으십시오’나 ‘주사 맞으세요’ 대신 쓰는 ‘주사 맞으실게요’ 등)에 대한 개선 활동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업계의 과잉 존대를 개선할 지침서와 교육 동영상도 재미있게 제작하여 서비스 업계에 두루 배포하고 그 외 희망하는 기관에도 두루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21세기 정보통신 환경에 맞는 새로운 ‘문장부호 규정’에 대한 요청이 언론 출판계, 교육계 등에서 점점 많아짐을 고려하여 문장부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의 문장부호 규정은 한글맞춤법 내 부록 형태로 고시(1988)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문 규정의 내용과 언론출판계, 교육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 부호 용법의 차이로 인해 문장 부호의 사용에 혼란이 발생하여 2012년부터 본격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2012년에 공청회 개최,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심의, 설문 조사 등을 거쳤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2013년 4월 국어심의회 전체회의 보고하였는데, 국어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을 중

심으로 주요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원내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13년 6~7월), '13년 10월경 '문장 부호' 개정안을 완성하고, 11월~12월경에는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 '문장 부호' 개정안을 재상정하여, '13년 말(또는 '14년 초)에 문장 부호 규정을 고시하고, '14년 중에 개정 '문장 부호' 해설서를 발간하여, 새 문장 부호 규정을 출판 교육계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속속 쏟아지는 각종 신규 외래어의 표기와 로마자 표기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수시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주1회 심의 결과를 언론매체에 배포하고 새 주소와 지명, 지물명 등의 로마자 표기 자료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다.

각종 어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어문생활 지침은 홍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소식지, 국어원 기관지, 국어연감, 국어원 누리집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서비스,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문생활 지침 제공 서비스를 활발하게 해 나갈 것이다.

계간지 『새국어생활』은 국어 정보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국어 정책과 국어 교양 서적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후에는 보급처를 더 확대하여 가능한 한 초중등학교 도서관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국어생활』은 주제와 집필진을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독자 투고란을 두어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반영한다면 더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는 종이책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 다수에게 국어 정책을 알리고 국어 교양을 축적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했지만 전국의 교사, 교수, 기자, 방송인, 광고업 종사자, 문인, 번역가, 국어관련 단체, 학회 등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정책 고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식지를 발송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어 정책의 쟁점 사안이 무엇인지, 국립국어원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등을 국민이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운동'과 같은 바른 국어 문화 확산 운동 등에도 성과가 배가될 것이다.

### (나) 국어 생활 상담 서비스 확대

국민들의 언어생활 불편 해소와 향상을 위해서는 섬세한 언어정책과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 생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맞춤법·표준어 등 어문 규범 위주의 상담 서비스에서 어법, 언어 예절, 속담·관용구, 북한말, 방언 분야 등으로 확대('12년~)한 상담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상담 서비스 창구의 다각화로 국민 편의를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제된 국어 상담 내용을 인터넷 종합정보사이트(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12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담 건수('12년 운영 실적: 전화 85,147건, 온라인가나다 16,032건, 트위터 14,001건)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상담의 질 또한 질문의 다양화·심화에 맞추어 높여 나가도록 한다.

자주 하는 질문을 매년 누적하여 통합 정리할 예정이다. 2011년에 시범 시행하고 2012년에 본격 도입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상담과 정보 제공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상담 자료집을 발간·배포('14년)하여 총체성과 역동성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 생활을 비롯하여, 국어학 분야의 점차 고도화되는 상담 내용에 대처할 전문 상담 체제를 마련('12년 석사급 상담원 확충)하였고 이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12년 12월 31일 현재 상담 인력 10명 중 6명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차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심으로 상담 인력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어문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용례의 지속적 보완 및 보급 체계도 구축하며, 국어 생활 종합 상담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무 교육 강화 등 이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 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력과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지원 장치 등이 부족하다 보니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여건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또한 멀티미디어 환경 확대에 의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표현 수단 대비 품격 있는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는 첫째로, 수요자 맞춤

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둘째,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확대하고, 셋째,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 (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관련 강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체제가 부족하다. 국어문화학교 강좌와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온라인 강좌가 있으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더욱 섬세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표 4-3〉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과정 증가 현황('10~'12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 사유
정규 과정	19회 2,177명	18회 2,353명	18회 2,400명	○공무원·일반인 과정: 5일 과정(3개반) 연 14회 개설 ○교사 연수 과정: 5일 과정 연 4회 개설
특별 과정, (청소년 우리말 교실 포함)	16회 997명	32회 4,030명	187회 5,969명	○외부 기관의 요청(대전군수서령부, 광양시청 등)으로 그 기관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특별 과정 개설(3회 190명) ○2011년 하반기, 2건의 업무협정 체결(국립국어원·에스비에스·경기도교육청, 국립국어원·강서교육청)로 경기도 및 강서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강의 제공(2011년 21회 3,613명, 2012년 169회 4,528명) ○2012년 하반기,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등 신규 국어문화학교 교육 과정 개발 ○2012년 하반기, 지역 아동 센터 아동 대상 저소득층 기초 국어 능력 향상 교육 과정 신규 운영
강의 요청	15회 489명	133회 5,313명	111회 5,055명	○새터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지원 요청이 2011년부터 급증(2011년 9개 기관 13과정 325명, 2012년 10개 기관 10과정 245명) ○이외에도 국회사무처, 지자체(연수원), 여러 기관·단체 등 모두 65개 기관에서 120회 강의 요청

정기적 수요 조사와 설문 결과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직업군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12, '14, '16)하고, 수요 조사 다음 해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13, '15)해야 한다.

(나)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의 확대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어 강좌를 현재의 어문 규범 위주의 강좌에서 국어 생활에 실용적 도움이 되는 강좌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강좌를 개발하고('12), 시범 강좌('13)를 운영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강좌를 정상적으로 운영('14~)할 계획이다. 새로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할 때에는 국립국어원의 원내 국어문화학교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등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후에 강좌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집합식 강의(오프라인 강의) 환경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온라인 강의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강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개발 완료된 강좌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바른 말하기', '구별해야 할 어휘', '훈민정음의 이해' 등 13강좌이며, 앞으로 국어 능력 향상 전반에 참여 학습이 가능한 수준별 강좌 개발이 가능하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 강화('12~)를 통해 학습 관리 정보화 시스템(LMS)을 이용하여, '정규 과정(매월)', '선택 과정(수시)', '공개 과정(평가 미 실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체제를 확대하도록 한다. 공무원 수강생에게는 교육 점수 인정 강좌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국민 공개 과정에서는 국어문화학교 공개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다.

(다)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교육 강화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지방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과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강좌와 맞춤형 교재를 개발·제공할 것이다.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24	27	35	29	36	151
	인원(명)	2,443	2,733	3,174	2,701	3,841	14,89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148	297	316	334	456	1,551
	인원(명)	10,275	19,062	27,804	28,689	40,264	126,094
기획 과정	횟수(회)	-	-	15	81	75	171
	인원(명)	-	-	489	5,919	5,055	11,463
총계		12,718	21,692	31,467	37,309	43,243	146,429

지역 국어문화원을 통한 연계 교육의 실시하고,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국어 강사 인력 확보와 교재 보급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교육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국어 교육 전문가 및 국어 분야 종사자를 위해, 지금까지 단발적·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어 특별 교육 과정의 다양화·상시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영역 확대 및 교육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추진하여 통합적인 국어 교수·학습 센터로서 국어문화학교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 국어 전문 교육과정의 다양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온라인 국어 강좌로 개발하여 국어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 교육 기관화하는 일을 더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어책임관, 공무원(국어책임관 업무 보좌 공무원, 법령·조례 입법 공무원, 문화 및 언어 정책 관련 담당자, 재외 한국문화원, 코리아센터 및 한국교육원 관련자 등), 국어문화원의 상담요원, 언론인, 방송출판인, 교사, 교과서 제작자, 국내외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중 한국어 교육 종사자 등을 잠재적 수요자로 한 ‘언어문화전문교육기관’ 또는 ‘언어정책대학원’을 설립하는 일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청소년의 언어생활에서 욕설이 일상화된 지 오래되었다.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며, 욕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5.4%에 불과하다(‘11년, 여성가족부 조사). 그러나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개선 대책 및 관련 교육 자료 개발이 미흡하다.

청소년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 필요하다. 기존의 교재들이 청소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집중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언어 능력 향상

과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언어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으로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언어 환경 조성에 대중가요 작사가, 게임 콘텐츠 개발자 등 어른들이 앞장서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해 힘쓰는 학교나 학생 단체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실천 노력 확산이 필요하다.

언어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위한 학생 자율 활동 성공 사례, 청소년 언어 개선 성공 사례 등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운동, 행사 개최 및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청소년 언어 개선 동영상 줄거리 공모전’을 비롯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주제별·형식별 행사를 기획하고, 연차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13년~).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교사나 학생들의 자율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교내 방송 제작’, ‘신문 잡지 기고’, ‘동영상 교내 시사회’, ‘관련 방송 프로그램 시청 후 의견 나누기’ 등 청소년 언어 개선 활동 과제 공모 및 선정·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13년~).

## 2.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의 전략적 확산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2011)의 3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내용을 계승하여 궁극적으로 유럽, 북미, 남미 등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한류 열풍,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세종학당의 설립을 확대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의 한국어 강좌를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해 나간다.

아직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초기 단계에 있어, 교수법이나 교재, 교육 환경 등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에게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한국어 교육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자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역할의 미분화는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운용 및 교수 학습법, 언어 이론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분야별 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둘째,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학문 목적의 유학생 등 한국어 교육 대상에 따른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현재 누리-세종학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중급 및 고급 수준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한국어 교육 시장의 확대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경우 민간의 사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의 출신지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을 지원한다.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식을 갖춘 한국어교원이 요구된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3년 8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전공 과정을 거친 인원과 단기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합쳐 10,793명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어교원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한국어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한국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한국어교원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교원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전공의 정규 과정을 통해 배출되거나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전자는 대학의 정규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만큼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양성 과정의 경우 비록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120시간의 한국어 교육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고 하나 국어, 국어학 또는 교수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한국어교원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등을 통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현직 교원이나 자격증 소지자에게 해외 파견 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둘째, 국내 상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국외 한국어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지 한국어 교사의 국내 연수 기회를 점차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에 우후죽순 격으로 개설된 단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어 양성 과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인증제로 전환하며 부실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양성과정 운영을 제한하도록 한다.

넷째,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단기 양성과정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어교원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이 명실 공히 한국어 교육 능력자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 등이 현실화되고 일관성이 있도록 개선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와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 문화의 국외 확산'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 가.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1)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확장된 한국어 교육의 외연에 비하여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어휘·

문법·표현 항목을 조사·수집하고 이를 수업 자료로 개발할 계획이다. 등급별 내용 제시와 함께 유학생·근로자·다문화가정 등 교육 현장에 맞게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현장 활용이 가능한 상세 교육 내용을 예시하고 상황별 수업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교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되고 풍부한 익힘책, 지침서 등의 교수·학습 보조 교재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표 4-4〉 한국어 교수 학습 보조 교재 개발 현황 및 계획('11년~'16년)

'11년~'12년	'13년	'14년~'15년	'16년
초급 어휘·문법	중급 어휘·문법	고급 어휘·문법	어휘·문법 통합 정리

둘째,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용 온라인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 강좌 개발을 확대하고 현재 9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누리-세종학당의 소통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 등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2014년). 2012년부터 누리-세종학당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한국어 교육 자료(그림, 사진, 음성, 애니메이션, 만화, 동영상, 텍스트 등)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한국어 교육 콘텐츠의 명실상부한 총본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 등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의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취득을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어 방문 지도사 재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가고자 한다.

〈표 4-5〉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 재교육 계획('13년~'16년)

'13년	'14년	'15년	'16년
2,900명	3,000명	3,100명	3,200명

또한 방문 교육이나 집합 교육마저도 어려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화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한국어 원격교육 서비스 및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 (가)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우수 한국어 전문가의 국외 파견은 해외 세종학당 등 해외의 주요 거점 지역에 있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현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해 왔다. 앞으로 파견 국가 다변화 및 파견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전 세계적 교육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자 한다.

〈표 4-6〉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현황 및 계획('11년~'16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6명	20명	50명	80명	100명	120명

### (나) 한국어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강화 전략

국내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세종학당 교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주요 세종학당을 거점으로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자격 시험을 향후 몇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주요 해외 거점 지역에서도 동시에 시행하려고 한다.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되, 해외 현지에서 자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전공·경력 등을 고려한 '광의의 전문교원' 채용을 한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원 자격자 해외 파견 및 현지 교원 양성을 통해 2015년까지 교원 자격자 충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4-7〉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자격자 충원 비율의 확대 현황 및 계획('11년~'15년)

연 도	'11년	'12년	'13년 (목표)	'14년 (목표)	'15년 (목표)
기관당 유지격자 수 (일반 세종학당)	1명	1명	1명	2명	2.5명
기관 평균 교원 수 (총 교원 수/세종학당 개소 수)	4.9명	4.02명	4명	6명	6명
기관당 유지격 비율 (유지격자/평균 교원 수)	20%	25%	25%	33%	42%

누리-세종학당 시스템을 통해 현직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학사 관리법·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사용법 등에 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매년 300명 가까운 국내외 한국어 교원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원 및 교육 기관 간의 교류 협력망을 강화하려고 한다.

## 나.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 문화의 국외 확산

### 1) 세종학당 확대 지정 및 운영

고용허가제, 한류 열풍, 한국기업 해외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세종학당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된 세종학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대표 기관으로서 갖는 통일된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종학당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를 목표로 출발하여 2011년 연말까지는 31개국 60개소에 개설되었으며, 2012년 연말까지는 43개국 90개소에 개설되었다. 2017년까지는 200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학당 설치·운영 사업에서는 앞으로 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4-8〉 세종학당 설립 중기 계획(누계) ('13년~'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20개소	140개소	160개소	180개소	200개소

세종학당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먼저 멀티미디어 교육 및 전용 문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음악(K-POP 등),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때 각 세종학당별 수요를 분석하여 시급성, 효과성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한글 주간에 맞춰 국외 세종학당들도 이 기간에 한글 및 한국어 관련 문화 행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2) 세종학당 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한국어교원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세종학당별 교과과정 및 교재 표준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자국어 보급 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독일, 프랑스 등은 유럽평의회의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따라 6단계(A1~C2)로 교육과정 표준화), 표준교재를 제작·배포하고 있다(중국의 경우 공자학원 총부에서 표준교재인 '장성한어' 제작·배포).

2010~2011년에 걸쳐서 국제통용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준 및 교육 조건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된 60~90시간의 탄력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표준화 및 전문성을 높여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10년 국립국어원 개발) 및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과정('11년 12월 개발 완료)에 따라 세종학당의 단계별(초·중·고급)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유학생·근로자·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제통용 표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다양한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모형을 상세화하고 이를 실행할 나가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 3) 운영 평가 및 관리 체계 정비

2012년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은 각 지역의 세종학당에 대한 운영 평가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세종학당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의 지정, 표준 교육과정 개발, 표준 교재 개발, 전문가 해외 파견,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학습 관련 통합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교원 및 세종학당 운영자를 위한 교육 관리 시스템 및 한국어 수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어서 한국어 교원 관리 및 연수 지원 시스템을 2014년에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학당 운용 면에서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 평가, 학사 관리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종학당재단’을 통하여 실효적 지침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 3.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 가. 국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운영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언어생활 자료를 집대성하여 디지털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전 편찬이 폐쇄적이고 비연속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는 일반인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가,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작업하여 만들어 나가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다.

현재는 1단계(2010~2012) 사업인 위키피디아형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고, 언어 정보의 유통 및 검색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은 2단계(2013~2015) 정비 및 안정화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에 구축된 사전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교정·교열 및 정비를 수행하고, 2016년 일반인 개통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전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3단계(2016 이후) 사업은 서비스 및 확산의 단계로, 한국어 생산

과 사용의 주체인 일반 국민이 사전 편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에 사전을 공개하고, 일반인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함께 한국어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단계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9〉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	구분	추진 내용
1단계 ('10~'12)	사전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자료 집대성(100만 항목 사전 구축)</li> <li>• 위키피디아형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개발</li> <li>• 언어 정보의 유통·검색 지원 시스템 구축</li> <li>• 한국어기초사전 및 5개어 다국어사전 구축</li> </ul>
2단계 ('13~'15)	정비 및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축 자료의 교정·교열 및 정비, 감수</li> <li>• 사전 정보의 다각적 보완</li> <li>• 일반인 개방에 대비한 사전 정보 관리 운영 체계 확립</li> <li>• 주요 언어를 중심으로 한 5개어 다국어 사전 구축</li> </ul>
3단계 ('16 이후)	서비스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개통운영, 일반인 참여 활성화</li> <li>• 일반인 구축 자료의 전문가 감수</li> <li>• 한국어 지식 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li> </ul>

## 2) 유형별 말뭉치 구축

국어 정보의 안정적 구축과 보급, 나아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효율적인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때 국어 정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말뭉치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구축되어 온 연세 한국어 말뭉치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울산대학교 등에서 구축해 온 말뭉치가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는 국어 기초 자료 구축 분과에서 원시 말뭉치 5,700만 어절, 형태 분석 말뭉치 1,000만 어절 규모를 구축함으로써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국어는 자연언어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국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말뭉치 형태로 꾸준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말뭉치를 양적인 면에서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목적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말뭉치로는 시대별 말뭉치, 구어 말뭉치, 영역별 말뭉치, 지역어 말뭉치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언어 실태 조사용 원시 언어자원 구축을 위한 원시 언어 말뭉치를 확보할 예정이고, 실



용언어 정보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고 한글 및 한국어 역사 정보 말뭉치와 소수자용 한국어 언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수자용 말뭉치와 한국어 교육 정보화를 위한 학습자/오류 말뭉치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구축하고 보급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어의 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3) 지역어 자료 구축 및 활용 등

언어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지역민의 정서가 녹아 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은 권역별로 지역어를 조사하여 전사하고 이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와 국외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와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 지역어 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향후 지역어를 권역별로 조사하여 문헌 및 음성 자료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어 음성 자료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구축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활용 서비스를 기획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구축된 자료가 소수 전문가의 참고 자료만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이다. 즉 지역어 음성 자료를 전사 자료와 함께 웹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국어 연구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어 교사, 학생 등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글박물관의 전시 콘텐츠로 변용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현황을 쉽게 알려주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어의 언어적 특색, 지리·역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지역어 경연대회의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지역어 경연대회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경연대회 방식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앞으로 지자체 및 민간의 자발적 경연대회 등 지역어 축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어 활용 상품 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어 진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2012년 지역어 상품 원형 개발 공모전을 성공

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어 상품 개발 지원과 지역어 상품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귀농인, 연기자, 지역 정착 이주 외국인 등의 지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별 지역어 교재 및 학습서 개발 지원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어 자료는 또한 국어 순화에 활용할 수도 있다. 생소한 개념이 외국어 용어로 우리 사회에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순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되는 개념 요소가 어떤 지역어에서 발견된다면 비록 표준어가 아닐지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언어문화의 유산인 그 지역어 요소를 도입하여 우리말화함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작가들이 애써 사용하는 지역어가 예술 창작 등에 활용되어 우리 감성에 맞게 활용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단단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듯이, 새로이 발굴되는 지역어 또한 이러한 측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역어의 보존과 발전은 우리말의 진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 나. 한글의 국내외 위상 제고

### 1) 한글박물관 건립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가 상징 문화 공간 조성 계획의 하나로, 한글 창제 정신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종합 전시·교육의 장이 될 한글박물관이 오는 2013년까지 서울 용산에 건립될 예정이며 2014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한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1만1천322㎡(3천4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그 전시 면적은 4천200㎡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가 조화된 친환경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글박물관은 단일 문자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인데, 그 위상에 걸맞은 전시 및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할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전시 설계 추진

- (가)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 방식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부각한다.
- (나) 전시·체험·연구·교육이 연계 운영되고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다) 전시공간은 상설전시실과 교육체험실, 그리고 한글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한글누리 등 세 곳으로 나뉜다. 이 중 상설전시실은 ‘한글을 만든다’, ‘한글을 꽃 피우다’, ‘한글을 생각하다’로 세분해 관련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다.
- (라) 한글박물관이 과거의 유물 전시에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전시 내용을 구체화한다.
- (마) 친환경·친인간 박물관을 지향한다.

## (2) 교육 프로그램 추진

- (가) 한글박물관은 전시 외에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연구를 위한 공간 등 차별화된 교육연계 복합공간으로 운영한다.
- (나) 특수 박물관이 가지는 특정 관람 수요 외에,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 (다) 핵심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모색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학생의 경우 교과서 내용과 연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간,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한다.

### ※ 한글박물관 운영 인력 및 예산의 단계별 확보 계획

구분	사전 준비 단계 ('12년~'13년)	개관·운영 단계 ('14년)	활성화 단계 ('15년 이후)
조직	개관 준비 인력 ☞ 10여 명	기본 운영 인력 ☞ 50여 명	추가 운영 인력 ☞ 10여 명
예산	○ 건립비 302억 (총사업비 368억 중 잔여분) ○ 개관 준비 60억	박물관 운영비 연 150억	물가상승률(5%) 반영, 연차별 증액

## 2) 한글날 행사 다양화

1926년 11월 4일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한글날은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리고 이를 민족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08년부터는 한글날 경축 행사만 개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글날 전후로 ‘한글 주간’을 정하고 매해 주제를 바꾸어가며 한글 문화 상품 기획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글의 가치를 한국의 대표적 문화 상품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보다 다각화하여

한글날과 한글 주간을 대표적인 국가 문화축제로 승화시켜서 세계 유수의 문자 및 언어 관련 축제로 '세계 문자전'을 기획하여 중국, 브라질, 이집트 등 세계의 문자 소장기관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세계 문자의 실물과 문헌 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글의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한글 주간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데, 한글이 지니는 다채로운 가치를 활용하여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한글 문화학술행사에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다. 또한 시민, 외국인 등의 참여 주체가 한글 및 한국어의 가치를 공감하고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한글날 경축식, 유공자 포상, 아름다운 노랫말 음악회, 외국인 한국어 겨루기, 한글 관련 전시회 등을 기획하고, 국외에서는 재외 문화원·세종학당에서 한글 주간 행사로 신세대 한국 대중가요(케이팝) 겨루기, 글씨 쓰기 체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3) 한글의 활용도 강화 등

한글은 로마자나 키릴 문자와 기능이 유사한 표음문자에 속하지만 문자라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인본주의 철학이 깃들어 있는 문화 콘텐츠이다. 창제 당시의 언어학적 역량이 총결집된 한글의 과학성 또한 현대 언어학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견지에서 극찬받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속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한글의 활용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한글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 디자인 및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단기 한국 여행자가 다른 문자와 한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한글을 깨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한글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통해 한글 나아가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글을 활용한 문화 활동의 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한글 문화 상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보급하기 위해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여 한글 문화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 미술 등 문화 상품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모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 부 록

1. 국어기본법
2. 국어기본법 시행령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4. 국어심의회 운영세칙



##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24호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 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1조(어문 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어문 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
일부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일부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
일부개정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4호
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조(어문 규범의 영향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 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 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 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나이·성(性)·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 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2]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

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2.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2.8.22]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8.22]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전문개정 2012.8.22]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삭제 <2008.10.20>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

답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에 상담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부칙** 〈제24453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2.8.2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		
1.	한국어 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 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 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 로 서 의 한국 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 국 문 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화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 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2.8.2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4조제3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14>

## 한국어교원자격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호  
Certificate Number

이름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자격  
Qualification Grade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무시험 검정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 호 목 자격기준
3. 수여 조건: 해당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lt;개정 2010.12.14&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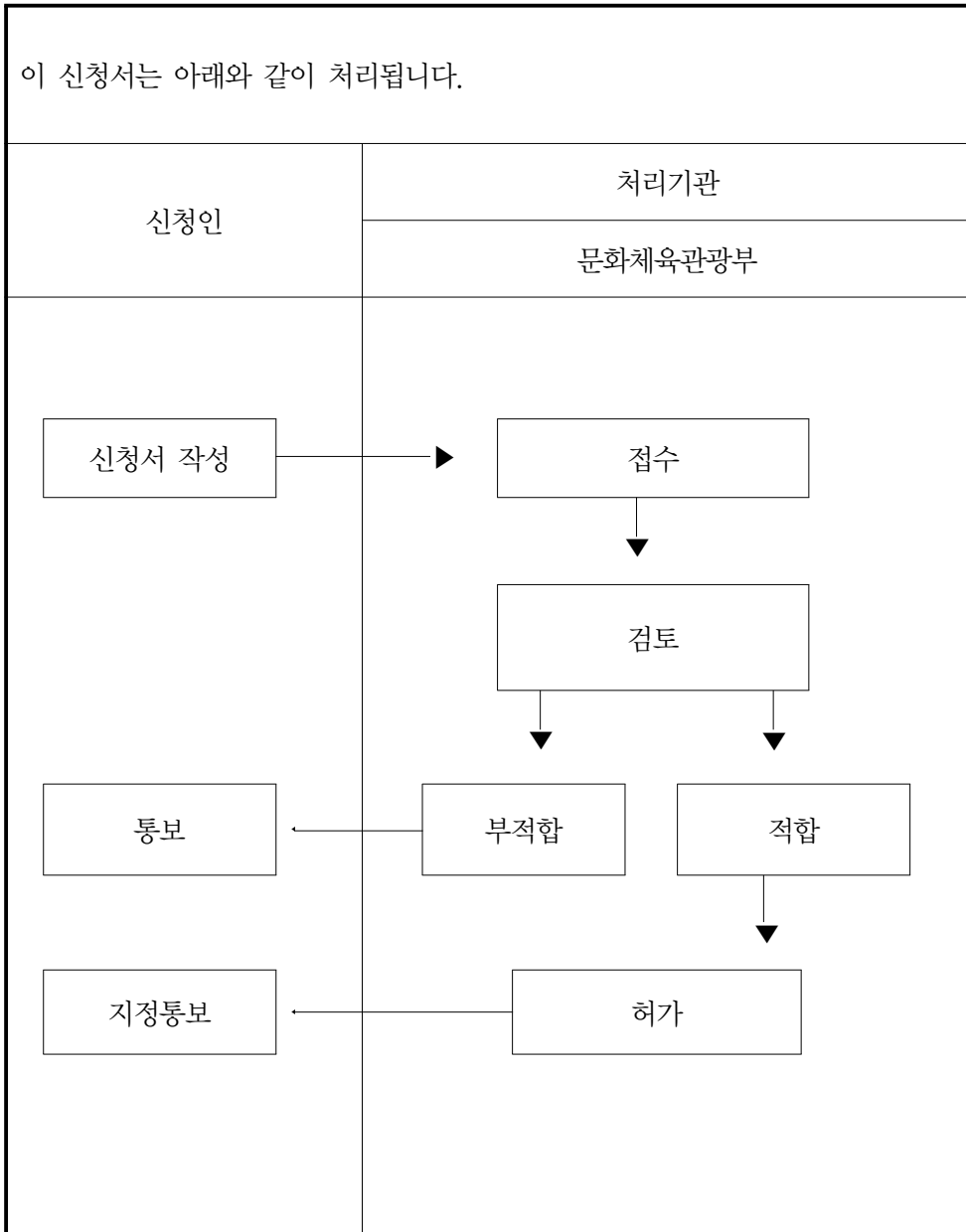
(앞쪽)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단체명·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 요망 사항 :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b>				
구비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시행 2011. 6.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 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날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 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 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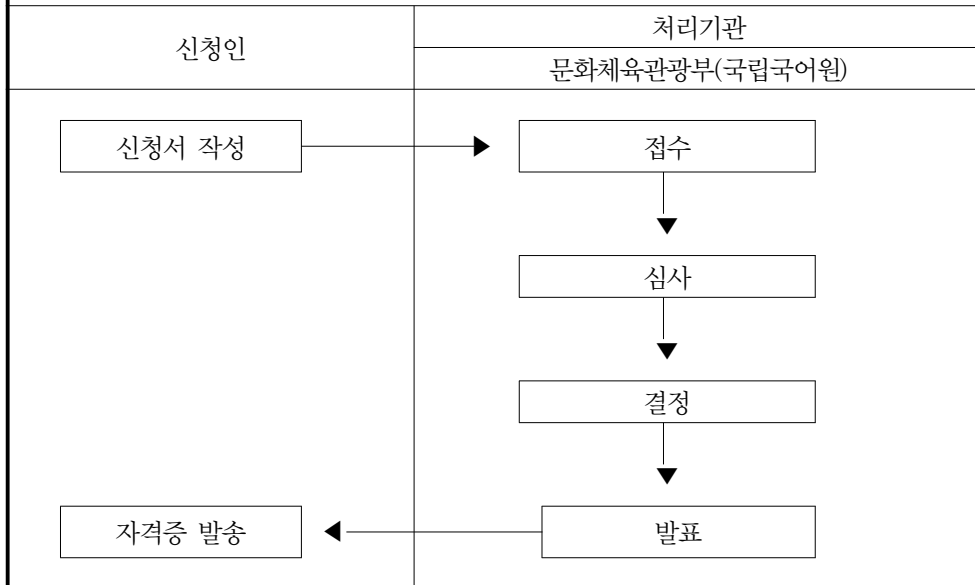


(뒤쪽)

※ 구비 서류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시간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시간		( )시간					
	<p>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급 기관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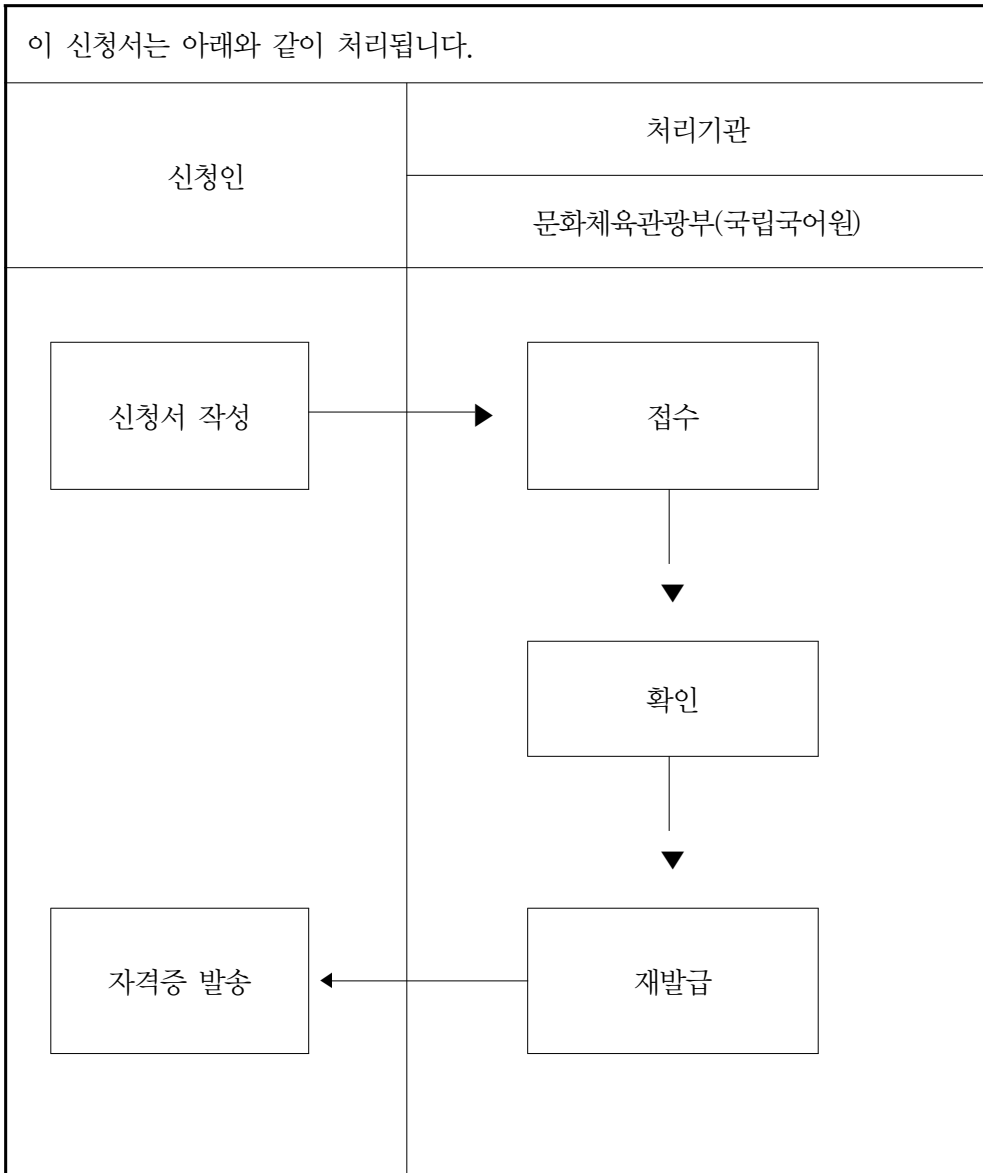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자 우 편		전화(휴대전화)	
	주 소			
자 격	등 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p>「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문화체육관광부장관</b>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수 수 료	수입인지 10,000원
<p>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5호서식]

<b>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b>				
신청 기관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① 신청 과목명			② 과목의 해당 영역 ( ) 영역	
③ 과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부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박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학부 연계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다른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교양과목 <input type="checkbox"/> 전공 교직과목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	
④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토론식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접 기재: )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시간	
	기타			
⑤ 주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부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⑦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신청 기관의 장</span>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60px;">직인</div> </d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신청 기관명		과정명	
과정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단기 집중과정 <input type="checkbox"/> 방학과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일수/주당		수업 시간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 학 및 응용 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 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아수시간	(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정 소개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국어심의회 운영세칙

제정 1995. 12. 23.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일부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28호  
전부개정 2009. 10. 1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취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3조(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전문소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 선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 각각 호선한다.

**제7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① 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1인이 심의회나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의결)** ① 심의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①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개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회의 참석자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협조 요구)** ① 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에게 의뢰)**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지명)** ① 영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



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임무)** ① 영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보관 및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6조(수당 등)**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업무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의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7.28.)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 10. 11.)

[별지 제1호서식]

## 위 축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축 기 간 : 20 . . . . ~ 20 . . . .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

\_\_\_\_\_ 위원님 귀하

회의 구분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심의 안건	
심의 자료 내 용	
심의 자료	‘붙임’과 같음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어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일정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또는  
(                    ) 위원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총괄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집필진	김문오(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김선철(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김한샘(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김덕호(경북대 교수) 김슬옹(세종대 교수) 김진해(경희대 교수)

'11년~'12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

인쇄일 | 2013년 8월 19일  
발행일 | 2013년 8월 22일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어 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화 | 02)3704-9446, 전송: 02)3704-9429  
www.mcst.go.kr  
인쇄처 | 크리홍보 02)737-5377

---